東大新聞

發行人 黃壽永
編輯人 朴先榮
印刷人 鄭九鎬

主幹 吳洪晳
編輯局長 金容喆
編輯部長 南 澮

發行所
우편번호 100
서울시 中區 筆洞3街26
東國大學校內
東大新聞社
電話交換 ☎8131~9
本社直通 ☎8577

每週 火曜日發行

東國人 浩然之氣 다져

14회 東國人登山大會 18日 北漢山일원서

총4백85개팀, 2천여명참가해

慶州大는 15일 南山일원서실시

4·19 기념「제14회 동국인 등산대회」가 지난 18일 오전 9시20분부터 총4백85개팀, 약 2천여명이 참가한 가운데북한산성 일원에서 실시되었다. 이번 대회의 등정코스는「세검정→대남문→군창지→북한산국민학교」이었으며, 많은 참가팀이 열띤 경합을 벌인 끝에 최고상인 총장상과 종합학원 이사장상은「R·O·T·C 2년차팀」과「수학과 B팀」에게각각 돌아갔다.

삼귀의례, 우승기 반납, 대학원장 대회사, 동창회장 축사, 심사강평, 시상 순으로 진행된 폐회식에서 李東林대학원장은 대회사를 통해『山行은 거룩하며, 仁者가 산을 좋아한다』면서『교직원, 재학생을 비롯 동문까지 한마음이 되어 전동국인의 의지를 보여준 것이 기쁘다』고 말했다.

한편 참가팀 모두가 등산을 마친후에는 북한산국민학교 운동장에서 심사위원들의 채점이 있는 동안 장기자랑을 실시, 등산에서 오는 피로를 풀기도 했는데 장기자랑 1등은 조종미(교육학과3)외 2명이 차지했다.

곧이어 시상식을 끝으로 등산대회의 모든 일정을마쳤는데, 예년과같이 산행중 일부학생들이 음주하는 예등이 있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번대회의 주요입상팀은 다음과 같다.

◇최우수상▲ROTC 2년차팀(재학생부·총장상)▲수학과B팀(재학생부·이사장상)

◇우수상▲등계A팀(재학생부)▲행정대학원C팀(동문부)▲ROTC 1년차팀(써클부)▲유스호스텔여학생팀(여학부)▲등대부고A팀(종합학원부)▲도서관팀(교직원부)

◇자연보호상▲국민윤리학과 I팀(재학생부)▲법정대교수팀(교직원부)▲전산원C팀(종합학원부)▲안양학우A팀(동문부)

◇동국산악회장상▲불교학생회E팀(써클부)

◇총동국인의 단합을 위한 등산대회가 총485개팀이참가 한가운데 북한산성 일원에서 실시되었다。

慶州大

4·19기념「제4회 慶州東國人 등산대회」가 지난 15日 金仁鴻학장을 비롯한 교직원, 동문, 학생등 1천5백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경주南山 일원에서 실시되었다.

이번 등반대회는 총2백50여팀이 참가하여 경합을 벌렸는데 이날 일정을 살펴보면 출발지인 통일전(서출지)에서 집합해 넘버를 교부받아 오전 9시에 코스로 진입하여 칠불암을 거쳐서 연못(용장계곡)에 도착, 오후 1시50분까지 중식을가지고 그곳에서산상테스트를치루었다。다시 상선암을 거쳐서 4시에 종결지인 삼릉에 도착하였는데 심사위원들의 채점이 있을 동안 참가팀들의장기자랑이진행되었다。

한편 각부분별 시상내역을 보면 다음과 같다。

▲최우수상=아카데미팀(불미과1)▲운행상=법학과1년노재준외(재학생부)·시립편집실(서클부)·기숙사H 권오팔외(기숙사부)·학군단(교직·동문부)▲장비상=수학과3(재학생부)·R·C·Y채승환외(서클부)·기숙사0·박병배외(기숙사부)▲감투상=환조과·정민조외(재학생부)·요트B·정광식외(서클부)·기숙사G·김철관외(기숙사부)·도서관(교직·동문부)▲자연보호상=로타랙트。

今週一言

六塵信을 不惡하면 還同正覺일세 智者는 無爲건만 愚人이 自縛이로다。

六塵을 싫어하지 않으면, 오히려 正覺할수 있나니, 지어혜로운 자는 행함이 없건만, 리석은 자는 스스로 얽매도다。

<信心銘>

「佛誕기념」연등제작 佛敎學生會

높이 4·3미터 白象제작중

佛敎학생회는「스스로 밝히는 동국의 등불」이란기치아래「연등제작」을 지난 3月25日부터 내달 19日까지 학생회관2층 H201 써클룸에서 진행중에있다。

이번 행사는 1천5백개의 연등제작을 목표로 불교학생회 회원이 아닌 本校生이면 누구나 참여할수 있으며, 하루평균 50여명이 참가, 15日현재 5백여개를 제작했다。

제작된 연등은「석가탄신 기념일」에 제등되는데 교내가설등 1천개, 교외가설등 5백개, 정각원가설등 2백개, 제등행렬등 5백개로 쓰일 예정이며, 한편 제등행렬의 행로로 여의도→서울대교→아현동→서대문→광화문→조계사 순으로 된다고 밝혔다。

또 이번「석가탄신 기념일」에「白象제작」도 계획중이다。

높이4·3m 코·귀가 움직이는 자동으로 대형버스크기만하며 제작된 白象은 제등행렬과 함께 시가행진도 할 예정이다。

보리수

開校 77周年을 맞이하는 今年은 分明 東國中興의 해이다。

7字는 吉數이며 極數로써 絶對數이다。그리고 哲數이며 幸運數이다。

이제 우리 東國은 7字의 變數인 77周年을 맞이하여 傳統과 名門의 底力을 誇示한 것이다。

그의 한例로써는 大望의 野球優勝인것이다。나는 이날 優勝을 豫感한 듯 學生을 動員하여 午前 11時頃부터 應援席에 자리 잡았다。學則에는 어긋나지만 이날 球場에 나오지않는 學生은 缺席은 勿論 愛校心이 없는 非東國人이라고 까지 했다。그때의 應援에 얼마나 熱狂했는지 아직 손바닥이 아프고 다리가 우리하다。

이날처럼 全東國人의 自發的 團合心을 보인 일은 일찍 본지 못했다。總長님을 爲始한 全敎職員과 同門 學生 學父母 그리고 財團 나아가서 宗團과 全佛敎人과 東國을 아끼는 모든 이들, 이 얼마나 感激의 喊聲이며 잊을수 없는 瞬間인가。

白象의 獅子吼

이와같은 일체감의 힘으로 매진한다면 東國은 분명 전성할 것이다。

이러한 상황을 佛敎에서는 獅子吼 海潮音 圓音 등으로 표현되고 있다。부처님께서 八萬四千의 內外魔軍을 항복받고 成佛한 법열의 환희와 무엇이 다르리요。全東國의 가족끼리는 평소에 약간의 갈등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우승의 순간처럼 모두가 하나가 된 그마음으로 東國을 이끌어야 될 것이다。

野球는 원래 군도의 영국이 대륙으로 뻗어나가려는 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國技로 발전된 것이라 한다。그러나 우리 東國의 野球史는 1946년10월에 창단되었다가 이내 해체됐고 1963년 9월에 부활되어 1965년 전국선수권대회를 비롯하여 3차례나 정상의 문턱에서 준우승만을 차지했다가 드디어 1983년4월7일 그것도 77주년의 7數에 해당되는 4월7일 오후 7시에 우승의 환호가 터진것이다

우리는 이제 우승의 흥분에만 도취되어 있을수만은 없다。쫓는 측에서 쫓기는 편이되었으니까。정상의 자리가 좋다는것은 再言이 不要하나 그자리를 지키기 위한 不斷의 노력과 만약의 실수로 정상의 자리를 내어놓아야하는 그괴로움의 아픔이 얼마나 큰가는짐작하고도 남는 바이다。

때문에 有求면 有苦란 말이 있다。석가도 成佛을 구하기 위해 고행을 마다하지 않은것 처럼東國의 정상을 지키기 위해 무거운 짐을 선수들에게만 맡기지 말고 全東國이 渾然一致되어 우승의 그때처럼 자발적인 단합의 후원이 있어야할 것이다。

〈金鎭煥〉

慶州大「푸른…」

황윤기前시장 헌수

慶州大學「푸른캠퍼스 가꾸기 헌수운동」이 진행되고 있는데 各지역인사, 同門들의 헌수가 답지하고 있다.

佛大 金煐泰교수

지난5일「雷虛賞」수상

金煐泰(佛大·불교학과)교수가「雷虛불교학술원」이 제정한 제1회「雷虛불교학술상」을 지난 5일 정각사에서 수상했다。

이번 雷虛 金東華박사의 忌日에 수상된 논문은『善光寺緣起를 통해온 백제의 請觀音經신앙과 그 일본전수』(불교학보 제19집)로서 지금까지 국내의 자료로서는 究明하기 곤란할뿐 아니라 아직 韓·日 어느나라에서도 연구발표된바없는 백제불교의 한 信仰형태「請觀音經疏闡義鈔」(千卷 宋釋智圓)「諏訪繪詞」(일본 圓忠法印)등 희귀자료를 국제불교史的 측면으로 연구했음에 이를 높이평가 수상자로 선정된것이다。

중간고사 1학년 科目만

28·29 양일간실시

경주대

慶州大學 교무과에서는지난13일 중간고사의 시행방법을 일부개정하고 그 일정을 확정발표했다。

이번 발표에 의하면 지난학기부터 정기적으로 치뤄졌던 중간고사가 이번학기부터는 강의의 내실을기하기위하여 1학년과목에한하여만 오는28·29日 양일간에 걸쳐 실시하게되며2、3、4학년은 교수의 재량하에 수업시간을 활용、오는 5월14일까지 수시평가로서 중간고사를 대신하게된다。

또한 1학년 과목이라도 실험·실습·실기·교련·체육등은 수업시간내에 담당교수의 재량으로 치루어지며、2·3학년에 개설된 1학년과목은 1학년과 같이 上期間內에 실시하고 2학년 외국어과목(초급 독어·불어·일어·중어등)은 수시평가에 의하여 대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1학년 시험시간표는 오는20日 발표될 예정이다。

本校김광선君 금메달

지난9일「킹스컵 복싱」

本校生 김광선(건축공학과1)군이 지난 9일 태국에서 막을 내린「제9회 킹스컵국제아마복싱대회」에서 금메달을 따냈다。

라이트플라이급의 김군은 태국의 산놀상가노를 신장의 열세에도 불구하고 빠른 스탭을 이용 판정으로 승리했다。

한편 정용범(경찰행정학과3)군은 지난 14일 있었던「韓·美·日 친선국제 아마복싱대회」에서 일본의 미우라 구니히로를 1회 RSC로 이겼다。

「考試特講」

내달7일까지 실시

考試指導委員會「考試特講」이 지난15일부터 오는 5월7일까지 명진관(A103)강의실에서 있게된다。

이번 특강은 고시준비를 하고있는 여러학생들의 요구와 외부인사에 의한 보충학습및 아직 고시준비를 않고있는 학생들에게 자극의 계기가 되도록 하기위해 실시되는데 서울대 梁承圭(법학)·黃迪仁(법학)교수가 각각 상법과 민법을 맡아 강의하며 6월12일있게되는 사법고시를 앞두고 수험자에게는 최종정리가 될 것이라고 고시지도위원회한 관계자는 말했다。

東問東答

▲人間은 忘却의 동물이라고한다。망각이란 잊고자하는 自己意識과는 관계없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어떤 기억된 사실이 차차 사라진다는 뜻이다。물론 어떤일의 비중여하에 비례하여 망각의 속도 또한 달라질 것이다。우리 모든 大學生, 아니 특히 東國人에겐 한순간이 아니라 영원성을 내포한 4월의 사건을 가지고 있다。올해로 4·19 스물세돌을맞았다。本校는 이를 기념하기위해 지난 18일「東國人 登山大會」를 열었다。매년 그어느행사보다도 많은 동국인이 참가하여 意義를 더하고있으나 과연 얼마만큼 4·19정신을 되살려주고 있는지는 의문이다。▲「東國人 登山大會」에는 東國人이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4·19를 기념하고 東國人의 단결을 위한」이라는 취지에 부응하여 참가한 사람도 있고 그것과는 상관없이 山行을 즐기기위해 참가한 사람도 있고 남이 가니까 나도 간다는 式의 참가자도 있었다。某직원은『총장님도 가시고 학장님도 가시는데 내가 안가면 욕먹을게 아니냐』며 참가이유를 밝혔고 某학생은『계속 쉬어야 하는데 따분해서』라고 말했다。『他科학생들은 다가는데 우리科만 안가면 체면이 안선다』며 참가자를 모으는 학생도 있었다。4·19를 기념하는 행사에 이런 참가동기를 가지고 참가하는 사람이 하나라도 있다는건 기념이 아니라 오히려 그의의를 깎아내리는게 되고만다。마치 유흥장을 방불케하는 장기자랑순서도 그렇고 一魚濁水처럼 늘 나타나는 만취자들 역시 행사를 무가치하게 한다。4·19당시의 깨끗했던 우리의 피가 20여년이 지나는 사이에 얼마만큼 오염되었는가。4·19는 3·15부정선거뿐 아니라 自主爭取 民權回復달성을 위한 거룩한 학생봉기였다。民主主義란 간판을 내걸고 부정과 부패를 일삼던 무력한 기성세대를 대신하여 東國人을 필두로 한 수많은 학생이 독재의 타도를 위해 순결한 피를 뿌렸다。▲북한산엔 진달래가 만발했다。흐릿한 감각으로 타도 부패한 사회를 바로잡는데 언제든지 그들을 내놓을 수 있는 東國人의 맥박을 느낄 수 있었다면 4·19탑을 찾는 경건한東國人이 하나라도 늘어나리라 생각된다。

노희두·김중배군등 4·19先烈추모

東友塔서 4·19 스물세돌 기념식가져

◇4·19 기념식이 19日 동우탑앞에서 거행되었다。

「제23주년 4·19기념식」이 19日 오전10시부터 黃壽永총장을 비롯한 각부처장, 교직원 및 학생 3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동우탑 앞에서 거행되었다。

이번 기념식은 삼귀의례로 시작, 노희두君과 김중배군을 비롯한 4·19영령의 명복을 비는 묵념이 있었으며, 정각원장의독경, 黃총장과 이사장의 헌화, 참석자 전원의 분향이 있은후 사홍서원을 끝으로 기념식을 마쳤다。

經大院 특강 신병현氏 연사로

經營大學院 경영경제특강이 지난 11일 오후6시30분부터 신병현(前경제기획원장관)한국무역협회장의「80년대 경제정책의 기조와 방향」이란 주제로 東國館 L301에서 있었다。

이번에열렸던 특강에서 신병현회장은『정부주도의 경제정책이란 자유방임주의경제의 폐단과 보이지않는손의 기능만으로 만족할 수 없는 문제·소득분배문제등 민간기업이 조절하기 곤란한 諸問題보완에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그 혜택을 받는것은 소수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하며『한국경제가 先進化되려면 우선 官主導경제체제에서 民間主導경제체제로 변경되야 하는데 이의 발전을 위해서는 독점규제및 공정거래법률의 시행, 금융기관의민영화·산업구조개편이뒤따라야한다』면서이날특강을 끝맺었다。

4·19기념 현상논문

박형순당선, 백광열·김덕용가작

本社주최「4·19기념 현상논문」당선작 및 가작이 최종 발표됐다。

젊음과 용기, 실천의 표상으로 불리우는 4·19 23주년을 맞아 그날의 정신을 기리고 이어나가기 위해 오늘의 학생정신의 문제에서부터 전통의 이해와 통일문제에 이르기까지 극복돼야 할 문제를 모아 학생들의 글을 모집한 결과 총 28편이 응모, 치열한 경합을 벌인 끝에「4·19와 오늘의 學生位相문제」부문에 백광렬(농경과·4)君과「理念과 민족통일문제」부문에 김덕용(경영과2)君이 가작으로,「傳統文化에 나타난 民衆意識과 계승문제」부문에 박형순(국사교육과·4)君이 당선으로 뽑혔으며,「民族文學논의에 있어서의 리얼리즘 수용문제」부문에서는 수상작이 없다。

한편 심사위원으로는 韓相範(법학과)교수가「4·19와 오늘의 學生位相」부문을, 閔丙天(정외과)교수가「理念과 民族統一문제」부문을, 洪起三(국문학과)교수가「民族文學논의에 있어서의 리얼리즘 수용문제」부문을, 任敎姬(사학과)교수가「傳統文化에 나타난 民族意識과계승문제」부문을 각각심사했으며, 시상식은토요일12시本社에서실시할예정이다。

두同門 봄國展入選

金容喆·宣柱善

文藝振興院 주최「제2회 大韓民國 美術大展」에서金容喆(國文科61년卒·小說家)동문과 宣柱善(佛敎科80년卒·書藝家)동문이 書藝部門에 각각 入選했다。

宣동문은 國展서예부문에 이미 특선및 입선의 경력이있는 本校 동국서도회前지도강사이며, 金동문은 小說家로서 書歷 3년만에수상하게된 것이다。

社告

제21회 全國高校文學콩쿠르

高校文學의 饗宴

本社에서는 開校77周年을 紀念하여全國의 男女高等學校 文學徒들을 對象으로 創作意慾을 高揚하고 나아가서는 未來의 韓國文學을 이끌어 갈文才를 양성하기위하여 다음과같은 要領으로 第21回 全國男女高等學生 文學콩쿠르를 開催합니다。每年 많은文學徒를 발굴해온 이 뜻있는 잔치에 많이參加하여 榮光을 누리기바랍니다。

◎作品募集種目

(가) 詩……………………3~5篇이내
(나) 詩調…………………3~5篇이내
(다) 小說…………………50枚내외
(라) 隨筆…………………15枚이내

◎審査節次

高校生의 作品으로서 學校長이推薦한 作品(推薦書同封하시기 바람)

◎施賞種目

1차 原稿審査에서 입선한者는個別通知하며 5월29일 本校에서열리는「白日場」에서 最終入賞者를 결정한다。

▲詩部	①壯元1편(상장및 부상) ②佳作2편(상장및 부상)
▲詩調部	①壯元1편(상장및 부상) ②佳作2편(상장및 부상)
▲小說部	①壯元1편(상장및 부상) ②佳作2편(상장및 부상)
▲隨筆部	①壯元1편(상장및 부상) ②佳作2편(상장및 부상)

※1차 原稿審査에 합격한者에겐 入賞狀과 副賞을 授與한다。또한 각부문 당선자가 당해 학년도(84年度)本校 語文學系列 입시에 합격경우 장학혜택을 받을 수 있다。

◎作品提出期間 83년 5월 1일부터15일까지 본사로 우송할것

1983년 5월

東大新聞社

"친구가 잘 돼야
내가 잘 되지요"

함께 번영하는 길이 참된 번영의 길—

회사 동료들, 업무관계로 만나는 사람들,
거래업체 사람들, 고객들, 소비자들,
그리고 저 경쟁회사 친구들까지—
이 모든 친구, 이웃들이 잘 되어야
나와 우리회사도 잘 될수 있읍니다.

國際그룹은 국가사회라는 보다 큰 그룹의
일원으로서, 모든 친구와 이웃과 사회가
다 함께 잘되는 길이 참된 번영의 길임을
명심하고 무역, 제조, 건설, 운송, 증권 등
많은 분야에서 共存共榮의 기업이념을
실천코자 슬기와 정성을 다하고 있읍니다.
함께! 함께 번영의 길을 갑시다.

誠實하고 다부진 젊은이의 일터——
國際

國際商事/聯合鐵鋼工業/國際綜合建設/元豊産業/國際綜合機械/東西證券/國際紡織/國際製紙/朝光貿易/國際商船/國際通運/聯合物産/豊國化學/新東製紙工業/東宇産業/成昌纖維/國際土建/國際綜合엔지니어링

사설

4·19 學生義擧

해마다 各大學에서는 4월19일이되면 소위 학생의거를 기념하는 행사를 벌인다。本校만 하더라도 이날 동우탑에 獻花하며 식을 올렸고 그리고 기념식을 마친뒤에는 학생간부들이4·19당시부상당한 同門을문병했다。

4·19 義擧가 발생한지 벌써 22년이나 흘렀는데도 불구하고 3·1운동이나 光州學生事件과함께 매년 그날을 되새기는 기념행사를 거행하는것은 그만큼 역사적 의의가 짙기때문이라고 생각하지않을수 없는것이다。

삼일운동이나 광주학생사건이 日帝의 식민지정책을 반대할뿐더러그의 暴政에 저항하기위하여 발생했고 이에 모든 한민족이 참여했다함은 이미 주지된바이다。비록 상대는 다르지만 4·19義擧가 자유당정권의 부패 선거의 부정 반대당과언론의 탄압및 경제사회의 부조리등을 타도하고저 대학생을 비롯한 각급 학생들이 궐기했었고이에 사회의 지식인과 많은 일반국민들까지 합세한 하나의 봉기였음은 아직도 기억에 생생하다 할수있다。4·19는 집권층이 민주주의를 외면하고 그에따라 국민의 참뜻을 거역한 그들의 행동을 청소한 전국민적 운동이라할수있으며따라서 이 의거는 민주주의의 수호를위한한 壯擧이아닐수없는것이다。

元來 대학이란 학문을 연구하는 전당이며 따라서 대학생들은 각기 전공분야별로 이론을 중심으로 강의를 듣는한편 관계저술이나 논문을 통해 전문지식을 축적한다고 볼수 있다。즉 實社會의 여러가지 현상에는 귀를 돌리지않고 오로지 학문연구에만 몰두하는것이 대학생의 특색이라는 말이다。一次大戰때 유럽각국의 대학생들이 전화로 말미암아 校舍가 없어졌는데도 山에 천막을 치고 수업을 계속했다고 들고있다。그만큼 대학생들은 社會에서 일어나는일에 상관않고 공부만 한다는 좋은 예라할수있을것이다。

까닭에 대학생들이 社會生活에다소 미숙하거나 또는 실수를 한다하더라도 當局이나 관계사회인들은 그를 크게 봐주고있는 실정에있다해도 過言이 아니다。

그러나 필요시에는 학생들이 가끔 社會에 참여하고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지난날의 內外歷史에서 찾아볼수있으며 이른바 4·19는 바로 그의 실예라할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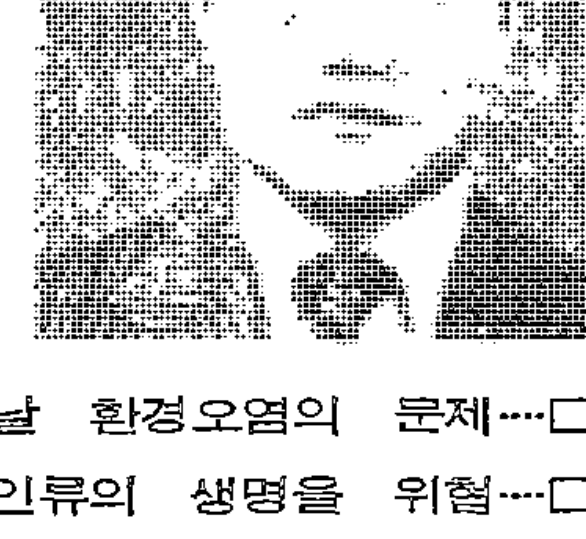
旣成指導者들이 정치적인 발전과 경제및 사회의 발전을 바르게 이끌고가지않고 또한 기성세대들이그를 보고만 있을경우 학생들은 그를 바로잡기위하여 부득이 나서지 않을수 없는것이라고 보겠다。李承晩대통령을 위시하여 자유당의 지도층이 不義를 자행하고있는데도불구하고 사회인들은 그를 방관하고 있었기때문에 순수한 사상을 기르고 正義에 불탄 대학생들이 궐기의 선봉에 나섰던 것이란 의미이다。따라서 일반국민들이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학생들이 대신해서풀어준것이라고 여길수있다。

이처럼 義로운 일을 위해 궐기한 탓으로 학생들이 그 운동이상의것을 갖고있지않았음은 새삼스럽게 무를나위없다。李承晩씨가 대통령자리에서 물러서고 또한 자유당세력이 후퇴하자 학생들은 모든 질서를 지키면서 政權을 민주당이 계승토록 하였던것이 아닌가。이것은 순수한 학생운동이외에 아무 욕심도 없었다는 좋은 증거라할수 있다。本大學에서는 수년전부터 해마다 4·19를 전후해서 등산대회를 실시하고 있다。이 등산대회를 통해 東國人들이 각기 의지를 한층 굳게 다지며 또한 단결심을 기른다함은 무를것도 없거니와 한편 자연을 상대로하면서 넓고도 큰 원기를 기르게된다 할수 있다。

굳이 自然法思想을 벌리자는 것은 아니지만 자연에는 자연계의개개현상이나 인간사회의 개별적 경영에 답을 해주는 하나의 보편적 理法이 있다고 한다。그리고 이自然理法이 世界를 움직이고 있다는 말이있다。다시말하여 자연에 따른 그와같은 法則을 추구하므로써 현실의 도덕이나 정책을 비판하는능력을 갖출수 있다는 뜻이다。이런 측면에서 고려할때 등산하면서 동시에 자연을 관찰하고 거기에 흐르고있는 어떤 움직임을 살펴본다는 것은 뜻이 깊다고 느끼지 않을수 없다。

끝으로 4·19의 숭고한 학생정신을 더욱 더 빛나도록 하기위하여 이에관계되는 학술행사같은 것을 本校에서도 개최했으면 어떨까하는 생각이 든다。아뭏든 학생들은 이날을 맞아 공부를 하여 출세한다는 좁은생각을 버리고 民主社會의 건설에 바르게 공헌한다는 자세를 다시 한번 더 가다듬어주었으면 좋겠다。

汚染으로인한 環境과 人間生活



李敏雄
＜農生科교수·植物病理學＞

□…오늘날 환경오염의 문제…□
□…는 인류의 생명을 위협…□
□…하고있다。이에대한 문제…□
□…점과 대책을 本紙에서는…□
□…밝혀주고있으며 또한 국…□
□…가발전과 환경보전의 문…□
□…제를 잘 조화시켜나가야…□
□…된다고본다。<편집자註>…□

Ⅰ序 論

公害나 汚染이란 語句는 이제 우리 生活 주변에서 항시 듣고 또實際로 經驗하고 있다。

錦繡江山 아름다운 우리 疆土란 이제 옛날인양 들리고 우리의 주변환경에 관한 問題는 人類의 生存과 關聯된 문제임에 틀림 없게 되는것 같다。

人間의 集團生活, 人口 增加와 産業化에따른 환경의 오염은 어제 오늘에 始作된 것이 아니고 오래전부터의 사실로서 人間活動에 의해서 發生되는 廢棄物이나 그 現象의 一部가 환경과 生物生態系의 變化를 가져와서 生物의 生存, 生育, 繁殖活動에 障害를 주는 현상이라고 定義될 수가 있다。

그러므로 公害현상은 그 發生源이 人間의 生活과 人口의 급증, 開發과 生産過程, 交通·輸送·消費및 전쟁등에 의해 발생하는 廢物에 의해서환경 오염을 낳게하고 이 현상으로生物界에 生態學的 變化를 초래하는것이다。

오늘날 科學과 技術의 발전은 보다 나은 商品 보다 나은 써비스의 형태로 모든 消費物資를 人爲的으로 生産할수 있게 되었고, 이런 生活活動이 소비를 자극하므로 多量의 天然資源을 소모하고 廢物을 배출하는데 과학기술의 고도화나 기계공업에 의한 産業化가 크게 발전되면 人間生活이 質的으로 向上 되는것만 생각한 나머지 편견이나 무관심 속에서 환경을 남용하였고, 이로 인해 인간·자연·생물과의 생태계에서 평형이 깨지게되어 지구상의 오염상태가 증가하게 되고 이증가는人口증가와 資源의 소비등과 때를 같이하여 자연자원을 고갈시켜 환경오염이 우리 생활을 위협하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는데, 폐물이란 糞尿를 비롯하여 생활하수, 공장폐수, 放射能物質, 소음, 진동, 매연, 분진및 가스등 그 오염성분은 다양하고 급격히 변화되어 환경에 달갑지 않은 부작용을 파생시키게 된다。

公害에 의한 被害는 人體, 家畜, 野生生物, 魚貝類, 植物, 建築物 그밖에 財産, 土壤등 광범위하게 나타나며 이런 현상은 急性被害, 慢性被害 때로는 生態的 變化를 수반하므로 일어나는 피해등 그 현상이 다양한 것이다。

歷史的으로보면 오염원을 줄이기위해바비론이나 앗시리아, 이집트의都市遺蹟을보면 이미 上下水道施設이 있었음을 알수있고, 英國의 엘리자베드女王은 1578년에 웨스터민스터궁전近方에 석탄의 사용을금지시켰다고하며 1952년대, 런던市에서 주택과공장에서 배출되는 매연이 기온의 逆轉, 無風, 濃霧에 의해 대기오염이발생하여 약 4천명 가량이 호흡기질환으로 사망하여 1954년 Clean air act를 공포하고, 美國이 1955년 Air polution act 소련이 1960년에 오염물질의 최대허용기준을 정하였으며 우리나라도 1963년 처음으로 공해방지법이 최초로공포되고 1971년 다시 개정 공포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이와같이 환경과 공해문제가 全世界的인 관심사가 되어 UNESCO (UN教育科學 文化機構) WHO (世界保健機構) FAO (식량농업기구) 및 WMO (세계기상기구) 등에서 健康, 福祉, 自然과 野生動植物보호등 여러가지 활동이 전개되고 있으며 이중 특히 1948年에 생긴 國際自然自源保存 聯合國體는 人間生態界를 중심으로 野生生物및 滅種 위기종의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1958년에는 국제해양기구가 생겨 油類에의한 해양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保護委員會가 設定되었다。

1972년6月에는 스웨덴의 스톡홀름에서 1백14개국가가 참가하여개최한 UN인간 환경회의에서는 인간·환경헌장26원칙이 생겼고 뒤이어UNEP (UN환경기구)가 발족되어오염원으로 부터 환경을 보호하려는문제가 범세계적으로 확대되어 오염환경의 미연방지와 탈피를 서두르는실정에 까지 다달았다。

다음은 우리가 매일 경험하게 되는 몇가지 환경에 대하여 알아 보고저 한다。

Ⅱ本 論

1、水質汚染

地球面積의 2/3을 둘러싸는 것이 물이라고 하나 이의 0·03% 가량이 淡水라고 한다。水質汚染은 河川·湖水·海岸과 같은 公共 自然水域에 生活下水, 産業用廢水, 農耕下水등의 汚染物質이 混入되어 水自體의 自淨能力을 超過하여 水質의 變化를 가져와 水資源利用에 支障을 招來하거나 水中 生物의 生態系를 破壞하는 現象인데, 重要한 汚染源은 家庭에서 나오는 糞尿와 釀造工場, 통조림工場, 펄프공장등등 各種形態의 工場에서 흘러 나오는 工場廢水가 있으며 또한 農業生産過程에 의한 化學肥料, 殺蟲劑, 除草劑등 毒性이 强한것이 河川이나 沿海에 汚染이 되면 魚族生存에 影響을 주며 사람에게도 害를 준다。

殘留性農藥 人間에直接피해줘

環境保全은 科學的방법으로 극복 되어야

우리가 이같은 水質의 오염정도를 관정하는 방법에는 水中에 용해되어 있는 산소량을 말하는 溶存酸素 (DO), 水中에 용해되어있는 유기물은 好氣的상태하에서 法化學的으로 분해되어 안정화하는데, 이러한 정화작용에 소비되는 산소량을 알려는 生化學的 酸素要求量 (BOD)으로 BOD値는 간접적으로 水中의 有機物에 의한 오염도를 나타내게된다。다음에 化學的 酸素要求量 (COD)이란 酸化劑에의한 水中오물의 酸化에 소비되는 산소량이다。

또한 浮遊性 物質 (SS)는 有機性인것과 無機性인것이 있는데 유기성인것은 BOD의 원인이 되며 부패를 일으키는 메탄가스, 硫化水素가스등에 발생 원인이 된다。

水中의 大腸菌群은 人畜의 분뇨를 따라서 수질의 오염과 病原오염의지표가 되기도 하는데 한 예로서 1848년 英國에 콜레라가 유행병으로 5만4천명이 사망하였는데 이는 飮料水의 급수오염에 의한 것이라하였고, 1014년 스페인에서는 上水에 腸티푸스菌이 오염되어 60만명중 1천8백여명이 사망 하였고, 日本에서는 1937년 痢疾菌으로 오염된 물을 통해 6백9명이 사망한 일등이 보고된바 있다。

2천年代를 겨냥한 우리나라의 年間 물 給水量을 보면 生活用水가53·7억톤, 공업용수 161·9억톤, 農業用水가 112·1억톤및 유지용수 28·9억톤 계357·6억톤이 된다는 전망인데 이를 漢江과 洛東江이 차지하는 비중이 각각 175·5억톤및 67·5억톤으로 전체 급수량의 65·4%를 차지한다고 한다。

環境오염 全人類의 위험요인돼

그러나 이같은 河川水 利用率 (1976년 근거) 18·3%를 2천年代에는 58%로 增大 시켜야 한는데, 우리나라 年間 總降水量 (平均1, 140억톤) 중 45%에 해당하는 510억톤이 蒸發散으로 大氣로 逸脫하거나 地하로 滲透하고나머지 630억톤중 357·6억톤을 用水 總需要量으로 推定하고있다는 事實이 더욱 緊迫感을 주고 있다。

그러므로 이후 우리나라 河川水에 대한 水系別 水價 保全對策은 우리나라 産業發展과 國家發展을 決定的 要因이 되기도 한다。

이같은 수질오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갖가지 연구가 되고있는데 한例로서 日本열대연구소에서는 모기가 매개하는 전염병을 퇴치할 목적으로 관상어의 일종인 라틴아메리카 원산의 송사리과에 속하는 굿비를 오수에서 기르면 모기의 애벌레인 장구벌레를 잘먹고 스스로 번식도 잘하는데 장구벌레뿐 아니라 식에 할유되어있는 유기물을 먹어치우므로 결국 오물에의한 폐수를 정화하는데 큰몫을 한다고 하였다。이같은 결과는 日本남부와 美國하와이에서도 악취를 제거하거나 유기물제거하는 동등한 성과를 거두었다고한다。

◇지구면적의 3분의2를 둘러싸는 것이 물인데수질오염은 하천, 호수, 해안과 같은 공공지역에 많이 나타난다。

2、大氣汚染

20세기 文明이 高度化된 産業化에 따라 각종 汚染源으로부터 廢棄物이 大氣中에 방출되는 현상인데 오염원의 주된 원인은 石炭 重油 그밖에 燃料 不完全燃燒에 의해 排出되는 煤煙, 硫黃化合物의 酸化에 의해 생기는 二酸化硫黃등의 硫黃酸化物, 自動車의 排氣가스로 배출되는 一酸化炭素, 窒素酸化物및 각종 有機化合物, 오염된 排水에서 廢散하는 악취물질등으로 나눌 수 있고 이들은 대기중에서 物理的상태에 따라 가스및 煤塵으로 나눈다。

우리나라의 경우 무연탄, 석유등 주택난방매연과 가스, 자동차의 폭증에 다른 배기가스와 산업시설에 의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交通機關에 따른 대기 오염량은 1973년은 1965년에 비해 2배가 증가되고 1980년초는 4배이상이 될것이라고 하므로 배출量의 농도규제, 행정지도등이 필요하다。

大氣汚染物이 人體 健康에 미치는 影響도 갖가지로, 呼吸氣道나 눈에 나타나는 刺戟性, 氣管支炎과 같은 慢性呼吸疾患을 더욱 惡化시킨다고한다。스모크에 의한 急性인 健康障害의 例로는 1930년대 벨기에의 Meuse Valley는 짙은 스모크에 덮여 그 속에서 化學的 汚染이 約 4日間 연속해서 일어나 60여명이 사망하였는데 이는 呼吸氣道의 粘膜의 傷害로 亞黃酸가스와 그 酸化物이 傷害를 일으켰다고 하였다。

大氣汚染이 植物에 미치는 影響에 한例로서 미국 테네시 溪谷改廢廢(TVA)의 J·C 노들은 특정지역의 農作物은 大氣汚染源이 되는 二酸化黃의 경우 그 水準이 어느 程度이상이 되면 植物 生育에 有毒한데反하여 낮은 水準의 경우는 植物生育에 이롭다고 하였다。노들씨에 의하면 植物은 날마다 大氣中에서 一定한 量의 黃化合物을 吸收해야 生産性이 增大된다고 하였는데, 그 理由는 硫黃은 重要한 植物營養源으로植物體內 蛋白質이나 葉綠素를 合成하는데 쓰였으므로 옛날에는 植物에施肥하는 肥料中에 黃酸 암모니움, 黃酸칼슘등의 施肥를 해왔으나 1950年代 以後에는 高濃度의 窒素·燐·칼륨을 包含하되 硫黃은 조금 또는 전혀 없는 肥料를 사용하는 경향인데, 이는 空氣中의 2酸化黃과黃化水素의 量을 늘려 감으로서 흙속에 硫黃을 補充한다고 한다。

3、食品·農藥의 汚染

금세기에 와서 農學의 가장 큰공헌은 농작물의 품종改良과 새로운농약의 개발에 의한 農業生産物의 增收에 따른 식량문제의 해결이 큰발전이라 할 수 있겠으나 농약의 남용에서 유발되는 토양과 식품·수질오염과 내성생물의 출현등이라 할수 있다。

특히 독성이 강하고 잔류성이 긴 농약이 문제가 되고 있다。

농약의 종류는 金屬化合物, 有機鹽素劑, 有機燐劑, 有機弗素劑및 카아바메이트劑등 다양한것이 쓰이고 있는데, 有機鹽素系農藥은 종류에 따라토양중에 잔유하는 현태가 다르다。

土壤中의 농약은 濕度, 水分, 미생물의 분포상태에따라 分解速度에 차이가있으나 대체로 1에이커에 5파운드 撒布된 농약의 50%가 감소하는기간은 엘드린 (Eldrin)이 2개월 파라치온 (Parathion)이 20일, 마라치온이 8일걸리는데 殘留性이큰 DDT를 6년간 繼續撒布한 土壤中에서 과거 사용한 함량의 50%가 검출됐다고 한다。이런 殘留性농약은分解될때 토양중의 生物相을 변화시키고 많은 종류의 세균을 滅殺시키므로 土壤成分의 異狀을 초래한다。

Mart가 1965년 각종 農藥이 土壤細菌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결과 1에이커에 1백파운드의 DDT 撒布한 곳에서는 小麥, 콩, 딸기, 시금치등에 나쁜 영향을 주는 방향으로 세균의 분포가 변화한 것을 관찰하였다。

農藥으로 인한 汚染은 河川, 海水및 動物에도 피해를 준다。

1968年 美國 미시간湖에서 잡은 연어에서 20~30PPM의 殘留 DDT가 발견되어 FDA (美國聯邦政府, 食品藥品 管理局)가 약 13만톤에 달하는 연어를 廢棄處分하므로 農藥인 DDT가 湖水에 汚染되고 먹이연쇄로 연어가 오염되었다는 사실을 증명 해주는 것이다。

日本에서도 제초제인 CPC가 들에 흘러 들어 잉어나 조개가 해를 입었는데 有機燐劑는 魚類(잉어)의 發育을 惡化시키고 DDT와 같은것

水質汚染… 水中生物 生態系 파괴시켜

은 물고기의 중추신경을 파괴하여 시력감퇴또는 상실을 가져오기도 하고 性호르몬조절기능에 악영향을 주어 無孵化卵을 낳는 이유가 되기도한다。

농약으로 인한 식품오염과 인체에 오는 피해는 여러가지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데 축적성 잔류성인 농약은 유기염소제계통 (BHC, Drin계등)과 금속화합물로서水銀, 납, 砒素, 有機水銀및有機砒素劑등이있다。有機水銀劑는 生體의 物質代謝를관장하는 SH基를 가진 효소의 SH基와 結合하여 活性을 不活性化시키고 SH 효소의 작용을 억제하여 中毒증상을 나타낸다。

食品의 오염현상은 水中生物의 경우 식물연쇄를 통해서 잔류성 농약이 고등생물에로 축적되어 농약으로 오염되어가고 있다。

사람이 음식을 통해서 섭취하는 유기염소계 농약의 50% 이상은 육류와 유제품에서 섭취하는 유기염소계 농약은 0·01PPM으로 계산되는 이러한 잔류농약은 농작물을 통해서 동물체에 농축된다。

Ⅲ結 言

산업이 고도화되는 社會構造를 통해 수출이 國民經濟의 규모확대에 기본요인인 동시에 사회구조적 변화에도 영향을 끼쳤다。내일의 韓國을 겨냥한 최근 政策研究報告에 의하면 90년대초 우리의 수출고가 1천1백5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앞으로 기업과 지역사회와의 긴밀한 협조로 환경보전을 해야하며 실질적으로 해결하기위해 환경보전 투자율을 78년도 0~4% (外國10~12%) 이상으로 해야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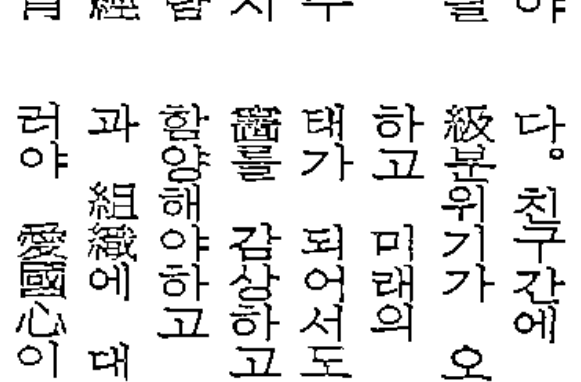
결국 國家發展과 環境保全 문제는 「科學과 社會」라는 측면에 비추어 볼 수 있는데 國家發展 과정에서 생기는 모든 形態의 環境의 質的 惡化要因을 科學的인 방법으로 슬기롭게 최소화 하므로 사회에 미치는 負的 영향을 原泉的으로 감소시키게되는 것이다。

汚染物에 의한 環境의 公害는 어느 한 국가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세계적인 문제로 등장하여, 環境의 破壞는 人類文化와 科學技術의 무질서한 발달의 所致이므로 근본적 개혁은 UN의 機能으로 講究하여 1973년 UNEP (UN環境計劃機構)는 특히 大氣·물·食品을 오염으로부터 보호하여 인간의 건강증진을 도모해야한다고 하였다。憲章 첫번째에서 밝힌대로 「우리 인간은 尊嚴한福祉生活을 허용하는 良質의 환경속에서 자유와 평등과 타당한 생활조건을 가질 基本權利로 갖고있으며 이와 동시에 現在와 未來의 世代들위하여 환경을 보호하고 개선해야 할 嚴肅한 責任을 지니고 있다」와 같이 우리는 늘 환경이 오염되는것을 방지하고 公害로부터 해방이 되는날 우리의 생활은 더욱 기름지고 행복되리라 믿는다。

「德望」은 타고 나지않는다

＜東大교수·農業經濟學＞

大学閑話



學問의 목표는 德과 知를 고르게갖추는데 있다고 한다。(學曰 知德兩全之意) 教育의 현장은 知識만 중히 여기고 德을 닦는 일에는 소홀한 감이 있다。그런데 실사회는 統率力 經營能力 創意力과 같은 능률적인人材를요구하고 있으니 父母 先生 教育정책 담당자는 다시 생각해야 될것 같다。

일정한 教育을 받은사람이면 그만큼의 知識은 누구나 갖추었다고 보고人性 人品 人格은 사람마다 고르지 않기 때문에 이왕이면 品位있는 人材를요구하는것은 당연한 일이다。

德을 소홀히 하면 秩序의 문란, 組織의 파괴, 知識人의 犯罪 (White Colour Crime)가 우글거려 社會를병들게 하고 나라도 망하게 하는 무서운 결과를 가져올수도 있다。知識人의 잘못이 無識人의 잘못보다 더 무섭다는 것이다。

國家를 위기에 몰아넣고 社會에 큰 소동을 일으킨 잘못은 모두 品位가보잘것 없는 知識人의 소행이었다。단위 조직내에 寄生하면서 組織을병들게 하고 發展을 저해한 교묘한 道德犯罪는어떻게 해야 치효가될 것인가。

人格的수양을 쌓지 못한 사람이統率者經營者 教育者일 경우 단위조직은 발전이 정지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아무리 아첨을 잘하고 뇌물을주더라도 이런 사람이統率者되는 일은결코 없어야 하겠다。

옛말에 德不孤라하여 德있는 곳에 人材가 모여 들고 知將不如德將이라하여 德望있는 사람의 統率力이 더 强하다고 했다。우리는 지금 國家를 繁榮에로 이끌어야하는 막중한 책임을진 時代에 살고 있다。그만큼 品位있는 人材를 요구하고 있다。

人生教育을 소홀히 한 일이 있다면 지금부터라도 다시 시작해야 할 것이다。친구간에 노트를 빌려주지 않는 學級분위기가 오래간다든지 人生을 토론하고 미래의 設計를 論할 친구없는 상태가 되어서도 안될 것이다。音樂 映畵를 감상하고 名作을 통해서 정서를 함양해야하고 行事에 참가해서 통솔력과 組織에 대한 애착심과 응집력을 길러야 愛國心이 거기에 있는데。

德望은 선천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學業에 열중해서 손색없는 學問家가 되어야 함과 동시에 다음世代의 德望家가 되기 위하여 治身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을 알려 두고 싶다。

陸軍士官學校의 모든것

오! 화랑대

陸軍士官學校! 소란과 충격의 歷史와 함께 살아온 화랑대-육군사관학교의 숨은 얘기를 처음으로 공개한다.

[illegible] 펼쳐지는 사나이들의 장쾌한 드라마!

- 陸士란 도대체 어떤 곳인가?
- 陸士人은 누구이며 어떤 사람들인가?
- 陸士人이 될수있는 최소한의 기본 조건은 무엇인가?

30여년 동안 陸士에서 외길을 걸어온 著者가 육사의 모든것을 우리 앞에 펼쳐보인다.

陸士教授部長 李東熙 著

3,600원

대학문화사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537 등북빌딩 1006호 ☎783-1541~5

고려콘택트렌즈

◎◎스포츠맨을 위한 특수렌즈

◎◎연속착용이 가능한 소프트렌즈

종로2가(고려당6층) ☎725-1133

□明知教育新書□

가장 완벽하고 권위있는 教育史論!

教育史新論

朴先榮 韓明希 共著

—주요 내용—

Ⅰ. 韓國教育史
上古時代·三國時代·高麗時代·朝鮮時代·大韓帝國時代·日帝의 植民地時代·8.15光復과 教育

Ⅱ. 西洋教育史
古代 그리이스의 教育·古代 로마의 教育·中世의 教育·르네상스와 人文主義教育·宗教改革期의 教育·實學主義教育·啓蒙時代의 教育·近代社會의 教育·現代社會의 教育

明知社 ☎967-1253

□明知新刊□

한스 켈젠 著
張庚鶴 譯

共産主義 法理論

값 5,000원

□20세기 최대의 法學者 한스 켈젠에 의한 共産主義의 法 및 國家理論에 대한 權威 있고 正確한 批判書!

—주요 내용—

국가와 법에 관한 마르크스 및 엥겔스의 이론 / 레닌의 국가 및 법이론 / 스트츠카의 법이론 / 라이스너의 법이론 / 파슈카니스의 법이론 / 파슈카니스의 이론의 부인 / 비신스키의 법이론 / 골룬스키 및 스트로고비츠의 국가와 법이론 / 소비에트의 국제법 이론 / 해 설

明知社 서울동대문구용두동39-802 ☎967-1253

제1회 전국중고등학생 "과학및 아이디어작품전" 개최

1. 목　적 : 중고등학생들의 무한한 창작력과 연구열을 고취시켜 과학화풍토를 조성하며 과학진흥에이바지한다。
2. 주　최 : 동국대학교 공과대학, 학도호국단
3. 후　원 : 동대신문사
   작품신청기간 : 1983년 4월30일~5월10일
   출 품 기 간 : 1983년 5월10일~5월20일
   출 품 장 소 : 동국대학교 산업과학기술연구소
4. 전시기간 : 1983년 6월 1일~6월 7일(예정)
5. 전시장소 : 동국대학교
6. 대　상 : 83년 5월현재 전국 중·고등학교에 재학중인 남녀학생
7. 출품분야 : 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 농수산, 공학, 해양등의 과학작품과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지며, 실생활에적응할수 있는 작품을 목적에 따라 다음과 같이구분한다。
   ①기초과학분야
   ②산업기술분야
   ③아이디어분야
   ④기　타
8. 출품할수 없는 작품
   ㉮과거에 출품되었거나 남의 작품을 그대로 복제한 작품
   ㉯부패하거나 파괴·폭발할 위험이 있는 작품

東國大學校 工科大學

大學院 研究論文集 原稿募集

◇동국대학교 논문집(제22집)원고모집

1983학년도분, 본대학교 교수논문집 (제22집) 을 발간하고자, 다음과 같이 원고를 모집합니다。

다　　음

1. 논문집명칭 : 동국대학교 논문집 (제22집)
2. 투고대상 : 본교 전임강사이상의 교원
3. 원고매수 : 200자원고지 200매이내
4. 원고제출마감 : 1983. 6. 30 (목요일)
5. 제출처 : 대학원 교학과

기타 상세한 것은 대학원 교학과로 문의바랍니다。

◇대학원 연구논문집(제13집)원고모집

본대학원 논문집인 연구논문 (제13집) 을 발간하고자 다음과 같이 원고를 모집합니다。

다　　음

1. 논문집명칭 : 동국대학교 대학원 연구논집 (제13집)
2. 투고대상 : ㉮대학원 재학생 (석·박사과정)
   ㉯본교 시간강사 (본대학원 출신자)
   ㉰본대학원 재학생이아닌 본교의 조교
3. 원고매수 : 200자 원고지 100매내외
4. 원고제출마감 : 1983. 6. 30 (목요일)
5. 제출처 : 대학원 교학과

기타 자세한것은 대학원 교학과로 문의바랍니다。

1983년 3월

東國大學校 大學院

4·19기념학생 논문현상모집 當選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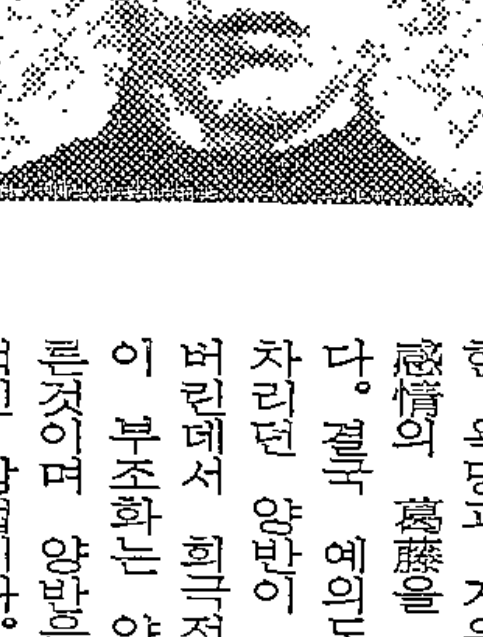
탈놀이에 나타난 民衆意識

商業·交通·行政중심지에 탈놀이 성행해

農村탈놀이 農樂隊가주동된 農樂굿 통해 비롯

都市탈놀이, 民衆綜合예술로서 歷史的지위확립

傳統의 繼承, 생산층의 삶조건 위해 改善方向 定立해야



朴炯淳 <師範大 國敎科>

Ⅰ、序論

우리의 탈놀이는 民俗劇으로서 크게 民俗學의 범위속에 포함된다。민속학이란 民衆의 문화를 對象으로 하여 민중의 거짓없는 生活史의 줄기를 찾는 學問이며, 그 줄기를 통하여 오늘에 서서 來日에 創造되어 갈 未來文化의 방향을 잡는 學問이다。그러한 민속학의 한 分野로서 民俗劇은, 文學的 表現樣相을 띠었으나 일찌기 記錄되지 못하고 오로지 口傳으로 그 명맥을 유지해 왔으며, 민중의 생활을 바탕으로 문학한다는 意識없이 그들의 經驗, 意識, 價値觀 등을 반영하여 生成된 共同의 문학 廣場인 民謠, 傳說, 說話, 巫歌, 판소리 등과 함께 傳承되어 왔던 것이다。하지만 민속극은 다른 口傳文學보다도 집약적 民衆意志를 담고 있으며 독창적인 劇形式을 통하여 타율적인 反民衆勢와의 싸움에 늘 積極的이며 當代의 현실을 충실하게 反映하고 있다。그들은 諧謔과 諷刺를 적절히 驅使하여 階級的 갈등을 銳利하게 나타내면서도 이를 극복하려는 의지를 뚜렷하게 표현하고 있으며 그 당시의 사회적 모순을 인식하고 날카로운 비판을 서슴지 않았다。

그러나 民俗劇에는 이러한 사회적 모순을 變革 내지 克服하려는 批判精神 抵抗意識만 나타나 있는 것은아니다。오랜 세월 동안 철저한 계급사회 속에서 피지배층으로 지내온 그들에게는 자신의 위치를<울론의 세계>로 받아들였을 경우도 있었으며, 鮮朝後期 신분제도의 문란을 통해서는 자신의 위치에 대한 자각과 一時的인 계급상승적 욕구를 만족시키고자 했던 작용도 있었음을 看過할 수는 없을 것이다。

우리는 언제나 歷史를 이끌어 가는주체자가 민중이라는 점을 생각해 볼때 그 시대의 참 모습을 알기 위해서는 민중 속에서 延延히 이어져 오고 재창조되는 諸문화를 살펴보지 않을수 없다。그리하여 그들은 어떠한 의식을 갖고 시대를 이끌어 갔는가를 살펴봄으로써 새롭게 우리의 역사를 형성해 간는 데에 밑거름이 될수 있을 것이다。따라서 本稿에서는 농촌 탈놀이에서 朝鮮後期의 사회적 변동을 거쳐새롭게 변모한 도시 중심의 탈놀이로의 과정을 살펴보아 그 속에 나타난 民衆意識을 찾아보고 또한 내용에 있어서 벗어나지 못한 중세적 한계점을 조사해봄으로써 앞으로 전통예술의 계승에 있어, 그 본질과 연극적 미학을 바탕으로 하여 이를 현실과 연결된새로운 민중예술로서 재창조되는 길에작으나마 보탬이 됐으면 한는바다。

Ⅱ、本論

탈놀이가 굿에서 극으로 이행하고 연극으로서의 발전을 이룬 과정에서 민중생활의 변화와함께 이루어졌고 민중의식의 성장으로 가능했다고 봄으로써 탈놀이의 역사는 민중생활사뿐만 아니라 사회사나 문화사의 일반적 흐름까지 결부되어야 한다고 보겠다。따라서 농촌에서 농민이 공연하는 연극과 도시에서 상인이 후원자 혹은 주도자가 되어 공연되는 연극은 자연히 그성격이 달라지게 마련이다。여기에서도 탈놀이에 대해 논함에있어<농촌탈놀이에 나타난 민중의식>·<그시대적 배경>·<도시탈놀이에 나타난 민중의식>순으로 살펴보겠다。

1、農村탈놀이에 나타난 民衆意識

농촌탈놀이는 농악대가 주동이 되어 거행되는 풍농굿을 통해 시작되었다고 한다。풍농굿은 농민들만 모여 양반에게 억눌려 지내다가 일년에 한번 마음껏 놀고 떠들며 무슨말이든지 할수 있는 기회이다。이러한 기능은 굿에서 극으로 이행되면서 더욱확대되어 양반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는 것이 극의 주내용으로 되었다。양반으로서는 이런 행사를 금지하고 싶지만 농사를 잘되게 하는 행사일뿐만 아니라 농민을누르는데도 한계가 있기때문에 묵인할수 밖에 없다。

그러나 庶民이 양반에 대한 불만을 토로한다고 해도 正面的인 도전보다는 웃음속에 가리어진 반발 즉 兩班을극중에 등장시켜 우스꽝스런 바보로 만드는등 희극적 공격방식을 취하였다。兩班에대한 희극적 공격은 양반광대를 등장시키는 데서 시작된다。커다란 관을쓰고 수염을달고 도포를 거치고 아직 추울때인데도 부채를 훨훨 부치며 거만스러운 거동을하고 나선다。이러한 차림이나 거동은 兩班임을 나타내기위한것인 동시에 兩班의 모순을 폭로하기위한 것이기도 하며 農民만의 행사이고, 農民들끼리만 즐기는 농악놀이에 양반이 나옴은 희극적 不調和를 나타내주기도 한다。

河回別神굿놀이의 마을인 안동 河回부락은 豊山柳氏의 동족부락인데도 굿극이 아주 성하였다。굿-극은 이마을의 하층민들이 하는데 柳씨의 직접적인 지배하에 있으면서도 別神굿놀이를 벌이는 자유를 누렸는데「이 기회에상민의 울적한 심정을 중화시킴 으로써 支配體制를 효용있게 유지하는데 보탬을 삼지 않았을까」하는 의견이 이사실을 설명해 줄수있다。河回別神굿놀이에서는 먼저 4科場에서 각시와 중이 등장한다。

중이 각시와 어울려 음란한 춤을추는것을보고 兩班은 심히 마땅치 않은 표정으로 혀를 찬다。양반은 무엇보다도 禮儀道德을 존중하기에 이를 모르는 중을 경멸하는것은 당연하며 자기 優越性을 재확인한다。그러나 요사스런 춤을추는 각시를보면서 兩班은 스스로의 威嚴을 뒤집어 엎고는 이성에 대한 욕망과 지위적 체면과의 二律的인 感情의 葛藤을 못이기는 표정을 짓는다。결국 예의도덕을 표방하며 威嚴을 차리던 양반이 조금전의 중처럼 되어버린데서 희극적 不調和가 이루어지고 이 부조화는 양반의 모순을 꼬집히 찌른것이며 양반을 비판하는 보다 효과적인 방법이다。이어서 양반과 선비의 다툼이 보여진다。이다툼은 각시때문에 시작되어 몸짓과 춤으로써 女子에대한 상호간의 질투심을 나타내다가 지체다툼으로 넘어간다。

다음대사를 통해 보면

양반=(화를 왈칵 내면서 선비를향하여) 자네가 감히 내앞에서 이럴수가 있는가?

선비=그대가 진정 나한테 이럴수가 있는가?

양반=아니 그렇다면 지체가 나만하단 말인가?

선비=그러면 자네 지체가 나보다 낫단 말인가?

초랭이·이매=(자기 상전의 세도자랑을 뽐냈한다。)

양반=암 낮고 말고。

선비=뭣이 나아 말해봐。

양반=나는 사대부(士大夫)의 자손인데…

선비=뭣이 사대부? 나는 팔대부(八大夫)의 자손일세。

양반=팔대부는 또 뭐냐?

선비=팔대부는 사대부의 갑절이지。

양반=우리 할아버지는 문하시중(門下侍中)이거든。

선비=아 문하시중, 기까짓것。우리할아버지는 바로 문상시대(門上侍大)인데。

양반=문상시대, 그것은 또 뭔가?

선비=문하(門下)보다 문상(門上)이 더높고, 시중(侍中)보다 시대(侍大)가 더크다。

양반=그것 참 별꼴 다보겠네。

선비=지체만 높으면 제일인가?

양반=그러면 또 뭣이단 말인가?

선비=첫째 학식이 있어야지。나는사서삼경(四書三經)을 다 읽었네。

양반=뭣이 사서삼경, 나는 팔서육경(八書六經)을 다 읽었네。

선비=도대체 팔서육경이 어데있으며 대관절 육경은 뭐야?

초랭이=나도 아는 육경!그것도 몰라요。팔만대장경 중의 바래경(經)·봉사안경(眼鏡)·약국의 길경·처녀월경·머슴 쇄경。

이매=그것 맞다 맞어。

양반=이것들도 아는 육경을 소위선비란는 자가 몰라。

◇탈의표정은 무서운듯 하면서도 변하지않는 고착된 표정속에온갖 뜻이 함축되어있다。

양반에게 가장 소중한것은 가문과 학식이다。

따라서 선비와의 싸움에서 문하시중에 대한 문상시대, 사서삼경에대한 팔서육경이란 말들은 가문과 學識 다툼의 비정상적인 양상을 여지없이 폭로하는 것이며 결국 양반이 자랑하는 학식과 자체에대한 노골적인 반감을 보이는것이고 양반의 권위를 뒤집어버리는 것이다。<초랭이>와<이매> 또한 양반과 선비의 지위를 격하시키는 것을 촉진한다。兩班諷刺는 결국 농민이 양반의 지배로부터 벗어나려는 욕구의 반영이다。이러한 욕구는 양반과 농민의 관계가 이루어진 후 계속되었을 것이며 그 극적 표현의 역사또한 짧지 않으리라 생각한다。하지만 농촌에서의 탈놀이는 후의 都市탈놀이에 비하면 아직 저급한 단계였으며朝鮮後期에 이르러 새로 생기지 않았고 사회적 경제적 역사적 기반이 약해衰退一路를 겪어 現今에 이르러서는 足跡마저 거의 찾아 볼 수 없고 다만 河回別神굿놀이의 대본만이 오늘날에전할 뿐이다。

2、朝鮮後期 社會的 變動

(1) 朝鮮後期 身分制度의 動搖

조선시대는 官僚執權的인 봉건사회로서 인적계층 관계가 엄격히 준수되었고 이러한 신분관계에 의해서 경제체제의 지배가 규정되어 왔는데, 후기에 오면서 극렬한 黨爭과 계속되는 전쟁으로 인해 차츰 차츰 봉건적 계급질서는 동요하기 시작하였다。

壬辰亂 이후 黨爭은 激化一路를 걸어 南人·北人, 老論·小論등으로 分裂되어가 敵對勢力에 대한 報復, 王統支持를 위해 權力鬪爭은 계속번졌으며, 이러한 당쟁으로 인한 政治紀綱의 紊亂은 君主·官僚들의 賂賄, 賣職, 奢侈의 弊風을 만연시켰고, 民生에는 그만큼 무관심하여 많은 백성들의 流亡, 病死, 盜賊賤의 범람을 방지하지 못해 사회상태와 經濟體制를 더욱 더 紊亂하게 하는 결과를 가져왔다。한편 임진란때 국가 재정이 고갈과 군량미부족을 보충하려는 의도하에 임시 조치로서 鄕吏, 士族, 胥吏등에게만 納粟을 허락한 納粟授職의 制度가 실시되었는데, 그후 계속 이어져 賤民層에도 이 制度를 적용하매 양민·천민 할것없이 양반의 위계관직을 取得해 가는 자가 늘어나게 되었다。그외에도 納粟免賤, 奴婢從母法, 奴婢貢革罷 등의 방법으로 때로는 良·賤 신분의 농민들이 換父易祖하여 幼學·校生 등을 사칭하거나 말단 관리와의 贈收賄를 통해 戶籍上 양반신분으로 上昇하는 비합리적인 방법으로 양반·평민·천민의 신분계층을 모두 포함하고 있던 농민들 사이에서 융통성있게 階層의 上昇, 下降作用이 이루어졌던 것이다。

身分社會에서 身分職役의 優越은 곧 社會的 優越을 표시하는 것이라서 身分이 卑賤하면 할수록 社會的 優越에의 동경은 강렬한 것인데, 이러한 上昇慾求를 制度로서 받아들인 결과 發生하는 身分制度의 激動은 兩班層의農民統制에 대한 권위를 상실하게 되고 平民과 賤民들도 封建的 支配秩序의모순을 깨닫게 되면서 兩班層의 權威를 부정하게 되었고, 朝鮮後期에 이르러서는 農·工·商을 기반으로 스스로 經濟的 세력을 확장함에 따라 결코 계급적 신분에 의해 經濟力도 지배받는다는 命題를 부정하고 비판하면서 民衆의 사회의식의 성장을 이루게 되었던 것이다。그러나 民衆의 自體的 社會意識이 활발하게 성장하고 있었던것에 반해, 당장 눈앞의 권위만 찾으려는 民衆要求의 긴급성은 개인의 權威主義的 性格을 형성시키기도 했다는것을 인정하고 넘어가야 할 것이다。

(2) 朝鮮後期 都市商業의 發達

일반적으로 都市의 발전은 商工業에서부터 출발한다는 通念에 비추어 볼때, 都市의 發達과 상공업의 발달은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것이다。

西歐 封建社會에 있어서 中世的 都市에서 近代的 都市로 轉換함에 있어 商人·手工業者와 都市政治權力과의 鬪爭을 통해 近代的 都市經濟體制를 형성하게 되는데 우리나라 경우에는 18C末에 들어오면서 商業活動이 다양하게 활발해져 첫째, 주로 政府 및 諸官衙의 用達商으로 發生한 市廛과 거기서 발달된 六矣廛, 그리고 亂廛으로 나타나기도 했지만 漢江을 中心으로 한 京江商人이나 개성의 私商의 私商형태, 또한 인근 주민들이 보통 5日 마다 모여 열리는 장시형태 등 세 가지 方式으로 展開되었다。특히 장시는 점차 도매업, 창고업, 운송업 등 객주와 여각도 나타나 상품과 화폐경제의 발달에 따라 점차 상설시장화되어 정기적 상업에서 지속적 상업으로의 商業都市化되었으며, 市廛商人이나 亂廛商人의 私商들도 독점적 도매법을 써 特權化되어 갔다。여기에 맞추어 朝鮮後期 都市탈놀이의 지역 분포를 보면 아래<表1>과 같다。동래는 東萊府의 소재지이며 대외무역의 중심지였으며 倭國과의 무역을 통해 天下의 물건을 여러해 동안 실어날라 백만 금을 모으는 데까지 이르기도 한 富商大賈의 고을이었다고 朝鮮末期의 모습을 전한다。

밤마리는 낙동강에 위치하고 있으며 낙동강 江運의 중심지였다。밤마리 장은 한달에 여섯번 서는데 「고깃배 소금배 장삿배가 와서 머문다」고 草溪志에는 記錄되어 있으며, 河港 또는 河市로서 큰 고장이었으며 인근 4읍의 산물의 집산지일뿐더러 亂場이 트이게 되면 巨商들이 모여 대광대패에게 비용을 주어 며칠씩 오광대놀이를 놀게 하였다고 했다。

別山臺놀이가 傳承되던 松坡는 서울로 들어가는 길목에 위치하고 있었으며 전국에서 가장큰 열 다섯개의 鄕市 中에 하나였고, 향시의 개념을 넘어 서울의 特權的·獨點的 商業을 위협하는 세력강한 都市였다。

黃州 또한 전국 15개鄕市中 하나였으며 서울서 평양을 거쳐 의주로 가는 서북 대로에 자리잡고 있다。朝鮮末期의 황주 모습은『상업도 번창하여 錦溪의 하류는 鐵和江이니 航運이 또한 편하여 배가 베 짜듯이 왕래한다』고 전했다。

<表1>

이름	지역	분포
①야류(野遊)	경남 낙동강이동	동래(東萊)·수영(水營)·부산진(釜山鎭)등
②오광대(五廣大)	경남 낙동강 이서	밤마리—과거의 초계현(草溪縣), 현재의 합천군 덕곡면(德谷面) 율지리(栗旨里)·신반(新反)—현재의 의령군 부림면(富林面)·가산(駕山)—현재의 사천군(泗川郡) 축동면(杻洞面)·가락(駕洛)—현재의 김해군 가락면(駕洛面)·진주(晋州)·창원(昌原)·고성(固城)·통영(統營)등
③산대(山臺)놀이	서울 근교	녹번(碌磻)·애오개(阿峴)·노량진(鷺梁津)·사직(社稷)골·퇴계원(退溪院)·양주(楊州)—현재의 양주군 주내면(州內面) 유양리(維楊里)송파(松坡)
④탈춤	황해도 일대	황주(黃州)·봉산(鳳山)—원래는 봉산 구읍(舊邑), 1915년경부터는 사리원(沙里院)·재령(載寧)·해주(海州)·강령(康翎)등

이와 같이 都市탈놀이가 公演된 지역은 農村마을과는 확실히 다른 순商業都市가 아니면 교통行政을 겸한 都市들임을 알 수 있다。商人들은 탈놀이를 공연하면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어 교역이 활발해진다는 안목에서 공연비용을 부담하며 개최했을 뿐만아니라, 兩班 승려등 기존세력에 대한 批判的 內容을 풍자와 자학으로 구사해나가는 탈놀이에 호기심을 갖고, 그들스스로 탈놀이에 참여하게 되었으며 그리하여 여유있는 經濟力을 배경으로 화려하고 풍부한 오락적 흥행물로까지 발전했으며, 兩班의 權威에 대한 批判은 成長한 民衆意識을 바탕으로 더욱 날카로와졌다。따라서 도시탈놀이는 以前의 주술적인 機能이 점점 줄어드는 반면 人間과 人間, 人間과 社會의 葛藤을 효과적으로 잘 나타내고 있고, 또한 그들이 표명하는 이념까지 선명하게 구사하고 있어 민중종합예술로서의 역사적 지위를 확립시켰다고 보겠다。

3、朝鮮後期 都市탈놀이에 나타난 民衆意識

우리는 앞에서 農村탈놀이에 나타난 民衆意識과 농촌탈놀이에서 都市탈놀이로 이행함에 있어 그 시대적 배경에 대해 살펴보았는데 이제는 朝鮮後期에 발달된 상업·行政도시를 중심으로 펼쳐진 도시탈놀이를 분석함으로써 거기에 나타난 민중의식을 알아보고, 또한 탈놀이의 中世的 한계점을 밝혀보고자 한다。분석 대상을 민중의식이 가장 잘 반영된 兩班科場으로 한정할때, 살펴보고자 하는 봉산탈춤, 양주별산대, 통영오광대의 등장인물은 아래 <表2>와 같다。

<表2>

이름	과장		등장인물
봉산탈춤	제6과장 양반과장		말뚝이·새님·서방님·도령님·취발이
양주별산대놀이	제7과장 샌님	제1경 의막사령놀이	말뚝이·쇠뚝이·샌님·서방님·도령님
		제2경 포도부장놀이	샌님·소무·포도부장
통영오광대놀이	제2과장 풍자탈		원양반·둘째양반·홍백탈·홍탈·삐뚜르미탈·손님탈·조리중·말뚝이

말뚝이:양반 나오신다아! 양반이라고 하니까 노론(老論)·소론(少論)·호조(戶曹)·병조(兵曹)·옥당(玉堂)을 다 지내고 삼정승(三政丞)·육판서(六判書)를 다 지낸 퇴로재상(退老宰相)으로 계신 양반인 줄 아지 마시요。재잘량이라는 양자에 개다리소반이라는 반자 쓰는 양반 나오신단 말이오。

양반들:야아, 이놈 뭐야아!

말뚝이:아, 이 양반들 어찌 듣는지 모르갔소。노론·소론·호조·병조·옥당을 다 지내고 삼정승·육판서를 다 지내고 퇴로재상으로 계신 이생원네 삼형제분이 나오신다고 그리 하였소。

양반들:(합창)이생원이라네。(굿거리 장단으로 춤을 춘다。도령은 때때로 형들의 면상을 치며 논다。끝까지 그런 행동을 한다。)

말뚝이:쉬이, (반주 그친다。)여보 구경하시는 양반들, 말씀 좀 들어보시오。

(봉산탈춤 제6과장 양반춤)

이것은 봉산탈춤의 서두인데 위엄을 잔뜩부리고 등장하던 양반은 말뚝이의 도전에 권위가 파괴되자, 민감하게 불같은 호령을 하매 이에 말뚝이는 부득이 변명하고 복종하는 형식을 취한다。

이에 兩班은 안심을 하고 춤을 추는데, 老論이나 少論은 어떤 官職이 될 수 없음에도 이를 관직처럼 말하는 말뚝이의 말을 긍정함으로써 오히려 자신들을 敗北로 몰고가며 실질적인 항거는 외면하고 형식적 복종에만 만족함으로써 관객들로부터 더욱 우스꽝스런 꼴이 됨을 면치 못한다。또한 양반이란 칭호가 구별없이 사용됨으로써 班常의 身分制限이 무의미함을 나타내고, 양반들이 알지 못하는 사이 이미 그들의 권위와 위엄은 땅에 떨어지고 만다。이후에 나오는 내용 역시 대체로 兩班의 위엄→말뚝이의 挑戰→兩班의 호령→말뚝이의 변명→兩班의 안심의 순으로 진행되는데 이와같이 반복되는 양반과 말뚝이와의 갈등 묘사를 통해, 양반의 허위를 파괴하고 양반의 語法을 흉내내어 그 뜻을 뒤집는 戱弄(Parody)을 사용하기에 풍자는 더욱 효과적이며 심화되는 것이다。양반과 말뚝이의 갈등은 신분적 구속과 이로부터 해방되고자 하는 욕구의 싸움이라는 점 뿐만 아니라 무기력하고, 비현실적이며 주관적 환상에 매달린 양반과 활동적이고 현실을 정확히 인식하고 진취적인 말뚝이와의 대립으로 봉건적 특권은 철폐되어야 함을 고취하고 있다。

그러나 科場의 끝부분은 앞서 살펴본 주제와는 거리감이 있음을 보여준다。나랏돈을 잘라 먹었다고 취발이를 잡아와서는 다음 대사에서와같이 생원=(노하여큰소리로) 야이놈, 뭐이어째? 말뚝이=샌님, 말씀들으시오。시대(時代)가 금전이면 그만인데 하필 이놈을 잡아다 죽이면 뭐하오。돈이나 몇 백냥 내라고 하야 우리끼리 노나쓰도록하면 샌님도 좋고 나도 든냥이나 벌어 쓰지않겠소>말뚝이는 취발이와 결탁하여 양반과 돈으로 타협하는 것으로 끝맺는데 이부분은 이해하기 쉽지 않다。이는 朝鮮後期 탈놀이가 막강한 經濟力을 지닌 상업도시를 배경으로이루어짐에 시대가 금전이면 그만이라는 표명뿐만 아니라 그당시 商人이 그지방의 行政事務를 보았던 吏屬들과 서로 관계를 맺고 있었음을 능히 짐작할수 있어 吏屬들이 그들의 행위를합리화시킨 부분으로 볼 수 있겠다。따라서 이 내용은 封建的 지배질서를부정하고 封建社會가 지닌 諸矛盾을 비판했던 민중의 발전적 의지와 더불어 封建勢力에서 탈피할 수 없었던 三韓的인 意識構造를 나타내며 이는 그당시 탈놀이가 지닌 한계점으로 지적할 수 있고 앞으로 傳承됨에 있어 再創造되어야 할 점이라 생각한다。

한편, 양주별산대놀이에는 다른 탈놀이의 兩班科長이 말뚝이 중심으로 構成되어있음에 反해 포도부장놀이가 주가되어 있다。이 포도부장놀이는 샌님·소루·포도부장이 登場하여 샌님의첩인 소루를 사이에 두고 샌님과 포도부장의 쟁탈전이 벌어지는데, 他 탈놀이에 비해 양반과 平民과의 싸움이란 것이 特異하며, 劇的 대결에서 주도권을 잡고 發言權을 장악하고 있는 人物이 觀衆의 지지를 받는 것이 보통인데 여기서는 오히려 觀衆의 批難을 받는 샌님이 발언권을 갖고 있어 양반에 대한 비판내용을 더욱 深化시켜 주고 있다。샌님은 젊은 女子를 첩으로 거느리고 있으면서 늘 불안해 하고 變心하지 말고 나만 믿고 살라며 거듭 강조하면서 소무의 마음을 확인하려한다。그러나 패기 넘친 포도부장은 機會만 있으면 소무를 찾아오며이러한 사실을 안 샌님은 소무를 얼르기도 하고 포도부장을 찾아가 점잖게 타이르면서 威嚴을 부린다。그러나 발언권을 갖고 劇中에서 자신에게 유리하게만 말했던 샌님의 僞善的 行爲는 다음과 같은 부분에서 여지없이 暴露되고 완전히 敗北하게된다。샌님은 처음부터 소무를 빼앗길까 불안해 하며 늘 다짐해 두었으나 결국은 낡은것이 물러가고 새로운 것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된다는 必然的인 過程을 否定할수만은 없는 것이다。

그리하여 兩班이라는 權刀을 갖고 포도부장을 두번 씩이나 쫓아보낼 수 있었으나 결국 힘의 대결에서 패배하고 만다。이러한 내용은 낡은 것은 그 自體의 모순과 새로운 것의 攻勢때문에 물러가지 않을 수 없으며, 기존질서를 거부하고 새로운 價値觀을 욕구하는 民衆意識을 잘 나타내 주고 있는 것이다。그러나 이러한 운동은 새로운 것만의 힘으로는 이루어지기 어려운 것인즉 世代交替에 대한 올바른 판단을 가지고 歷史變遷에 역행하지 않도록 기존세력이 물러나 주는 자세가 필요하다。그리하여 비록 늙고 힘이 없어 물러가는 샌님은『젊은 년은 젊은 놈이 좋은 건 정한 이치, 내가 남의 윤기를 끊을 수가 없어, 허니 아무쪼록 젊은 사람 얻어가서 자손창성 부귀공명해서 이 세상을 아주 안락하게 지내라구。퉤―』하며 물러간다。비록 밀려나가야하는 불쾌감을 누를 수 없어『퉤』하고 침을 뱉지만 낡은 것의 모순을 극복하고 새롭게 정상적인 생활이 행복과 보람을 보장하게 되리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샌님은 물러가는 것이다。이러한 劇의 展開는 상당히 발전되고 높은 歷史的 안목을 지닌 民衆의 意識을 표현하고 있으며, 시대의 변화를 인식한 내용이라 봄으로써 朝鮮後期 탈놀이의 내용 가운데 가장발전된 형태라고 하겠다。

統營五廣大놀이의兩班科場은<홍백탈><검정탈><삐뚜루미탈><조리중>등여러 병신 兩班들이 登場하면서 시작된다。<홍백탈>은 한 어미에 홍가·백가 애비가 들이어서 얼굴이 그렇고, <검정탈>은 흑국놈의 아들이라서 흑은 어미의 行實이 부정하여 까맣게 되었으며, <삐뚜루미탈>은 아비가 風氣가 심해 전신이 비틀린 병신이 되었다。<손님탈>은 얼굴이 얽었는데 어미가 행실이 不淨하여 손님 즉 천연두와 관계하여 낳은 자식이라 하며 <조리중>은 보잘 것없는 중의 차림을 하고 있는데 보살의 자식이라고 한다。兩班의 추악한 모습을 이러한 병신들로 과장해 나타냄으로써 양반의 矛盾을 역력히 묘사해주고 있다。그런데 양반과 말뚝이가 상전과 下人의 관계로 登場하나, 내용을 통하여 보면 가짜 양반과 진짜 양반의 관계로 나아감을 알 수 있다。

말뚝이:쉬―이, 날이 뗍떠부리 하야지니 양반놈의 새끼들이 연당못에 무가수 새끼 모이듯이 송글록에 개새끼 모이듯이 그저 주련이 모아서서 말뚝인지 쇠뚝인지 개뚝인지 화삼사월 초파일날 장안만호등 달뜻이과거장중에제 의부애비부르듯이 그저말뚝아!말뚝아!

원양반:쉬―이 저런 죽일놈이 있나。상놈으로서 양반을 모욕하고 살기를 바랄소냐!이놈!

말뚝이:하하하…너희들이 양반이라 자랑을하니 양반근본을 들어보자。

원양반:이놈!네가 상놈으로서 양반근본을 알아 무엇하랴!

말뚝이:하하, 그렇것이로구나, 아니 일러 줄 것이로구나, 내가 너희 고을에 살러온 지가 수십년이라 너희들 근본을 모를소냐!내가 일러줄터이니 자세히 들어라!

(以後말뚝이가 채찍을 휘두르며 양반 하나하나의 근본을꺼어내며 호령한다。)

―中間省略―

원양반:이놈 네가 상놈으로서 양반근본을 훼패하다니 이놈!그러면 너희 근본을 좀 들어보자。

말뚝이:그리하여라!나의 근본을 알려줄터이니 자세히 들어라。사대조, 오대조, 육대조, 칠대조, 팔대조 이상은 물론하고 우리 할아버지께옵서는 벼슬이 정일품이오, 소년에 등과하야 남병사, 북병사 오위본도 대장을 계손으니 그 근본이 어떠하며, 우리 할아버지께옵서는 이십에 등과하여 평양감사, 지정받아 이십사색 마친 후에 황각궁 걸어메고 오위본독 대장을 계셨으니 그 근본이 어떠할까。

이와같이 양반들과 말뚝이 사이에 根本을 따지며 싸움이 이어진다。말뚝이가 진짜 兩班임을 나타내는 표적을 보이자 이제까지 위엄을 부리던 양반들이 죄를 빈다。이내용에 참고가 될 수 있는 것으로 기능보유자 姜連浩씨의 말을 들어 보면 말뚝이가 원래는 양반이었는데 집안이 망하여 남의 집 마부로 들어가 있었던 것이라고 하였다。이 말에 대해선 뚜렷한 신빙성이 없으나 劇의 전개를 살펴보았을 때도 이는 진짜와 가짜 양반들 간의 문제로 밖에 볼수 없다 그리하여 이科場에서 양반과 말뚝이의 관계가 朝鮮후기에 納粟受職 제도에 의해 신분제가 문란했던 당시 納粟受職한 양반이 곧 이 놀이에 등장하는 양반들이며, 몰락해 가던 양반이 말뚝이로 대신해졌음을 추측할 수 있다。그렇다면 이는단지 신진양반과 몰락양반의 대립의 묘사일 뿐 封建社會의 낡고 모순에 찬 계층으로서의 양반과, 억눌린 民衆의대변인으로서의 말뚝이가 등장하여 封建的官僚體制를 비판하는 내용이 될수 없다는 한계점을 지니고 있다。그러므로 양반 諷刺의 내용이 아무리 적나라하더라도 그것이 봉건사회 자체에대한 비판이 아니요, 단순히 양반을 詐稱하는 일부에 대한 비판일 뿐이며, 말뚝이가 자기는 진짜 양반임을 내세움으로써 오히려 양반계급사회를 더욱 옹호하는 내용으로 그치게 되는것이다。

앞서 연구한 분들은 통영오광대놀이의 풍자탈과장 내용이 양반에 대한 비판이 강하면서도 직접적이라 지적한바 있는데 이는 이科場을 전체적으로 살피지 않았던 착오에서 나온 오해이며 근본적으로 封建社會의 身分制度下 양반에 대하여 하등의 批判的 내용이될 수 없다는 생각이다。또한 구성에 있어서도 戱劇에 있어서戱劇的 끝맺음은 갈등 자체로서 끝나는 것이며 아무런 歸結없이 어느 한 지점에서 劇이 끝남으로써 戱劇的 효과를높이는 것으로 평가됨을 생각할 때 말뚝이가 양반의 잘못을 용서해 주고 劇안에서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끝맺음은오히려 극적 意味마저 저하시키고있는것으로보겠다。

Ⅲ、結論

以上의 논의에서 탈놀이는 農事가 잘되게 하는 굿에서 유래하여 農民과 兩班의 갈등을 적절히 표현한 農村탈놀이로 오랜 歷史를 가지다가, 조선後期의 封建社會 身分制度의 격동과 상업도시의 成立을 바탕으로 이미 그支配力을 상실해가는 양반官僚에 대한 批判과 근대사로 向한 意志가 강렬해졌는데 이것을 반영한 탈놀이는 反封建的藝術로서 以前의 농촌 탈놀이를 變貌·再創造하여 획기적인 發展을 이룩하여 民俗劇으로 定立하게 되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형성, 발전된탈놀이로서 그 안에 나타난 主題意識을 정리해 보면,

첫째 具體的 現實속에 근거하여 그것이 지니는 모순과 問題點을 날카롭게 지적하는 批判意識을 들수 있으며

둘째 그것을 바탕으로 民衆共同體意識이라는 民族主體性을, 확립시켰으며,

셋째 矛盾된 旣存秩序를 거부함에있어 한걸음 더 나아가 새로운 가치관 형성의 방향을 제시하는 善意志를 들수 있겠다。

하지만, 탈놀이가 형성된 시기의 時代的 限界性을 면치 못함도 있어 그들 스스로가 封建的 權威體가 되고자 하는 權威主義的 意識도 나타나고 있다。따라서 앞으로 탈놀이 계승 문제에 있어 보다 綿密한 자세로서의 硏究가 필요하겠다。

오늘의 시점에서 볼 때 傳統의 繼承이란, 그 현상을 유지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삶의 조건에 맞게 改善하고 오늘의 생산담당층의 삶을 위해 方向 定立을 해야 하는 것이다。이런 점에서 탈놀이의 創造的繼承은 탈놀이의 당대적 기능을 오늘에 옮겨와 현실화시키고 그 表現上의 獨創性을 계발해 냄으로써 우선 우선 民衆藝術로서의 역사적 지속성을 확보하는데 있다고 보겠다。하지만 그 본래의 기능이 삶의 자체에 저해되고 위협이 되는 행위가 되어서는 아니되며 民衆의 演戱로서 共同體意識을 다시금 확보하고 이를 바탕으로 해서 공동적인 현실인식을 통해 인간관계의 새로운 秩序形成에도 나아가는 社會的 機能을 보다 현실화 시키는 것이야말로 가장 바람직한 길이라 하겠다。그리하여 個人的이고 폐쇄적인 부류의 것으로 나아가지 않고 보다 폭넓은 民衆의 基盤위에서 民衆 스스로의 藝術로서 民衆的 文化를 民衆 自身이 누리는 포괄적인 民衆指向性으로 나아갈 때 탈춤의 創造的 繼承問題는 정상적인 위치에 오를 것이다。

당선소감

어젠지 오늘따라 책상앞에 걸려있던 탈박이 유난스레 비실비실 쪼개더라니…。먼저 발등에 불똥이 떨어져야만 뭔 일을 시작하는 한심한 나의 先天的 氣質에 남 몰래 아부하고 싶다。제깐엔 맹한 마음에 쓰더 쓴 커피를 들이키며 연 이틀 밤을 수작떨어, 한 번 읽어 볼 겨를도 없이 겨우 마감 5분전에 택시를 들이대었던 색 바랜 종이 쪽지가 비행기 탈 줄이야…。이것은 틀림없이 運이었을 꺼다。아니면 허공에 떠도는 투명인간 말뚝이가 계획적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조작했을지도…。아뭏튼 뭔지 몰라도기쁘다 (東大가 대학야구우승했을 때보다는 십분의일정도)

오늘저녁에는 친구 말뚝이와 막걸리 한 잔이라도 들이켜야 하겠다。

그동안 도움 말을 많이 주신 창식兄을 비롯하여 여러 분께 감사드리며, 또한 이같은 廣場을 열어 주신 신문사측에도 감사의 뜻을 표하는 바이다。

鹿野苑

「不平」

▲모든 불만이나 불평은 不調和에서 비롯된다。무릇, 이 세상에 存在하는 모든 것은 각양각색이므로 자연히 충돌이 생기게 마련인 것이다。특히 人間의 경우에는 실제로 自身과 흡사한 것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시하면서도 모든 사람들이 자신과 생각이나 사상이 같아지기를 기대하고 실제로 자신과 다른생각을갖고 있는 사람에게는 자신의 생각을 강요하기도 한다。이른바, 劃一을 원하고있는 것이다。어느모로 보나 전혀 相異한것이 비슷해지는 것도 아닌완전히 같아지기란 不可能한 것이다。▲幾何學의기초단계에도 나오듯이 두 도형의 닮음꼴에 대한 조건은 합동조건보다는 그 조항이 적고 덜 까다로움을 알 수 있다。어쨌든 異形의 도형이 같아지는데도 이러한 조건이 제기되며 이 조건을 충분시키기 위해부수적인 것이 필요한·것이다。실제로 劃一은 無意味한 것이다。나같은 형태의 실체는 이 세상에 나하나면 족하기 때문이다。똑같은 복제인간을 만들어내기 보다는 두사람의 장단점을 인정하고 보완하여제3의 새로운 형태를 만들어 내는것이 바람직하며, 그러한 작업이 곧 사랑이 아닌가 한다。哲學의 한분야인 美學에서도 사랑이 內在된 調和를 바탕으로하고 있다。調和만큼 아름답고 自然스러운 것은 없는 것이다。▲中唐의 大文豪이자 唐宋八大家의 선두로 꼽히는 韓退之(愈)가 그의 文章 벗으로 가까이 지내던 孟東野의 不平을 들어 주기 위해 지은 序頌「送孟東野序」에서 그는 다음과 같이 말을 하고 있다。『세상만물은 무엇인가 평안함을 얻지 못하면 우는 것이다。草木은 본래 소리가 없는 것을 바람이 흔들어 주어서 비로소 소리내어 울고―中略―또, 쇠와 돌도 마찬가지, 가만히 놓아두면 언제까지고 고요하여 소리가없는것을 두드려 소리내어 울게하는 것이다。사람이라고 어찌 草木·물·金石과다를것이 있겠는가!―中略―사람이 슬프게소리내어 우는것은 가슴속에 서린 회포가 복받쳐 그것이 슬픈소리로서 나타난 것이다。결국 소리되어 나는 모든것은 무엇인가 불편것이 있는 것이다』라고 소리에대한 변명으로 그럴듯한 不平을 말하고 있다。▲人類歷史는 平을위해 오늘날까지 이끌어 왔는지는 모른다。平을 위해 不平이 동원되고 이 不平을 징계하기위한 제3의 불평이 생겨나고, 이 제3의 不平은 平행세를 하다가 진정한 平에 의해 축출되고, 그러면서 지구는 늙어가는 것이다。지난날 4月에 울려퍼진 함성은 不平에서 비롯된 平의 외침이었다。이 平을 외면하는 새로운 不平에 대한 외침은 끊임없이 준비되고 있는 것이다。<鎬>

民族統一問題

한다。그러나 해를 거듭할수록 더욱 빛을 발해야할 정신이 점점 퇴조를 보이는……◎
것이 아쉬워 本社에서는 4·19 23돌 맞이 현상논문을 실시 여기에 현상논문에……◎
입상한 두편의 글을싣는다。 <편집자註>……◎
……◎

4·19紀念학생 논문 현상모집 佳作

四大强國과 한반도 統一의 상관관계

統一 해결하는방법, 힘의優位에 서는길뿐

個人主義와 利己主義, 統一 어렵게하는요인

소련·중공과 非政治的 접근가능성 考慮되어야

당선소감

김덕용
<경상대·경영학과>

별주부전에 나오는 토선생이 용왕앞에서 曰 肝을 陸地에 두고 왔다고 했던가。반백의 원고지를 메꾸어 가는동안 精神은 딴곳에 저당잡히고 몽롱한 상태에서 손만이 타이프 라이터마냥 自動的으로 움직이는 精神과 肉體가 二分되는 듯한 全身의 나른함을 맛보았는데 이제 또 受賞所感을 쓰라고 하니 등줄기엔 후질근 땀부터 난다。시작하는줄 모르고 시작해서 끝내는줄 모르고 끝냈던 미비한 논문이 이런 영광을 차지하고 보니 나 자신이 부끄럽기도 하고 다른 學兄들께 미안한감 없지않다。오히려 이번 수상을 나에게 한걸음 전진을 요구하는 격려의 채찍으로 받아들이고 싶은 심정이다。끝으로 나에게 용기를 넣어준 이진수兄 서한석兄께 깊은 감사를 표하며 저의 부족하고 여린 글을 選해주신 여러분들께 송구스런 마음과 동시에 깊은 감사의말씀 드립니다。

I、序論

과거에나 現在나 한번도 통일문제는 우리국민에게 있어서 무엇보다도 重要한 問題가 아닐 수 없다。그것은 우리 韓國民이 단일민족이고 民族文化계승과 창달을 위해서도 統一은 成立되어야만 하기 때문이다。또한 分斷된지 30여년이 지난 지금 국민들자신도 통일에 대한 意志와 當爲性은 인정하면서도 점차 통일문제에 관한한 悲觀的인 면이 적지않다。그러면 한반도의 분단은 언제 어떻게 이루어졌나 그것은 1945년으로 소급할 수 있다。1945년 한반도는 美國을 주축으로 한 연합세력에 의하여 36년간의 日帝軍國主義에서 해방되었다。

그러나 해방의 기쁨도 잠시 한반도는 당시의 초강대국 미·소에 의해서 분할 점령당하면서 이념의 대립장소로서 변모해갔다。제2차대전 동맹국이면서 상대적인 이념을 가진 두나라는 군사적 요충지인 한반도에서의 세력팽창을 위해서 전승국임을 핑계로 패전국인 일본군의 무장을 해제한다는 미명아래 소위 38도선이란는 것을긋고 그 이북은 소련군이 그 이남은 미군이 주둔하게 된것이다。이때부터 한반도는 소련군 주둔하의 북쪽은 공산주의로 변하여갔고 미군 주둔하의 남쪽은 민주주의의 길을 걷게되었다。그 결과 공산주의와 민주주의라는 두 이데올로기의 대립은 한반도의 양단을 더욱 고착시켜갔다。또 1950년에는 소련군 주둔하에서 共産主義體制를 확립한 북한 공산정권은 몇년사이에 전쟁준비를 모두 끝내고 남하침공하여 왔다。우리 민족은 해방직후 국토양단 이래 또 한번 민족상잔의 비극을 맛보게 되었던 것이다。

이 전란으로 수많은 민족의 희생을 감수하면서 얻은것이 임시휴전상태 其實 휴전이라는 것도 당시 우리국군으로서는 바라지도 않았던 것이었다。단지 한반도에서의 세력팽창을 위하여 서로 鬪爭하던 미·소 두국가가 전쟁에 지쳐 서로의 調整이라할 임시휴전이라는 허울좋은 戰爭中止策이 마련된 것이었다。그러고보면 우리민족은 미국과 소련이라는 거대한 두 이데올로기 대립의 祭壇에 祭物로 바쳐진 격이라는 것은 명약관화 하게된다。그후 30여년이 지난 지금도 한반도 통일의 기색은 전혀 보이지 않고 이데올로기의 대립은 날로 深化되어 가고있다。게다가 김일성 김정일로 이어지는 세습체제가 북한의 주민들을 억압하고 民族史를 날조하는 현상황에서는 이데올로기의 대립이 極度에 달했다고 볼 수 있겠다。

또한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정세도 나날이 변모해가고 있다。2차대전 직후 초강대국인 미소 두국가를 중심으로 유지되었던 이데올로기의 대립은 新興勢力인 중공과 2차대전후 급성장을 이룬 일본이 합류함으로서 소위 四極化시대로 접어들게 되었다。주변정세가 양극화 시대에서 四極化 시대로 발전, 변화하면서 한반도의 통일 문제는 거기에 병립하여 전보다 한층 심각하고 복잡한 국면으로 새로이 접어들게 되었다。즉 주변4대강국이 서로 자국의 이익을 위하여 실리주의를 추구함에 따라 한반도의 문제는 그들로부터 度外視되거나 적어도 전보다는 관심의 도가 낮아질수 있고 그들 4대 강국과 한반도의 역학관계가 전혀 예상밖으로 복잡하게 얽혀있음을 뜻한다。

더구나 새롭게 발전되어가고 있는주변정세에도 불구하고 김일성 김정일로 이어지는 세습체제는 자체내의 모순과 주민들의 보이지 않는 반발로 힘의밖으로의 팽창이 요구되고 있고 앞으로 몇년후의 86아시안 게임과 88올림픽대회 IPU 국제의원 총회의 한국으로 결정 되면서 우리의 경제적 지위는 세계적으로 상승하고 있는데 반하여 그만큼 북한의 경제적인 체모가 실추되고 있는때 가일층 북한의 남침가능성이 짙어지고 있는것은 기정사실이다。이러한 현상황에서 한반도 통일문제란 대단히 어렵고 애매모호한 것이 아닐수 없다。

그럼 한반도의 통일은 영원히 不可能으로 끝날것이냐? 아니면 可能할것이냐? 하는것이 우리국민의 관심의 대상이 될은 말할필요도 없을것이다。전언했듯이 한반도를 중심으로한 주변정세가 四極化 時代로 내딛으면서 자국의 실리 추구를 목적으로 삼는 때 우리국민은 한반도 통일의 문제를 정확히 인식하고 그 가능적인 面을 집중 추구함으로서 우리민족통일을 성취시키도록 努力하는 자세가 필요한 때인것이다。따라서 여기에서는 周邊强大國의 實利追求가 한반도 통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論題를 가지고 그 가능성과 불가론적인 側面을 중심으로 통일문제를 다루려한다。

II、本論

1、兩極化時代에서 多極化時代로의 變遷

우리는 흔히 요즈음 國際政勢를 轉換時代니 激動期니 하는말로 表現하는것을 자주 본다。정치적인 道義性보다는 자국의 利益을 위해서는 어느정도의 도의성 무시는 예사로 생각하는 현국제정치를 간접적으로 시사해주는 말이기도 하다。특히 한반도를 둘러싼 4強國의 정치적 대립은 과거에 비해 현저하리만치 複雜多難하게 전개되어가고 있는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그럼 한반도 주위의 강대국들간의 역학적 관계가 어떻게 변천되어 왔나하는것을 명백히 주지해볼 필요가 있다하겠다。회고해볼때 제2차대전 이후로부터 한국동란 까지는 미 소를 주축으로하는 두 초강대국의 이념대립에서 오는 양극화시대니 또는 냉전체제로 불리어 왔다。당시는 한마디로 말해서 같은 理念과 制度를 가진 세력들이 일방이 되고 타방이 되는 양극적 균형구조이었다。①그로인하여 당시의 한반도 문제는 그런대로 균형을 가질 수가 있었고 전쟁의 終決상태가 아닌 잠시 중단상태인 휴전이 28년이란 전세계 역사상 가장 긴시간을 유지할 수가 있었다。그러나 1950년대말부터 이념을 기준으로 協助하고 동조하던 양극체제는 서서히 막을내리고 다극화내지는 四極化 시대로 그 기수를 돌리기 시작하면서 다극화 시대에 접하여 화해 데탕트가 유행처럼 70년대 후반을 소용돌이 치게 하였다。마치 공존의 세계라는 인상을 주기도 하였다。사실 70년대 후반부터 미소 양극체제에서 美·日·中·蘇 四極體制로 국제간의 힘의 수는 광역화된것도 사실이며 세력균형의 변화를 몰고 온것도 사실이다。

70년대는 국제정세에 여파가 아주 심했던 연대라 할 수 있으니 그것은 중동전쟁(1968)이후 중동의 새로운 질서모색 즉 PLO의 지위문제가 臺頭이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으며 인도차이나 반도전쟁 인도 파키스탄 전쟁의 産物로 방글라데시의 獨立 최근 소련의 아프카니스탄 침공 이란의 美國 人質문제 인도차이나반도의 不安속에 이란 이라크의 전쟁 또 分斷國側面에서 서독과 동독의 최초의 화해성립 월남의 共産化 자유중국과 中共의 어쩔수 없는 他意에 의한 정리 이젠 한반도만이 유일하게 해결되지 못한 분단상태로 現存하는 상황이다。게다가 70년대에서 80년대로 넘어오면서 周邊勢力均衡構造는 根本的인 變化를 일으키고 있다。우선 눈에 띄는것이 中共과 蘇聯의 관계변화이다。1950년 2월부터 79년까지 30년간의 상호원조 및 동맹조약을 파기한 가운데 서로가 제1의 적으로 삼는 관계로 바뀌었고 이 여파에 휩쓸려 중공과 월맹과 캄보디아 간에 군사적 衝突이 發生하는 事態가 발생했다。한편 미국과 중공 日本은 서로 體制와 理念을 달리하면서 관계정상화 내지는 友好協力 관계를 구축하려고 努力하고 있다。1978년 8월12일 中日友好協力조약 체결과 1979년 1월1일부터 시도된 美中간의 友好協力관계의 형성은 70년대 초만하더라도 막연히 예측되었던 사실인데 작금에 이르러서는 그것이 現實化 되어가고 있다。또 이러한 美·日·中의 三角관계가 내적으로 소련의 대외팽창주의에 대처하여 형성되었다는 사실을 고려한다면 美·日·中의 협력관계는 본질적으로 반소동맹적 성격을 갖는다고 할수 있을것이다。

이러한 일련의 협력관계 구축이 종전의 양극체제에서 비교적 안정된 한반도의 주변정세를 조성해 주었지만 지금의 美·日·中의 3國협력관계는 本質的으로 소련을 일방으로하고 미·중·일이 타방이 되는 3:1의 체제로변모하는 것이다。

그사이에 한반도의 남북한이 끼이게 되어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정세의 극도로 불안정한 상태에서 명암이 교차되고 있는 실정이다。여기에 한층 더 국제정세의 가변성에 이슈로 대두되고 있는것이 經濟的 문제이다。어떠한 형태로든 현재의 강대국간의 세력균형이 유지되고 있는 가운데 後進國들은 나름대로의 遠近을 초월하여 협력내지 협조체제를 강구하여 자국의 정치적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데 온갖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작금에 이르러 시대착오와 오산에 의한 局地戰의 위험이 한층 증가되고 있다。

그러면서 80년대 말경부터는 전세계 인류가 핵과 에너지 식량·물·공기·인구증가 문제 때문에 심각한 고민을하지 않으면 안되는 현상이 직면해 올것으로 보아 문제는 또다른 문제를일으키게 되니 복잡다난한 국제정세 속에서 한국의 입장은 자못 염려스러운 점도 적지않다。또한 국제정세의 이러한 급변은 한반도에서의 전쟁위협성을 배제할수 없는 상황이라 할수있다。

2、각국의 實利主義追求가 한반도에 미치는영향

앞에서 본앗듯이 종전의 한반도의 주변세력간의 均衡構造는 源泉的으로 이데올로기의 명분을 같이하는 세력간의 힘의 평형에의해 근30년 간이나 소강상태로 지속되어 온 것은 사실이다。그러나 80년대에 있어서는 주변국가간의 세력균형이 이데올로기를 같이하는 냉전 또는 양극의 세력균형 보다는 자국의 이익 즉 자국의 안전과 발전에 그 존속의 명분을 두고있는 것이다。다시말하면 민족주의 내지는 자국주의 명분이 이데올로기 명분을 대치하고있는 것이다。이렇게 주변세력간의 同盟理論이 실리주의로 전환되고 보면 주변국가간의 이해의 대립이 자연히 군사적인 충돌을 유발하지 않을수가 없게된다。

최근에 발생된 월맹의 캄보디아 침공 중공의 월맹침공 中蘇간에 고조되는 군사긴장은 이를 직접적으로 웅변하는 것이며 소련의 아프카니스탄 침공은 약육강식의 국제관계를 열심히 證明하는것이다。또한 美中日이 소련에대한 대소연합전선의 견실화를 막기위하여 소련은 대중 대일 압력을 군사경제의 양면으로 구사할수 가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한반도를 이용한 美中日 삼각협력체제를 와해할수도 있을것이다。이런 주변세력간의 급변이 주변세력간의 군사적인 균형구조를 극도로 불안정한 사태로 유발하였고 中共과 蘇聯이 경제적 낙후성을 면하기위하여 경제발전의 현대화를 추진시키는 결과를 낳았다。이렇게 중소양국이 자체내 체제개혁을 기하는 탈이데올로기적 실리추구에 몰두하고있다。또한 한반도에 있어서 이해관계에 놓여있다고 자부하는 강대국 즉 美日中蘇는 우리들의 국토통일에 대하여 절대적인 행사권을 쥐고 있는듯한 느낌을 받는다。그것은 북한의 비협조적 태도의 배후에 中蘇가 있다는 사실로 알수가 있으며 한편으로서 전후 미국의 日本중심으로변한 동아정책에서도 문제가 된다。더구나 중공의 共産化에 뒤이어 미국의 한반도에대한 인식은 日本의 안보를위한 엄호지역으로 생각하게 되었던 것이다。

따라서 美國자신의 이익은 틀른 현상유지정책으로 나타나게되었으며 그결과 한국통일에 관해서는 비교적 무관한 태도로 일변하고 있는것이다。일본의 경우에 있어서도 급변하는 국제정세속에 신축성있는 적응을위한 실리외교에 주력하는것인즉 한반도에대한 태도 역시 현실주의적 기회주의로 나타나고 있다。따라서 미국의 日本중심정책은 한민족의 어떠한 영구적인 이익이나 또는 깊은 의미의 역사적요청에 응한다기보다는 일본의 무역경제와 안보위한 한국의 숙명적 타율적결정의 가능성을 다분히 지니고있다는것을 看過해서는안된다。이러한 미국의 일본 中心的인政策은 1969년 미국의 닉슨대통령과 사또일본수상간에 발표된 공동 성명인 「한국의 안전이 일본에 긴요하다」는말에 충분히 담겨져있다고 본다。또한 여기에 美國과 北韓의 접근가능성을 빼놓을수없는것이 1974년 최고인민회의 제5차대회에서 행한 허담의 제의와 1975년 키신저 미국무장관의 유엔총회연설, 동년 기자회견 1977년5월23일 카터행정부의 국무성발표 1978년 카터 티토정상회담에서 그것이 제의되었다는 점이다。다만 양국이 제의하는 조건이 다를뿐이지 궁극적에가서는 美北의 관계는 好轉될것으로 본다。

그것은 쌍방이 조건으로 내걸고 있는것들중 일부는 現實로 나타나고있고 지금 수준에서 불가능한 민간수준의 교역허용 수출금지 품목의 완화내지 해제 정정부고위관리 비밀접촉 등 경제 문화 다방면의 교류 협력증진이 자국의 실리에 영향을 준다면은 美北韓 관계는 우호협력적인 방향으로 개선되지 않는다고 보장할 수 없기 때문이다。이러한 각국의 실리<주의>적인 체제로의 변화는 한반도에 적지않은 影響을 미칠 것이다。우선 안보적인 측면에서 고찰해보면 한반도의 정치지리학적 특수성으로 보아 강대국간의 軍事的 衝突에 휩쓸려 한반도내의 紛爭이 야기될 수 있으며 각국의 실리추구로 말미암아 형성된 美中日의 대소연합전선의 대응책으로 蘇聯은 그 미·중·일의 연합전선 봉쇄책에 제1차적 관심을 쏟게됨으로 한반도의 전략가치가 은연중 2차적 관심권으로 밀려나게 됨에따라 소련은 한반도를 美中日 대소봉쇄망 형성의 약한 고리로 간주하여 직접내지는 간접적으로 군사력 발동의 대상으로 보는경향이 두드러진다。만약 중소관계가 惡化될 경우 양국의 對北韓경쟁적 지원이 고조될것이고 이럴때 中共의 지원은 미일등과의 관계로 다소 制限을 받겠지만 역으로 소련의 군사적 지원은 그만큼 확대될 것이다。

또 中蘇간의 무력충돌이 다소격화될시 美日등이 난처한 입장에 빠져있는 틈을 이용하여 북한이 대남공세를 단독적으로 감행할 가능성도 배제할수 없는 것이다。東北亞에서 美蘇간의 軍事衝突이 일어나는 경우 대개가 그들간의 직접충돌 보다는 대리전쟁의 형태가 되리라는 것은 중동에 있어서의 이란 이라크 전쟁과 이미 共産化된 월남전에서 보아 충분히 알수있다。하지만 中蘇간의 군사충돌이 일어나는 경우는 1차적으로 북한이 전쟁에 휘말리게 되고 거의 동시에 남한이 군사충돌에 휘말리게 된다 현재 백두산 일대가 中蘇紛爭에 있어서 작전지역에 포함된것을 보아도 이같은 가능성은 정당한 논리가 성립한것이다。둘째로 經濟的인 측면에서 考察해보면 한국 미국 일본의 삼자관계는 정치적 안보적인 面에서는 비교적 초국가적 협력관계를 유지해 왔으나 경제적인 면에서는 철저한 자국의 실이에 역점을 두는 거래원칙 경쟁원칙이 지배하는 관계였다。美日간의 무역전쟁 한일간의 무역역조시정협상 韓美간의 무역규제완화협상은 60년대 중반이래 계속되어온 삼자간의 自國主義的 經濟關係를 여실히 증명하는 사예이다。그러나 이러한 관계는 비단 자유기업제도와 사유재산제를 인정하는 자유주의 국가에만 한정된것은 아니었다。북한 中共 蘇聯간에도 서로 자국의 실리역점에서 거래원칙이 철저히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주변정세의 근본적인 실리주의로의 變化가 있기 전에는 양극체제 곧 이념적인 구분을한가운데 양자간의 참다운 交易은 없었다。그러나 80년대에 들어서면서 理念을 초월한다국적인 실리주의의 체제가 대두함에따라 다방면의 거래원칙이 적용되기에 이르렀다。中共은 美日西歐로부터 자본과 기술을 도입하여 자국내의 현대화를 도피하는 한편 소련도 西歐의 자본을 도입하고 미국 일본에서 차관을 도입, 시베리아 개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고 북한도 서구로부터 자본을 도입하여 1978년부터 1984년까지 시행될 소위 제2차 7개년 계획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이 결과 경제발전이라는 각도에서 한반도를 포함한 주변국관계를 조명하면 한마디로 경제발전을 위한 競爭關係로 投影되고있다。

이렇게 이념을 초월하여 자국의 실리추구를 위하여 경제적인 協力 내지는 協助關係를 구축하는 현 주변정세에 대처하는 우리 한국으로서는 상당한 먹구름이 끼고 있다。그것은 막대한 지하자원과 인력자원을 保有하고 있는 中共이 국내시장을 배경으로 대외수출경쟁에 뛰어든다면 우리에게는 치명적이 될 수 밖에 없다。또한 蘇聯의 시베리아 개발이 적극 추진되어 대단위 수출공단을 세우고 동아시아의 교역권에 참가한다면 이경우 역시 한국에 유리할 것은 없다。

더구나 자원부족과 인구과다의 생태적인 불합리성과 국토분단에서 야기되는 군사적 분쟁의 가능성까지 안은한국으로서는 자국의 실리를 위해 타국의 이익을 도외시 하는 昨今의 주변세력에 대해 대단히 민감한것은 당연한 일이고 중공과 소련의 경제적인 대외진출로 인하여 상당한 영향을 받을것으로 예상된다。

◇통일을 이룩하는길은 힘의 우위에 서는 길뿐이다。

3、四大强國과 한반도 統一의 關係

한반도에 있어서의 민족통일문제는 어제오늘 거론되어 온것이 아니라 過去에서부터 現在까지 지속적으로 문제시되어왔다。이미 한반도의 통일문제는 周邊四强大國의 力學關係에 적지 않은 영향을 받고 있음을 다방면으로 구명해 보았다。또 주변정세가 변할때마다 한반도통일문제는 그에대한 대처방안으로서 항상 평형을 유지 하면서 變化發展해 온것은 이미 다알고 있는 바다。특히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부터 각국이 이데올로기 보다는 자국의 현실적 利益에 1차적인 관심을 둠으로서 한국의 통일문제는 낙관만 할수도 그렇다고 비관만할 수도 없는 명암이 교차되는 보다 심각한 局面으로 접어들었다。따라서 그에대한 대처 내지는 대안으로 실리주의로변하는 현국제정세에 상응하여 통일의 비전을 다시한번 심사고려해볼만한 가치가 있다고 본다。

ㄱ) 한반도 統一의 可能論的인 側面

한반도통일의 가능성을 國際情勢의 여파속에서 찾아보면 한반도 통일문제가 현국제정세와 어떻게 밀접한 관계를형성하고 있는지 쉽게 간파할수가있다。해를 거듭할 수록 국제정세는 매우밝은 전망으로 展開되어 나가고 있다。

세계정세의 發展的變化가 한국통일의 국제적 여건을 점차 밝은방향으로 이끌고 있음을 우리는 충분히 짐작할수있다。즉 유엔이 세계사회 이상을 향하여 장차 발전적으로 개편될경우 한국통일은 유엔을 통해서도 실현될수가 있으며 그렇지 못한경우 80년대 이후에는 한국통일의 이해국가인 美中蘇日간의 역학적 관계조정과 국제여론을통한 압력으로도 실현될 수있을것이다。

一例로서 미소간의 협력관계는 그들의 核전이나 경제적 파탄을 각오하지 않는한 계속호전될것이며 美 中共 日本 中共간의 우호관계는 자유진영에불리하지 않는한 계속 진전될것으로 보인다。특히 美中日로 형성되는 대소연합전선에 자극되어 소련은 중공의서방접근및 북괴의 중공 접근을 막기위해 극동지역의 자유우방에 추파를 던지거나 적어도 북괴의 오늘날과 같은 중공일변도의 정책에 쐐기를 박기위하여 음성적으로든 양성적으로든 북괴를 개편 전복코자 의도할 가능성도짙다。

또한 중공이 美國 日本등 자유주의 국가와의 交流를 통하여 북괴와의 反日共同戰線構築에 점차 무성의한 태도를 노정시킬경우 북괴는 소련의 경원과 中共의 외면속에서 한국이 민족주의와 세계주의에 충실을 기하는한 고립무원의 상태로 떨어지게 될수도 있다는 논절도 생각할 수 있다。다음으로 북한내부적인 側面에서 보면 지금 북한은 한계 상황에 이르렀다는 것을 묵과할수가 없다 국제정세가 현저히 세계주의적으로 변하는데 비해 김일성 김정일로 이어지는 世襲體制가 反세계주의적 즉 폐쇄주의적인 정치노선을 택함으로서 밖으로부터의 고립에 빠진북한 주민들 사이에서 반정부 시위내지는 크고작은 폭동이 일어날수 있다는 것을 배제할수가 없다。최근의 청진사태와 신의주사태가 그예를 보여준 한 단면이라 할 수 있다。또한 대외적 수출경쟁의 난관을 극복하고 수출신장을 기한 한국의 고도성장(81년7·2%)에 비해 북한은 심한 경제적 不均衡상태에 놓여 앞으로 몇년더 이대로의 경제상태가 지속된다면 근본적인 경제구조 혁신의 능력을 갖추지 못한 북한으로서는 자체내의 경제난관에 굴복하고 스스로 한국의 원내에 들어올 가능성도 높다고 본다。

따라서 통일실현의 국제적 여건이 80년대 유고와 알바니아의 수정노선, 최근 폴란드의 파업, 소련의 패권주의를 도모하면서 적극적인 수정주의 노선채택 중공의 전쟁불가피론의 수정 회피론으로의 전환등 공산진영의 자유화에 따른 양대진영의 同質化시대로 발전하고 국내적 여건이 80년대에는 한국의 세계적 경제지위 상승에 대해 상대적으로 실추되어 가고 있는 북괴의 자체내부에서 모순이 생기고 극도의 한계점에 봉착할것으로 보아 90년대의 사회가 평준화 시대로 發展하는한 統一의 可能性은 점점 밝아진다고 전망할 수 있다。

ㄴ) 한반도 統一의 不可論的인 側面

우선 國際政勢의 세력균형적인 면에서 보면 한반도 통일이 군사적으로나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혁신적인 이슈로 국제정세에 새롭게 등장할것으로보아 한반도 내에서의 勢力均衡을 원하는 美·日·中·蘇 4강대국이 한반도에 있어서의 현상유지를 원한다는 점이다。즉 한반도가 통일될경우 통일한국의 성장은 가속도로 인하여 몇년내에 美·蘇·中·日과 어깨를 맞댈수있는 지위까지 상승할수 있는 잠재력이 있으므로 한반도에 있어서 勢力均衡을 바라는 四强國이 한반도 통일을 주시하고만 있지는 않을것이다。

특히 일본은 한국과 가장 근거리에 위치한 나라로서 경제적 문화 사회적 적대감이 상충하고 있어 자국의 현실적 이익을 추구하는 일본으로서는 한국의 통일을 방관만 하고 있지는 않은 것이다。그리고 蘇聯도 과거로부터 내려오는 세계적화 야욕내지는 남하정책의 포기라는 국면까지 이르게되고 또한 한반도가 통일될 경우 당연히 자유주의 국가로 통일될 것이므로 극동지역에 있어서의 소련의 발판을 상실하는 것이된다。따라서 극동에 있어서의 세력팽창을 위한 근원요새인 한반도를 그냥 방치해 두지는 않으리라는 점을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국내현실적인 측면에서 보면 아직도 통일실현을 어렵게 만드는 제반 요소들을 많이 쌓어안고 있다는 점이다。그요인의 대부분의 것이 정신생활태도의 불건전함에서 기인하는 것이어서 이는 통일실현을 어렵게 하는 가장 본질적인 저해요소라 볼수있다。나태와 불목과 허영도 그러하거니와 현실생활면에서 나타나는 협동심의 부족 관용성의 결여 독창력의 빈곤등이 큰 문제인 것이다。결국 조국통일은 외적조건의 성숙에도 불구하고 내적조건의 결여로 인해 불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온셈이다。따라서 한반도 통일실현의 국제여건이 자국의 현실적 이익추구에 열을 올리고 한국민의 가슴속에 잔존하고 있는 개인주의 내지는 이기주의가 팽대하는한 통일의 비전은 어둡다고 볼 수 있다。

III、結論

전술한 바와같이 昨今의 국제정세는 말할수없이 냉담하다。특히 한반도를 이해관계로하는 美蘇中日의 현실기회주의적인 실리추구하에서는 더욱 그렇다。

그러고보면 지금 어느곳에서 한반도를 예기치못한 사태로 몰아넣을 계획이 추진되고 있는지도 모르는 일이다。역사적으로 태프트 가쯔라협정, 제2차영일동맹 포츠머드 강화조약등을 상기해볼때 이는 확실해진다。그러기에 우리는 현국제정세에 대처할수있는 獨自的인 힘을길러야하며 뚜렷한 한국외교의 방향을 설정하여 박력있게 추진해가야할것이다。과거 관료주도형인 고질적인 태도를 완전히 일소하고 내적으로 관민협조체제형성으로 총화의식이 고조된 사회가 이룩되어야 하겠으며 특히 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로서는 경제성장이 우리한반도 통일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해볼때 자원풍부한 東南亞내지는 아프리카의 제3제국을 향한 건국적인 외교를 시도해볼 필요가있다。

더우기 UN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이루고 분단상태에 있는 현상황을 고려해볼때 UN회원국 99개국중 46개국을 차지하는 제3세력과의 외교는 가히 중요하다고 할수있다。최근의 전두환대통령의 東南亞 아시안 五個國 순방이나 아프리카 五個國 순방은 이러한 관점에서 볼때 아주 시기적절하고 경제적 외교적인면에서 중대한 성과라 아니할수 없다。급변하는 정세속에서 한국이 통일을 자주적으로 해결하는 길은 오직 우리의 自主力을 길러 경제 외교 군사 문화 사회적 힘의 우위에 서는 길뿐이라고 단언할수 있다。이에 우리는 비단 자유우방과의 경제 교섭뿐만 아니라『언제나 영원한 적도 영원한 동맹도 없다』는 논리의 현실성에 비춰 4강의 균형 체제 지속으로 대소 대중공의 비정치적 경제적 접근가능성을 노크하는 노력도 게을리하지 말아야한다。또한 지역공동체의 구상으로 자유개방경제 질서를 모색하여 대공산권교역확대의 전기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생각한다。우리는 여기서 영국의 톰슨경이 한말을 다시한번 상기해볼 필요가 있다。톰슨경은 (인구+국자원)×의지=국력(힘)이라 했으니 국민의 일체감 속에서『의지』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말해주고 있다。

汎國民的意志의 집약은 우리 국민이 먼저 우리라는 共同體意識에서 자신의 所任을 다하고 신뢰하는 사회풍토 조성이 앞서야만 해결될수 있다고 믿는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의 傳統倫理의기반이 상실되지 않는 限度내에서 近代的 精神과 전통적 정신의 조화를 도모해야 할것이며 경제 政治 社會 文化 모든 분야에서 관민이 협동단결하는 자세를 취해야만 할것이다。그리하여 국력의 우위를 언제나 확보하여야만 우리의 안전보장이 유지 발전되어 국제관계에서의 외롭지 않게 군림하는 통일한국으로 승화시켜야할 민족적 과제를 국민각자는 깨닫는 자세 협조하는 자세 인내하는 자세 노력하는 자세 發展指向的인 자세가 확립되어야할 것이다。

Oriental Mind Control® (정신조절기법)
마인드콘트롤
O.M.C.M
무료공개강좌!
일시: 5월2일, 오전10시, 오후7시
장소: 종로2가 파고다극장앞(762-6039, 765-4908)
시청앞 대한일보빌딩 7층(753-2212~3)
주최: 정신교육연구원
후원: 사단법인 국민정신중흥회 회장 오병호
* 정신교육은 책임있는 곳에서 유능한 강사에게
단12일간의 교육으로 당신의 인생이 바뀝니다!
[교육증진·건강증진
문제해결·신앙심화]
※최초 전자정신 훈련실 설치
※평생회비: 성인5만원, 학생4만원
전국지부(교육장소)
서울 영등포 남부세무서옆 832-1670
서울중랑(휘경동 위생병원 입구) 212-3134
부산지부(동구 대창동3가10) 42-0050
대구지부(남구 대명8구2009-2) 66-1808
광주지부(동구 대인동198-2) 7-4422
인천지부(남구청옆 새마을 종고1층) 84-8217
평생회원·전국통용

알바이트 案內
자격 남녀 1·2학년生
약간명 <선착순>
한성타자훈련소 202호

獨文化學院
●초·중·고급문법
●초·중·고급해석
●속성반·소설반
●고급독어
●Der stiegel
●독일인회화 (G·I·II·III·IV) 6월중순에 개강
●을지로2가 국민은행 맞은편 골목
개강: 5월2일(월)
☎ 267-3569

일본어회화
일본어初高
생활 英語회화
韓美人회화
드라마NEWS·美人회화
韓美合同 AFKN
英文해석
VOCABU/
성문 종합英語
TOEFL
(李在玉·아카데미)
종로 YMCA건너 제일은행코너 앞건물 744-6000 744-6060
고려KOREA외국어학원

주식회사 크라운제과
돈암동영업소(돈암동국민은행옆)
안내☎1층93-9540 2층93-8585
○각종빵,파이,선물용케익
햄버거,핫케익,아이스크림
〈단체주문시특별 서어비스 실시〉

안경은 시력검사에 따라
광신안경
▲고도근시 ▲백내장용 ▲가벼운렌즈
(724) 5559
신예용안과 1층(3·1빌딩광교중간)

회화테프대여
각종 외국어 녹음테프 염가대여
광화문 범한서적옆 백조다방6층
세종도서 TEL.724-6413

★연속착용
퍼마(Perma)®렌즈
※미국FDA공인 1달에 1~2회만 빼고 낌
★새로나온 하이파신소프트렌즈 뉴하이신 소프트렌즈 컴퓨터시스템처리
명동콘택트렌즈
777-5778~9

고려콘택트렌즈
◎연속착용이 가능한 소프트렌즈
◎스포츠맨을 위한 특수렌즈.
종로2가 (고려당6층) ☎725)1133

그날의 喊聲과

◎……1960년4월19일— 젊은 사자들의 가슴 가슴에 새빨간 정의의 피가 끓어 외로
◎……운 조국의 자태를 부둥켜안고 不正과 不義의 마각을 白日하에 드러내던날… 지
◎……성의 양심은 自由를 찾는 외침이되어 만천하에 울려퍼졌고 조국의 장래를 걱정하
◎……는 육신을 던져 오역의 역사에 과감한 도전을감행했다。벌써 4·19 23돌을 맞이

學生運動으로서의 4·19精神

4·19紀念학생 논문 현상모집 佳作

不義에 抗拒하는 시대정신 歷史에 浮刻

歷史의 諸桎梏에 대한 우리 民族의 自覺

부패한 現實과 民族걱정하는 순수입장이 動因

하나의 事件을 정확히 인식하기위해서는 일정한 간격이 필요하다고 한다。그럼에도 불구하고 4·19의거는 각계각층에서 수많은 論議가 되어왔으며 특히 우리 大學社會에 있어서는 더욱 그러하다。그만큼 4·19는 우리民族의 民主主義 확립에 있어서 일대 획기적인 계기가 되었고 학생운동의 표본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그러나 論議에 있어서는 많은 문제점이 따른다。그것은 이사실을 추상적 논의로부터 탈피하기위해서는 지나치게 現象論的으로 설명이 되지않을까 하는 우려에서이다。

I

해마다 4월19일이 되면 사람들은 그날의 광경을 회상하거나 유추하면서 오늘의 자기자신을 가다듬어 본다。이러한 일련의 작업은 그 强度가 점점 퇴화하고 있다는 느낌을 주고있기는 하지만 그때의 정신이 오늘날까지 우리의 가슴속에 살아 숨쉬고 있다는 사실은 쉽게 否認할수 없을 것이다。

4·19精神이란 歷史의 모순의 추이를 생생하게 체험하고 그것을 타파하려한 당시의 民衆이 남겨준 精神的 遺產이라 할수 있다。그러기에 이것은 西歐民主主義 理念에서 파생된 概念도 아니고 우연하게 發生한 것도 아닌 歷史의 諸桎梏에 대한 우리 民族 自體의 문제제기였던 것이다。

대부분의 기억에 남는 革命이 그러하듯이 4·19도 3·15부정선거가 결정적 모멘트가 되기는 했지만 그 자체만으로 이루어진 것은 아니고 그간의 모순에대해 누적된 불만이 폭발된 結果였다。4·19의 도래를 예감케하는 징후는 2·28 대구학생 1천여명의 데모에서부터 그 서막이 열리게 되었다고 할수있다。이것이 3·15 자유당 부정선거에 대한 마산市民·學生 봉기를 거쳐 4·26 이대통령 하야에서 일단 그 막을 내리고 다시 민주당의 무능력에 대한 여러가지의 內容과 形態로 進行되었다。

II

앞에서 3·15 부정선거가 4·19의 결정적 계기가 되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그 學事가 있을수 밖에 없었던 것은 그간 社會內에 수많은 모순이 누적된 결과라고 전제했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당시의 政治社會·經濟的 배경을 간략하게나마 고찰해야 할 필요를 느끼게 된다。

우리 民族이 일제의 지배하에서 한결같이 염원하고 있었던 것은 자주독립이었고 독립후의 가장 주된 관심이 民族統一이었다는 사실은 쉽게 알수 있을것이다。그러나 독립의 결과는 우리 민족에게 기대한 만큼의 變化를 가져다주지 못했다。

朝鮮末부터 독립후까지의 우리 社會의 지배층 形成過程은 다음 表와같이 대체적으로 요약할 수 있다。〈표1참조〉

즉、이들은 反民族、親日、非民主勢力으로서 각시기마다 그 형태를 달리하면서 명맥을 유지시켜왔고 獨立후에도 각기 다른 모습으로 이 社會의 지배층 형성과정에 참여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 결과 韓民의 단합된 힘으로 統一을 이루려고 한 노력은 헛되이 돌아갔고 社會內에 수많은 모순을 내포하게 되어 4·19가 일어난 내면적 동기가 된 것이다。

독립후 資本家의 형성 또한 특이한 과정을 통해 民衆앞에 군림하였다。

일제말의 資本構成은 日本人이 90%이상을 차지한 데 반해 韓國人은 10%미만이었으며 10%미만의 자본마저 下請的 산업자본 내지는 상업자본이었고、독립후 조선식민지內의 일본인의 재산은 관료와 결탁되어 일부 자본가의 손으로 들어가게 되었다。

여기에다 獨立 후부터 들어온 美國의 원조가 6·25사변을 지나고 나서 본격화되기는 하였으나、그것이 自立經濟를 위한 것이라기 보다는 군사목적을 위한 원조였고、원조내용도 消費財 商品이 주종을 이루고 있었으므로 그동안 소비에 어두웠던 일반 민중들의 호기심을 한층 돋구워 주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했다。

또한 미국의 잉여농산물 導入으로 인하여 소수 독점자본가는 막대한 利潤을 획득하는 반면에 우리의 農村은 그만큼의 희생을 감수해야만 했고 걷잡을수 없는 인플레이션과 失業人口를 産出하게 되었다。

이상과 같이 간단히 살펴본 당시의 社會的 背景은 하나의 큰 變革을 요구하게끔 만들었고 4·19가 歷史의 부름에 부응하게 되는 것이다。

III

4·19는 그것이 民衆運動이었음과 同時에 그 主體가 學生이었으므로 學生運動이었다。또한 그것은 學生運動을 전위로 하여 이루어졌고 그 기초 위에서 大衆運動的 性格을 갖추었기 때문이다。

당시의 口號및 宣言文도 이와같은 사실 뒷받침 해주고 있다。

-神聖한 학원을 政治道具化하지말라。
-학원내에 미치는 政治勢力을 배격하자。
-학원의 自由를 달라。
(2·28大邱高校生 데모)
-부정선거 개표를 즉시 中止하고 선거를 다시 하라。
-挾雜選擧 물리치자。
-투표의 自由를 달라。
(3·15 제1차 馬山義擧)
-민주역적 몰아내자。
-自由·正義·眞理
-우리 시위는 平和的이다。
-행동성 없는 知性人을 배격한다。
-政治的 골동품은 물러가라。
(4·18 高大生 데모)

이상의 몇몇 구호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4·19는 初期에 학원의 문제를 둘러싼 「學園의 自由」를 요구하였던 것이 3·15 부정선거를 거치면서 「不正選擧 규탄」이라는 보다 적극적이고 政治的인 요구로 發展하였고 급기야 4·18 高大生 데모와 이들에 대한 「정치깡패」 습격사건은 다음날에 벌어진 4·19에 참가한 학생·市民들의 행동양식에 커다란 심리적 자극을 주어 그들의 구호 또한 「몇몇 政治人의 進退만으로 해결될 수 없는 10여년간에 걸친 旣成政治現實과 낡은 人的構成에 대한 不信과 民族主體性을 확립한 새 政治創造의 指向」이라는 이를 통한 社會의 現實과 앞으로의 社會에 대한 구체적인 변화를 요구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면 이같이 학생이 사회변혁운동의 선봉에 서고 그 중추적 세력을 담당할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무엇인가?

당시의 經濟分配구조는 「非生産的 노임이 생산적 노임보다높고、재산소득이 法人·企業소득보다 높으며、잉여가치가 생산적 노임보다 그 절대액에있어서 훨씬 높다」는 사실로 특징지워 질수있다。

이러한 경제분포 구조는 군사적 성격을 띤 美國의 원조와 그 도입과정의 독점으로인한 비생산부문에의 집중적 투자및 사회적 不平等을 기반으로한 관료적 자본축적 과정의 결과라할수있으며、이러한 상태하에서 역사의 핵을이루는 민중은 조직된 힘을 기르지못하고 정치적으로 소외당해야했던 것이다。

곧 당시의 민중은 자신들이 어떠한 큰 힘을 가지고 있다는 의식을 뚜렷이 가지고있지못했고 주어진 상황이 변화되는것을 도리어 두려워하기까지 했다고 할수있으며、그 결과 아주 극빈하여 무기력한 者는 특권층의 利器로써 현존 사회질서가 유지될수있는 간접적 힘이 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당시의 학생들은 일제의 군국주의적 敎育을 받지않았던 새로운 世代들이였다。때문에 4·19를 주도할만한 민족주의적 세력이 존재하지 못하고 일반민중이 政治的으로 소외된 상태하에서 순수한 입장으로 祖國의 現實을 직시하고 관료주의적 정치인들에 의한 현실의 모순을 타개하기위해 분연히 일어나야할 중추적 세력은 학생들이 되었던것이다。다음은 이들이 어떠한 입장에서 義擧에 임했는가 알아보기로한다。

IV

4·19는 학생들이 조국의 암담한 現實과 未來를 걱정하는 순수한 입장에서 일어났다는 점에는 누구나 찬양을 보내고있다。

그러나 그 배후의 指導理念이나 참가학생들의 의식상태를 객관적으로 따져볼때 그것은 그들의 행동과는 상대적으로 매우 빈약했음을 시인하지 않을수없다。

이것은 뚜렷한 지도이념의 不在에서알수있다。

어떤 운동이나 마찬가지이듯이 하나의 運動目的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一致된 理念이 存在해야 한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 없다。

이와같이 생각할 때 4·19 참가학생들은 社會에 누적된 제반 모순들에 대한 나름대로의 불만요소를 각기 念頭에 두고는 있었으나、그것을 요약하여 내세우지 못했고 그것이 進行되어나가는 가운데서 점차 체계적인 모습으로 形成되어졌고 결국은 4·19후에야 더욱 구체적인 모습을 띄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당시 학생들이 외치던 구호문이 時間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고 있다는 사실은 이점을 뒷받침 해주고 있다。따라서 4·19는 다소 群衆의 心理에 편승한 群衆的 性格을 띄고 있다고 할 수 있으며、그 대열은 또한 비조직적이었다고 할수 있다。

연세춘추 (1961·4·16字)에서 조사한 「4·19의 指導理念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서 응답자들은 ①지도이념이있었다↓44·5%

②지도이념이 없었다↓28%라고 대답하였고 이들이 말하는 지도이념 존재여부의 차이는 「自由에 대한 희구、부정부패에 대한 투쟁」을 어떻게 이해하느냐는 견해차이였던 것이다。

즉、前者는 이것을 지도이념으로 내세우는 것이고 후자는 이것을 뚜렷한 지도이념이라고 이해하기는 어렵고 보다 구체적인 이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들은 4·19에 같이 참가했다는 점에서 이것을 소집단으로 분리시키지 않고 참가학생 전체를 대상으로하는 집단으로 살펴본다면 이 양자는 결국 같은 심리적 상태에서 출발하게 되는 것이다。

또한 학생봉기 動因 조사 〈表2〉를 보면 3·15전과 그 후를 대비시킴으로써 이들의 意識의 흐름을 알 수 있고 혁명의 규모와는 반대로 그 動因이 매우 산만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여기서 주목해야할 것은 「政權辭退의 要求」이다。즉、3·15 이전에는 정권사퇴의 요구는 눈에 띄지 않지만 그 후에 7건이 발생되었다는 사실이다。

이것은 앞의 연세춘추 「소기의 目的이 達成되었는가」라는 질문에서 「생각보다 더 큰 결과를 가져왔다」라고 대답한 학생이 응답자 전체의 37·9%를 차지하고 있다는데서 이들은 당초 이정권의 타도까지 염두에 두지는 못했으나 경찰의 포악성과 정치깡패 투입등의 제반여건이 이들의 심리를 자극하게되어 정권타도의 필요성을 뚜렷하게 느꼈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들의 당초의 빈곤했던 지도이념은 行動性으로 대신되어 질 수 있었고、이런 상태하의 진행과정에서 지도이념은 구체적으로 형성되어졌으며、결국은 자유당 정권의 붕괴라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그러나 여기서 또 다시 4·19主體의 비조직화는 주체자로서 사후처리를 구집권 잔여세력에 맡겨 버렸다는데에 문제점은 계속 남게 되는 것이다。

V

앞에서 4·19는 종내 완전한 결실을 보지 못한채 끝나고 말았고 그 내부의 이념은 行動을 뒤따르지 못했다고 했다。

그러나 반대로 그것이 사회전반에 미친 영향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위대해지고 있다는것 또한 짚고 넘어가야할 사실이다。우리는 이제 앞에서 살펴 본 바를 토대로 해서 4·19가 지니는 性格과 그 精神을 究明해야 할 필요를 느낀다。

먼저 4·19가 가지고 있는 성격으로는

①自然發生的이었다。

②의거의 중추세력이 학생으로서 의거세력 조직화를 이루지 못했다。

③구체적인 사회구조의 변혁을 가져오지 못했다。

④새로운 사회형성의 전환점을 이룩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4·19의 성격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것들은 상호간에 깊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음을 알게된다。

즉、①과 ②는 서로 인과관계를 형성하고 있으며 주체세력의 비조직화는 4·19이후 사태수습을 기성정치인에게 다시 돌려주는 결과를 낳고있다。

또한 이로인해 구체적 사회변동을 가져오지 못한채 이대통령의 하야로 일단 종지부를 찍은 4·19는 「새생활 운동」과 같은 「국민계몽 운동」으로 계승、발전되는 기미를 보였지만 아깝게도 5·16이란 돌연적 사태에의해 중단되고 말았다。

이와같은 4·19의 특수성은 4·19정신이 완전한 결실을 맺지못하는 요인이 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이유로해서 4·19정신은 어떠한 잠재적 성격을 띄고 있다고 할수있으며 그것이 어떻게 계승·발전되어 나갔는가 하는것이 매우 중요한 문제로 되는 것이다。

그러면 4·19精神이란 무엇인가?

물론 일반적인 定義가 될 수는 없으나 나름대로 정리한다면

①우리민족 自體內의 문제제기를 위한 自由의 요구。

②封建·官僚的 社會構造에서 벗어난 民主主義의 요구。

③이를 통한 民族統一의 요구。

이상의 3가지로 요약된 4·19精神도 그 성격과 마찬가지로 상호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

즉、그것은 非民主的인 낡은 勢力을 물리치고 그 잔존요인을 제거함으로써 민족의 주체적 역량을 定立할 수 있고 그것으로 民族의 統一을 이룩하게 된다는 것이다。

아울러 이들은 外意의 힘을 받지않고 우리 自體內의 힘으로 民族의 統一問題를 擧論하여 成事시키자는 主體的 實踐意味를 表明하고 있는 것이다。

이같은 意味를 지닌 4·19는 5·16이란 돌연적 사태에 의해 「未完成」의 형태로 끝나고 말았다고 앞에서 언급한 바 있다。

그러나 4·19精神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敎訓을 남겨주고 있다。

①歷史의 發展을 억제하는 어떠한 상태하에서도 勝利는 필연적으로 民衆에게 돌아온다。

②이러한 승리는 결코 우연히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승리의 필연성에 대한 민중의 自覺이 일어나고 그것을 위한 慾求가 충만해야 한다。

이들은 다시 5·16후 「4·19精神」의 高揚을 외치면서 무력한 歷史의 악순환을 拒否하며 자신들의 姿勢를 가다듬는 등 민족의 주체적 역량 함양에 특히 관심을 두었던 것이다。

이처럼 4·19는 미완성으로 끝났기때문에 잠재적 성격을 띄고 있으며 그 意義는 歷史의 時代精神으로서 不義에 항거하는 젊은이들의 標本으로 삼고 있는 것이다。

VI

4·19의 意義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그 자체로서 보다는 그것이 우리 歷史에 미친 영향에 보다 많은 관심을 두어야 할 것이다。

비록 그것은 구체적 지도이념의 희박성과 主體세력의 비조직화로 완전한 성공을 거두지 못했지만 한국현대사에 미친 영향은 실로 놀랄만한 것이기때문이다。

4·19는 이땅의 知識人들에게 「知識」과 「實踐」의 문제를 부각시킴으로서 정당한 社會參與가 역사발전의 촉매가 된다는 사실을 일깨워 주었다。

또한 4·19는 자칫 쓸어지기 쉬었던 민족의 主體意識을 재확인시키고 우리의 주체적 民主主義 확립 가능성을 對外에 재인식시킴으로써 자주독립 국가의 면모를 과시했던 것이다。

4·19가 비록 未完成으로 끝나기는 했지만 그러기에 우리는 더욱 그精神을 계승·발전시켜야할 의무를 지니게 되는것이다。

「民衆은 승리한다」는 敎訓이 살아있는 한。

◇4·19는 自由를 사랑하는 학생들의 순수한 봉기였다。

<表1> 朝鮮末부터 獨立後까지의 韓國社會 支配層形成過程

朝鮮末	日帝前期	日帝後期	獨立後
封建勢力	地 主	地 主	政治勢力
			商工業者
		官 僚	官僚資本家
		知識層	知識層

(유영표, 形成 제4권제1호 참고)

<表2> 學生蜂起의 主要動因

主 張 類 型	總計頻度	3·15前頻度	3·15後頻度
學園의 自由	30	19	11
不正選擧 배격	23	6	17
부패와 독재배격	21	12	9
국민과학생권기호소	15	7	8
경찰의 포악규탄	12	0	12
시위 권리주장	11	0	11
政權 사퇴요구	7	0	7
구속학생 석방	4	1	3
폭력배 규탄	4	0	4
사법부 규탄	3	0	3
民主黨 지지	2	2	0
신문강제구매 반대	1	1	0

(金聖泰, 成均館大學論文集, 1960·12·30)

지금 심정은…

白 光 烈
<農科大 農經科>

부끄럽다。

어설프게 써내려간 글이 不義에 맞서 鬪爭했던 선배들의 순수한 精神을 오히려 가리우지나 않았을지 모른다는 걱정이 앞서기 때문이다。

요즘의 大學을 가리켜 흔히 「理念不在」의 대학이라고 하기도 한다。이것은 대학의 이념이 그 自律性에 의해서 찾아지지 못하고 他律에 의해 가치 혼돈이 되고 있는 상태에서 빚어지는 現狀이 아닌가 하고 생각된다。

대학의 본질은 學問의 연구와 교수에 있다고 할 수 있다。이러한 基本的 관점에서 시작할 때만이 「知識」과 「實踐」의 문제가 서로 不可分의 관계에 놓이게 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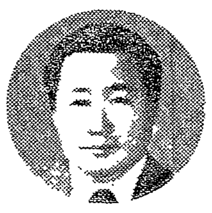
물론 「實踐」이라는 말은역사의 발전을 촉진시키는 「發展的 參與」를 의미한다할 수 있다。

4월혁명도 이러한 입장에서 출발되었었다고 감히 말할 수 있으며 또한 그러하기에 아직까지도 유학생들과 함께호흡할수 있지 않을까 한다。

끝으로 이글을 쓰는데 필요했던 참고문헌의 필자들에게 감사를 드리고 글쓰기까지 격려해준 주위의 학형들 심사위원 선생님 신문사 여러분께감사드린다。

심사평

「4·19와 學生位相」 부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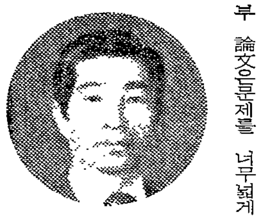


韓相範 교수

4·19특집에 현상응모한 글 가운데 백광열(농경4)군의 글을 뽑았다。다른글들도 함께 심사하면서 생각한 것은 응모한 학생들이 4·19를 목격、체험하지 아니한 세대라고하는 점과 특히 대개는 자기 전공이라고 끄집어서 말하기는 어려운 학생의 입장으로 쓴 글이라고 하는점에 관심을 두지 않을수 없었다。백광열군의 「학생운동과 4·19의정신」은 4·19혁명이 일어나게된 배경으로부터 그진전과 자체 문제점에 이르기까지 짚어나가면서 4·19혁명을 역사적인 사실로서 파악하는 관점에서 우리 민족사에 남긴 유산을 4·19가 한국민중운동으로 민족주체성과 민주지향이라고 하는 초점에서 이해하려고 한 점을 볼 수 있었다。이점에 관해서는 논자에 따라 해석이 꼭 같지 아니할 수있다고 하는것을 감안한다고 해도 그역사 인식에 접근하는면에서 어떤 점에서는 미숙하다거나 때로는 단정적이라고하거나 감격과 호소력이 앞선 나머지 생각해야 할 점도 있지만、전공역사학도나 사회과학도가아닌 입장이라고 하는 점을 감안할 때에도 한번쯤우리 스스로가 짚고 넘어갈 점도 있다는 점에서 뽑아본것이다。

이번에 응모한 글에서느껴 볼수 있는 것은 우리 청년 세대가 나름대로의 고심을 하고 있는 역역한 자취를 볼수있는 점이다。뽑히거나그렇지 않은 사람모두가 분발하길 빈다。〈法政大 法學科〉

「民族統一…」 부문



閔丙天 교수

統一問題를 주제로 하여 다룬 論文을 심사하면서 일차적으로 느낀 것은 많은 學生이 그 문제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있다는 것이었다。解放二世代로 표현될 수 있는 大學生의 統一에 대한 관심은 일부의 杞憂와는 달리 그들이 統一을 기필코 달성하는 主體이기를 바라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다。그러한 關心의 熱度에도 불구하고 統一을 客觀化시켜 다루는 솜씨에 있어서나 그와 관련한 새로운 意見의 創出에 있어서는 만족할만한것이 아니었다。자기의 문제(자기나라도 포함)를 다룰 경우에는 先入見이나 情緖가 많이 작용하기 마련이어서 現實을 客觀化하기는 쉽지 않다。그 결과 情緖的인 主張은 있어도 客觀的인 分析은 없는 論文이 많았다。대부분의 論文이 統一에 대한 當爲와 主張을펴고 있었으나 當爲性은 現實性을 바탕으로 해야 실현될 수 있다는점을 간과한 경우가 많았음을 지적하고 싶다。

應募論文의 일부는 그렇지 않지만 몇편은 論文으로서의 形式과 內容을 갖추지 못하고 있었다。論文은 글을 통한 主張의 논리적 전개이기 때문에 形式을 갖추어야 한다。그것은웅변원고나 散文이 아닌것이다。일부 論文은문제를 너무넓게 전개함으로서 焦點을잃고있었다。論文은 主題를깊게 다루고 分析하는것이어야 한다。비록 滿足할만한 것이 아니었지만 이번기회가 關心問題를 다루고 또 論文修練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法政大 政外科〉

「傳統文化…」 부문

任敦姬 교수

「탈놀이에 나타난民衆意識」은 한마디로많은 노력을 기울인 작품이라 할수 있다。학생논문에서 가장 주요한 요건이라 할 수있는 그 分野에 대한先學의 연구를 착실히소화하였다는 점을 특히 높이 사고 싶다。탈놀이에 있어서의 민중의식을 그 탈놀이가 행하여졌던사회상황、또는 경제상황과의 관련에서 보려고 한 관점도 좋았다고 보겠다。또한 현지조사를 통한 자료수집등 많은 열성을 보인점도 좋았고 부분이나마 先學의 견해에대한 비판과 나름대로의 독창적 해석도 이 논문의 장점으로 보겠다。마지막으로 논문서술의 양식에도 충실했음을 지적하고 싶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볼때 탈놀이와 민중의식과의상관관계를 논할때 너무 피상적이고 산만한 느낌이 드는 것이다。다시 말해서탈놀이에 나타난 민중의식과 경제적 상황 신분적 상황과의 필연적 연결에 대한 논증이 너무 간단하고 쉽게 이루어진 느낌이다。예컨대、탈놀이가 극성기를 이루는 朝鮮後期의 시장구조나 그로인한 계층의 분화와 변화된 양상에 대한서술에 있어 허점이 보인다。마케팅 구조의 변화가 신분의 균형을 깨뜨리고、특히 양반계층이 격증하는 결과를 초래하는경제적 구조와신분체제의 역학관계에대한 체계있는 논증이 아쉽다 하겠다。좀더 복잡하고 차원높은 해석을 요하는연구가 앞으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바이다。〈文科大 史學科〉

「民族文學…」 부문

洪起三 교수

「民族文學 論議에 있어서 리얼리즘수용문제」라는 제목으로 두 편의 論文(吳仙玉·최민섭)을 읽었다。이 주제에대한 論者들의 기본 입장은 긍정적인 것에 속한다。뿐만아니라 주제가 갖는 현실적인 중요성과 절실함에 대한 논증의 과정이 비록 상식적 수준을 넘지못하고 있다 하더라도 매우 성실하고 진지한것이 확실하다。또한〈민족문학〉에 대한 개념이라든지、리얼리즘、농촌문학、민중문학등의 用語를 제한적으로 사용하면서 그 개념의 範疇化를 시도한 것이라든지、위의 用語들이가지고 있는 문화적 상호관련의 의미라든지、나아가서 80년대 우리나라 문화에 부여받고 있어야할 과제 또는 方向으로서의 民族文學이론의 검증을 시도한 의욕등이 논자의 주장을 정당화시키는데 크게 공헌하고있는것이다。그러나 吳仙玉의경우 특히 論文의 체제가 매우미흡하고(예컨대 참고문헌이나 註의 제시를 전혀 무시한 것등) 전개의 전반적 양상이 산만한 느낌을 주고 있다。우선 논문체제에 대한 주의가 선행되었어야 했을 것이다。최민섭의 경우 상당한 비평적 역량을 보이고 있으나 생략되어도 무방한 說明이나 解說(예컨대 解放前 民族文學이론이나 사실주의의 개념정의 등등) 같은 군더더기 많고 기성의 이론에 대한 비판적 검토나 視角을 생략한 채 그것에 손쉽게 동의해버리는 논조가 지배적인 점이 논문의전체적 비중을 높이는데 기여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게한다。다음의 비평적 정진을기대한다。〈文科大 國文科〉

東大新聞 創刊 33周年을 祝賀합니다

大韓佛教
曹溪宗

宗正 李性徹

■元老會議
議長 朴淇宗
副議長 姜昔珠

■總務院
院長 黃軫經
總務部長 朴鍾夏
教務部長 李性陀
財務部長 金虛玄
社會部長 金法長
糾正部長 金慧法
企劃室長 金正樂
總務局長 裵鐵牛
教務局長 李永煥
財政局長 陳玄根
社會局長 金虛定
第一局長 黃宗眞
第二局長 李法政
第三局長 鄭陽山

■中央宗會
議長 徐義玄
副議長 朴明煽
副議長 邊蜜耘
事務處長 李眞徹

■布敎院
院長 無盡藏
布敎部長 成岩度
鍊修部長 安養國
布敎局長 李碧峰
鍊修局長 鄭慧昌

護戒委員長 鄭道圓

卒業定員에 의한 탈락

"최대한 줄이겠다"

총장·신문사 對談

◇대 담 자

黃壽永<本校총장>

南 渲<本社편집부장>

◇배 석 자

吳洪哲<本社주간>

朴鍾燠<비서실장>

金容喆<本社편집국장>

◇일시 : 1983년 4월15일 오후3시

◇장소 : 本校총장실

남=바쁘신중에도 시간을 내주셔서대단히 감사합니다.

황총장=자네를 만나는 것은 좋은데 시간이 없고 스케줄이 잘 안잡히고…

남=총장님이 바쁘신것 같으니 학내 전반에걸쳐 간단히 질문드리겠읍니다. 그리고 저희 신문사 狀況 몇가지만 말씀드리겠읍니다. 지난 2년간 본교의 건설조경자문위원회가 생겨서 많은 건설 문제를 해결했읍니다. 특히 東國館이라든지 후문공사 그리고 慶州大 도서관 기타 여러가지 큰 공사가 많아 學生들이 많은 도움을 받았으며 금년에는 도서관 증축및 慶州大 마스터 플랜등 기타 여러가지 학교 건설관계가 있을텐데 總長님이 指向하시는 方向, 특히 학내 建設造景問題에 관해서 總長님의 구상을 말씀해 주십시요.

황총장=글쎄, 우선 慶州大學은 지금 수용하고 있는 학생이 4千여명이 넘었는데 학생들이 공부하고 도서관 이용하고 또 숙식할수있는 기숙사등 세가지 問題가 우선 일단락 되어 중요한 문제는 해결되었어요.

며칠전 慶州 도서관을 가보니 아주 좋더군요.

조용한 학교구내에 있는 대규모의도서관 아주 좋아요.

특히 남아서 공부하는 학생들을 보니까 그렇게 흐뭇할 수가 없어요.

또 제일 큰일이었던 시내하고 연결하는 3백m의 다리를 놓아야 했는데 이것도 해결이 됐으니까.

남=경대교요.

황총장=경대교, 경주의 대교인지 慶州大學의 다리인지 아무튼 경대교니까 바꾸지 말라고 했는데, 설계가 거의 끝났으니까 반가운 일이죠.

5월이면 착공될거고 이것이 완공되면 아주 큰 도움이 될겁니다.

60리를 매일 같이 제방길로 학생들이 다니고 했는데 직통으로 건너오니까 교직원·학생들의 통학문제는 거의 해결이 됐다할수있지.

한편 慶州처럼 주택난이 어려운데가 없었는데 교수, 직원아파트60세대설계가 끝나는데로 벌써 사놓은 땅에 금년에 착공되면 연내에 完工되겠지요. 교직원의 아파트60세대가 완공되면 교수들의 부담도 적어지게돼 慶州大교직원에게는 큰도움이 될겁니다. 또 앞으로 慶州大學의 새로운 추가건물에대한 구상을해야되겠죠.

남=겨울방학때 제가 한번 내려 가봤는데 학교가 서울 本校보다 규모가 커서 그런지 화생은 별로 없고 설렁한것 같은데 慶州大을 포함한 學內植樹나 造景관계에대해 계획하시는것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요.

황총장=작년에 경주대에 내가 한트럭분의 나무를 심어서 금년에도 아주 조경이 잘 되었어요.

나무도 작은 묘목이 아니라 2~3미터되는 나무들만 심고 도서관 가는 길도 나무가 있고 그만하면 일차적인 造景은 되었더군요.

또 서울에있는 예산을 잘라서 특별히 배당했고 나도 자목련 10년생 두그루를 도서관 입구에 심었읍니다.

남=서울本校에서는 현재 관재과에서 잔디밭에 나무를 심고있는데 지반이암석층이라서 특수한 나무를,심는다는이야기도 나오는데 총장님이 생각하시는 學校造景관계 특히 본교같은 경우는 學校의 규모가 커지지 않고있고 학생들은 점점 늘고있기때문에 학생들의 휴식시설이 많이 없었는데 總長님 構想하고 계시는 학내 휴식처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요.

황총장=본교 휴식처는 학생회관뒤에 2백평정도가 늘고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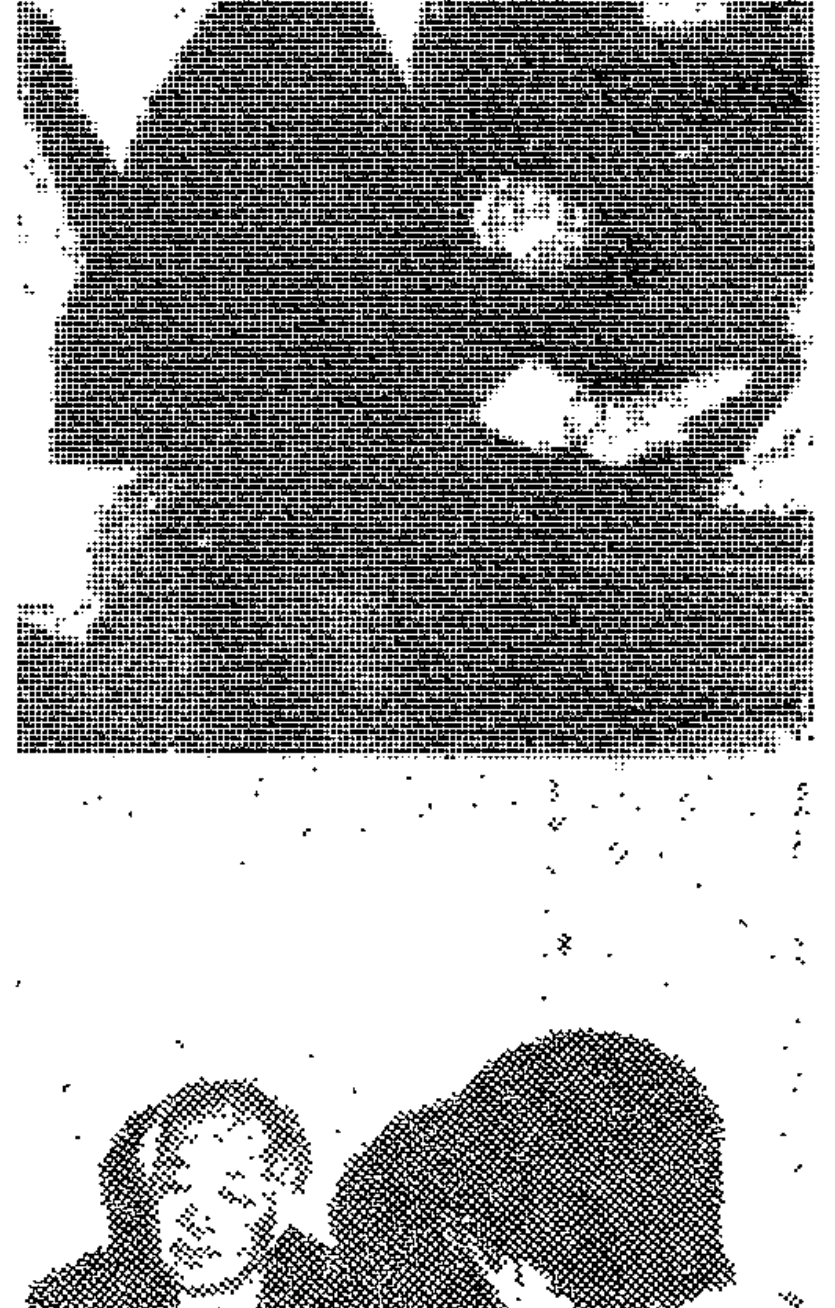
그것을 開發하겠으며 또 몇군데 공간을 활용해야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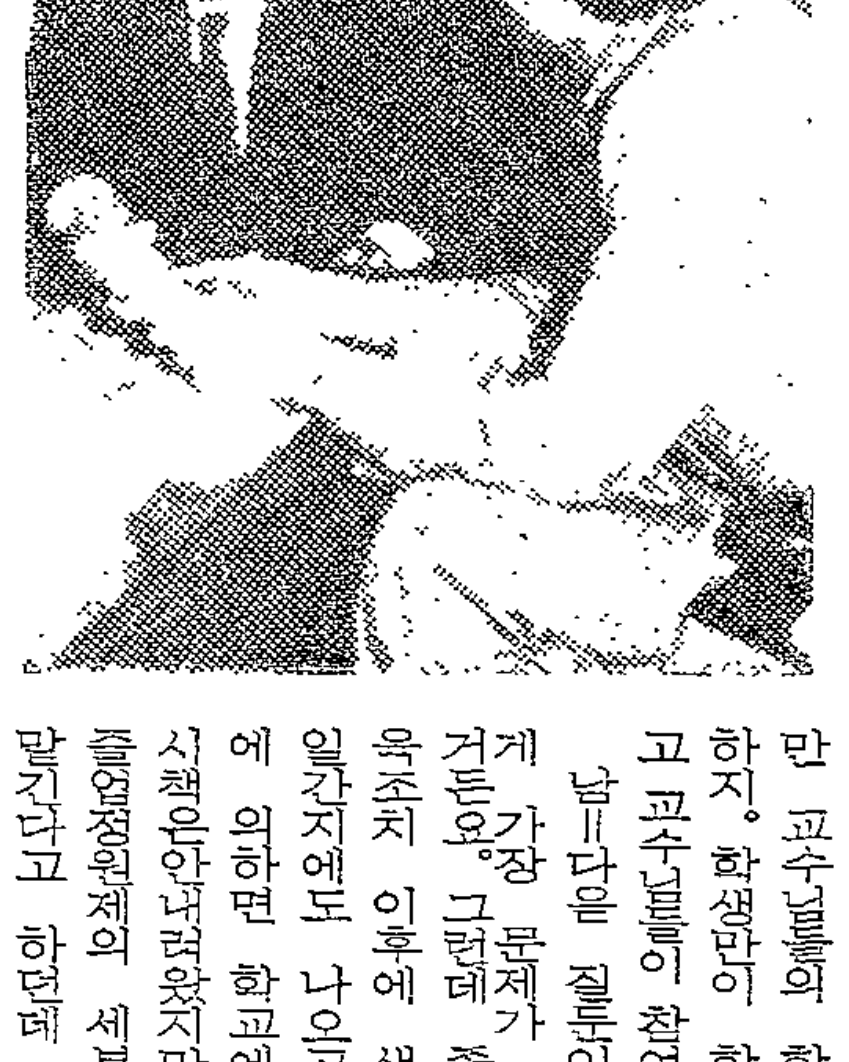
나무 심는 것은 내가 연습림에서 또 한 트럭분을 들여와서 추가로 4천주를 심었는데 그래도 눈에 안 띄더군요.

造景문제는 후문문제가 남아있는데 거기에 左右로 나무 심을 계획이며 지금 중단 되고있는 옹벽공사는 학교마크를 달기로 했는데 關係교수님이 몸이 불편해 나오시지 않으니까 시간이 좀 있어야겠지요.

연구소 活性化, 관계당사자의 노력필요해

敎授·學生이 同參하는 학회활동 되어야





남=그럼 年內로 東國의 캠퍼스가 많은 탈바꿈을 하겠군요. 특히 造景관계에 대해서는요.

황총장=造景관계는「건·조·위」가있어서 활발히 움직이고 있고 나무도 더 심어서 나아져야지.

남=얼마전에 야구부가 우승을 해서 대규모의 환영잔치도 하고 신문에도 크게 났는데 大學이 발전하려면 홍보의 역할이 크다고 思料됩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체육부의 역할이 크다고 생각하는데 체육부의 육성관계로, 특히 어느 한 부서에만 집중육성하는 방안을 비롯해 총장님이 생각하시는 체육부의 육성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요.

황총장=글쎄, 개인적으로 난 체육하고는 인연이 많지 않은 사람이어서… 산책을 하거나 뒷산에 약수먹으러 가는 정도인데.

야구나 축구, 농구등 과거에 역점을 두었던 것을 그대로 유지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개인종목으로는 국제대회의복싱에서 금메달을 달고 왔길래 축하를 해줬는데…개인경기는 계속 후원을 하겠고 축구, 야구, 농구 다 그런대로실력을 쌓고 있는데 이번에 우승을 했으니까 딴 팀도 계속 뒷받침을 해야되지 않나생각하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산이 너무 작아서 지금까지 너무 투자가 적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구.

시설면으로 숙소나 식사는 대충 갖추어졌고 원당 야구장도 보수가 거의 다 끝나 곧 이용할수 있게됐지.

남=야구가 20년만의 첫우승이라 그런지 일간지나 각 메스컴에서 크게떠들었죠

황총장=좋게 다뤄줬지 그렇지만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뒤에서 여러가지 자잘한 신경을 많이 썼지. 우승기가 내 방에 들어오기 까지 쉬운게 아니었어 우승을 한번 하면 거기에 따른 우승 세금도 내야 했거든(웃음) 그렇지만잘들해줘야지 또 그렇게 일들도하고있고

남=후원회도 많이 육성해야 되겠어요.

황총장=많으면 많을수록 좋지만 정성을 쏟는게 중요하지.

남=체육부육성에 관해서는 지난번같이 계속 꾸준히 학교에서는 후원을하고 선수들은 계속 열심히 뛰면 거기에대한 보상이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황총장=보상이 온다고 생각하지. 보충할 것은 보충하고 계속 여건을 두어야지.

남=저희 학교선수들은 고교시절에일류는 아니었거든요. 그러다가 학교에와가지고 길러졌는데 그예로 프로야구에 있는 김성한선수나 한대화, 장호연선수들은 저희 대학에서 큰 선수들 같아요. 물론 학교에서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셔서 그런것도 있지만 고교에서 초고교급 선수들을 뽑으면 더욱 유명해지지 않을까 생각도 드는데….

황총장=그렇게 하면 타대와 경쟁이 되기는 하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건이 좀 모자란게 있는지. 그래도 수준급이상의 선수들을 스카웃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선수들을 여기서 키워가지. 고교에서 다 완성되는게 아니니까.

남=빨리 진행되는것 같아서 제가 당황하게 되는군요. 세번째 질문으로 가장 중요한 문제고 매년 거론되는 문제로 우수학생유치및 우수교수초빙방안에 대해서 총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황총장=금년에 공채로 우수한 교수들을 유치했다고 생각하고 예년에 비해서 우수한 교수들을 확보했다고 생각하지. 학생들도 전반적으로 학과선정에 신중을 기하여 지원한 것같고 또 우리학교의 경쟁률도 높아졌고 경쟁과도 옛날 수준으로 복구되었다고 말들하는데 사실입니다. 지원자도 금년에는 慶州하고 여기를 합쳐서 5천명이증원되었어요. 그것은 우연히 5천명이 증원됐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학생들을 끌수있는 요인이 있지 않았나 생각하며 그런 추세로 계속 좋은 학생들을 유치할수 있는 方案을 추진해 나가야되지 않을까 생각하지.

◇사진은 지난15일 校內의 제반문제등을 토론하기위해 열린총장·신문사 대담광경。

그리고, 홍보같은것도 임박해서 하지말고 항시 관계메스콤을 이용하는것이 좋지. 담당자들도 금년에는 여러가지 일들을 하던데.

고등학교에 신문도 보내고 자료도 보내고 또 나도 며칠전에 某대입잡지사와 만나서 권두사진도 찍었죠. 공보부도 따로 자리를 잡고 인원도 증가됐죠. 동창회에서 한분이 오시고해서 팀웍도 짜졌지요.

또한 공대에서도 아이디어현상모집을 하던데 내가 그전에 그랬어요. 공대학장보고 어떤사람이 동대에도 공대가 있느냐고 묻길래, 그럼 있고 말고 그게 무슨 소리냐고 (웃음) 했지요.

그래서 금년에는 공대교수님들이 외국에 갔다 오시면 신문에도 내고, 공대뿐 아니라 정기적으로 외국에 다녀오신분의 논문등을 신문에 내기로하는 등 공보부의 세심한 기획이 있고 또 그렇게 집행하고 있지요.

남=이번의 공대 고교생아이디어현상모집은 저희신문사가 후원을하고 있어서 특별히 광고도 내고 해서 동국대학교 공대를 밝힐려고 신문사자체에서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우수한생들이 대학에 들어와서 중요한 활동중의 하나는 학회활동인데 학회활동이 작년에 부활됐읍니다만 현재 학교측의 학회실 지원문제및 금전적인 지원문제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읍니다.

특히 학회활동에 필요한 보조비는 호국단에서 나오는데 학생들의 의견에 의하면 충분하지 못하다고 합니다. 학회활동 활성화에 대해서 총장님이 평소에 생각하고 계신것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죠.

황총장=학회활동은 교수와 학생이 같이 하는것이 바람직하며 또한 그런 방향으로 해야지. 자극적인 요소를 학교안에 도입하고 또한 참신한 아이디어를 내어 상호자극하는 학구적 분위기를 조성한다든가 그밖에 몇가지 방법을 통해서 학회활동을 진작시켜야지, 학회는 역시 서클에서도 하고 그런지만 교수님들의 학생지도가 또한 중요하지. 학생만이 학회활동하는것이 아니고 교수님들이 참여해서 한도록 해야지.

남=다음 질문인데요 지금 학생들에게 가장 문제가 되는것이 졸업정원제거든요. 그런데 졸업정원제가 80년 교육조치 이후에 생겨난 것인데 이번에 일간지에도 나오고 또 제가 조사한바에 의하면 학교에 아직 문교부 시행시책은 안내려왔지만 현재 추세로 보면 졸업정원제의 세부사항이 대학자율화에 맡긴다고 하던데 만일에 대학자율화에 맡기면 총장님은 어떻게 우리 학교를 이끌어 나가실런지 말씀해 주시죠.

황총장=자율화에 맡긴다고 하는것이 너무 가상적이어서….

남=졸업정원제의 학년별 탈락비율을 대학자율에 맡긴다고 일간지에 발표가 됐는데 총장님은 만일 시행시책이 내려오면 어떻게 유도하실려는지 말씀해 주십시요.

황총장=글쎄 졸업반까지 끌고가서유급이라든지 하는 방법으로 할까. 자율이라는것이 대학교에 맡기고 대학의실정에 맡기는 것이 자율이지. 졸업정원제 자체를 없앤다는 것은 아니지. 도리어 확고히 한다는 것을 강조한는것으로 알고 있지. 다만 탈락비율을 학교자율에 맡긴다는 거겠지. 최대한으로 희생을 줄이고 유급관계를 잘 조정해 나가야지.

남=몇일전 교무처에 가서 알아보니까 최대한 학생입장에 서가지고 최대한 희생을 줄이겠다고 말하던데 그 관계는 문교부에서 시행시책이 내려오면 교무처에서 입안을 해가지고 총장님의 결재를 받아 발표한다고 했는데 저는 총장님의 개인적인 생각으로 총장님의 교육관에 입각해서 졸업정원제가 자율화된다면 어떻게 하실른지 그점을 여쭙는 것이지요.

황총장=글쎄 그게 자율화된다는 것이 큰 테두리가 움직이지 않고 있다고. 다만 전과같이 딱 못을 박아가지고 학년별로 탈락 퍼센트가 있던것을 대학의 실정에 맞춰서 해라 그리고 4학년까지 올라갈수도 있다 그런 이야기거든.

그리고 그에대한 세부내용은 당국에서 몇가지 지시를 내렸지만 들어온학생들이 다 졸업할 수 있도록 대학에서는 늘 생각하고 그 방향으로 희망하고 또 그런방향으로 유도할려고 노력하지. 다만 큰 테두리가 풀어지지않고있기때문에 그것에 적응해서 최대한도록 희생을 줄이겠으며 또한 자율화가 어느정도의 자율화인지는 더 두고 봐야하겠지만 탈락이 한사람도 없도록 유도해야지.

남=최소한으로 졸업정원에 의한 탈락생을 줄이겠다는 말씀 잘들었읍니다 다음 질문으로 대학에서의 가장 큰역할 이라고 하면 사회에 대해서 고도의 지식을 전달해 주는 역할도 있다고 생각되는데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대학에서의 연구소가 활성화되고 사회의 많은 전문지식을 밝혀내는 그런 연구소가 돼야하는데 본교에 보면 본교의 특수성을살린「불교문화연구소」나「일본학연구소」들은 상당히 활동을 많이하고 기타 몇군데에서도 활동을하지만 그 대다수가 이름만 연구소지활동을 못하고 있는 형편이거든요. 그래서 각 연구소장님들한테 가서 여쭤보면 연구소 활성화를 위한 보조비가적다는 말씀을 하세요. 그 관계를 말씀해 주시죠.

황총장=연구소가 하도 많으니까. 다한정된 예산에서 보조할수밖에없고 몇몇 연구소는 중점적으로 보조해왔죠. 활동에 따라서 보조금도 생각하고 있는데 논문을 모아서 논문집을 구체적으로 발간하는 준비가 다되면 거기에대한 출판보조비용을 줄 수가 있는거죠. 처음부터 지급하는 것은 여건상좀 어려운 형편이지, 연구소에 따라서 사실 1인1연구소같이 해서 우리학교뿐만 아니라 타교에서도 마찬가지지만그런 연구소가 있거든, 조직도 그렇고대외적인 여건도 있고해서 활동을 못하고 있는데가 있어요. 그래서 자연히역사도 있고 실적도 많은 신라문화연구소나 일본학연구소등 몇개를 중점적으로 지원하고 있지요.

남=지금 연구소에 보면 사실 교수님만 계시고 연구원이라는 분이 한분도 없는곳이 있거든요. 또한 연구원이라고 하면 조교가 연구를 하는데 타대학을 보면 사회에서 많은 의뢰도 오고 또 많은 연구원들이 연구를해서 사회에 발표를 하는데 우리학교를 보면 연구의 실적이없어서 그런지 사회에서 연구의뢰하는 연구소가 많은것같지 않아요. 그래서 社會에서믿고 연구의뢰할 수 있도록 여건조성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특별히 연구소에서 연구해가지고 보고하면 거기에 대한 비용보조보다도 사회의 인식을 높이기 위해서 특별히 몇몇 연구소에 대해서 집중 투자하는 방법도있겠는데 이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죠?

황총장=연구원은 몇군데있는데, 불교문화연구소에서도 있고 박물관에도 있다고…연구소마다 활기가 없다한는데 그건 나도 동감하겠어요. 학교에서 뒷받침을 해야되겠지만 기본적으로 전체가 몸부림을 더 쳐야겠는데, 역시 활성화의 책임은 학교자체에만 돌릴수만없는 문제이니까 그점을 감안해주는것도 필요하지. 좋은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그런 기획이있으면 주목을 당연히 해야되겠고 그렇게 열심히해서 논문을 출판하는데 비용이 모자란다하면 도와줘야하겠죠. 또 학교에있는 출판부가 활성화하고있는데 교수 출판물이 착수된것도 몇개 있으니까.

그런것을 출판부에다 넣어서 거기서 그 비용으로 연구성과를 책으로 낼수 있다고 생각해요. 과거에는 불교관계의 대장경번역과 불교전서 같은것에 역점을 두었지만 우리학교교수, 연구소에서 나온 업적을 출판하는데 또 하나의 역점을 두자 하는것으로 방향전환을 하는것으로 알고 있어요. 박물관에서 11년간 조사한 울산반구대 조사기록도 이번에 착수가 됩니다. 없는 예산에서 책한권에 천여만원의 예산이 나가니까요. 그런 의미에서 각연구소에서 그런 좋은 연구를 하면 뒷받침할 수 있는 뭐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처음부터 돈은 다 주고 하면 더 좋은데 그럴수 없는 형편에서 몸부림을 쳐야지. 그렇게하면 길이 뚫리지 않을까 해요.

黃총장 : 앞으로 本校의 사업계획으로는

도서구입, 기재비치등 勉學여건에 힘쓸터

남=마지막으로 학내전반에 보신 총장님의 장단기적인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주시고 本校 학생들에게 어떻게공부하고 어떻게 대학생활을 영위해 나가야하는지 당부의 말씀좀 해주시죠.

황총장=글쎄 그것은 해에 따라 변하는것은 아니지만 동국대학의 장단기계획은 내가 취임할때도 말했지만, 내가 오래있던 대학이라서 내용을 알아서 그런지 우리대학은 헛점이 많은편이지 대학이 虛해, 實하지 않고, 그래서 헛점을 메꿔야 하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가령 학교가 가지고 있는 장서가 종합대학 수준만의 기준에 도달되어 있나(?)하는 문제도있다. 꼭 이책이 있어야 하는데 도서관에없다고 하면 어떻하지.

적어도 종합대학이라면 꼭 가지고있어야할 도서 물론 책수요만 따지는것이 아니라 질도 따져야 하겠지만 일차적으로 대학이 가질만한 책이 갖추어졌다하는 것도 문제는 문제지. 금년에 도서관에 역점을 두자고 해서 과별 도서구입비를 작년보다 배를 책정했으며, 또 도서관에서 책모집운동을편다고 하던데, 물론 학교에 과가 많아요. 60여개과가 되는데 과에서 마땅히 갖추어야되는 도서라든지 학생들이 마땅히 배워야될 학문을 위해서는 실험기구가 있어야 하거든 그런데 그게없어. 그것때문에 내가 몸이 달고 초조하다는 거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수업을 하겠어. 그런것으로 우리가 약하다는거지. 다행히 공대에서 올해 70만불 외자를 들였지. 그건 전적으로 어느 교수의 특수연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자료 기본시설에 필요한 실험기구지. 그건 공과대학뿐만아니라 딴 대학도 마찬가지지. 어느 대학이 기본도서를 갖추었다고 자랑할 수있을 런는지. 장단기계획에서 우리학교가 헛점이 많아요. 그러니까 내실을 기하고 튼튼하게 해야될텐데. 그것이 바로 장단기계획이지.

남=그럼 본교 학생들에게 당부하실 말씀은?

황총장=대학생활을 성과있게 설계를 잘세우라는 것이지 시간이 4년뿐인데 대학4년을 아주 충실하게 보낼수있도록 해야지. 또 대학캠퍼스의 주어진여건이 어쨌든 연구하는 교수밑에서 공부하는 학생이 되어야지. 물론 자기가 선택한 학문의 大家가 되라고 부탁은 안해요.

후회되지 않는 대학4년을 알차게 보내라고 당부합니다. 나는 대학을 학문의 밑바닥을 전부 다 마스터하는데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직업전선에나가든 학문의 장에있든 학문의 기본적인 요건을 본인이 취득하고 마스터하는 데라고 생각합니다. 어떠한 학문 어떠한 직업에 자기가 종사하더라도 갖추어야될 기본적인 문법적인 수련을 소홀히 하지말아야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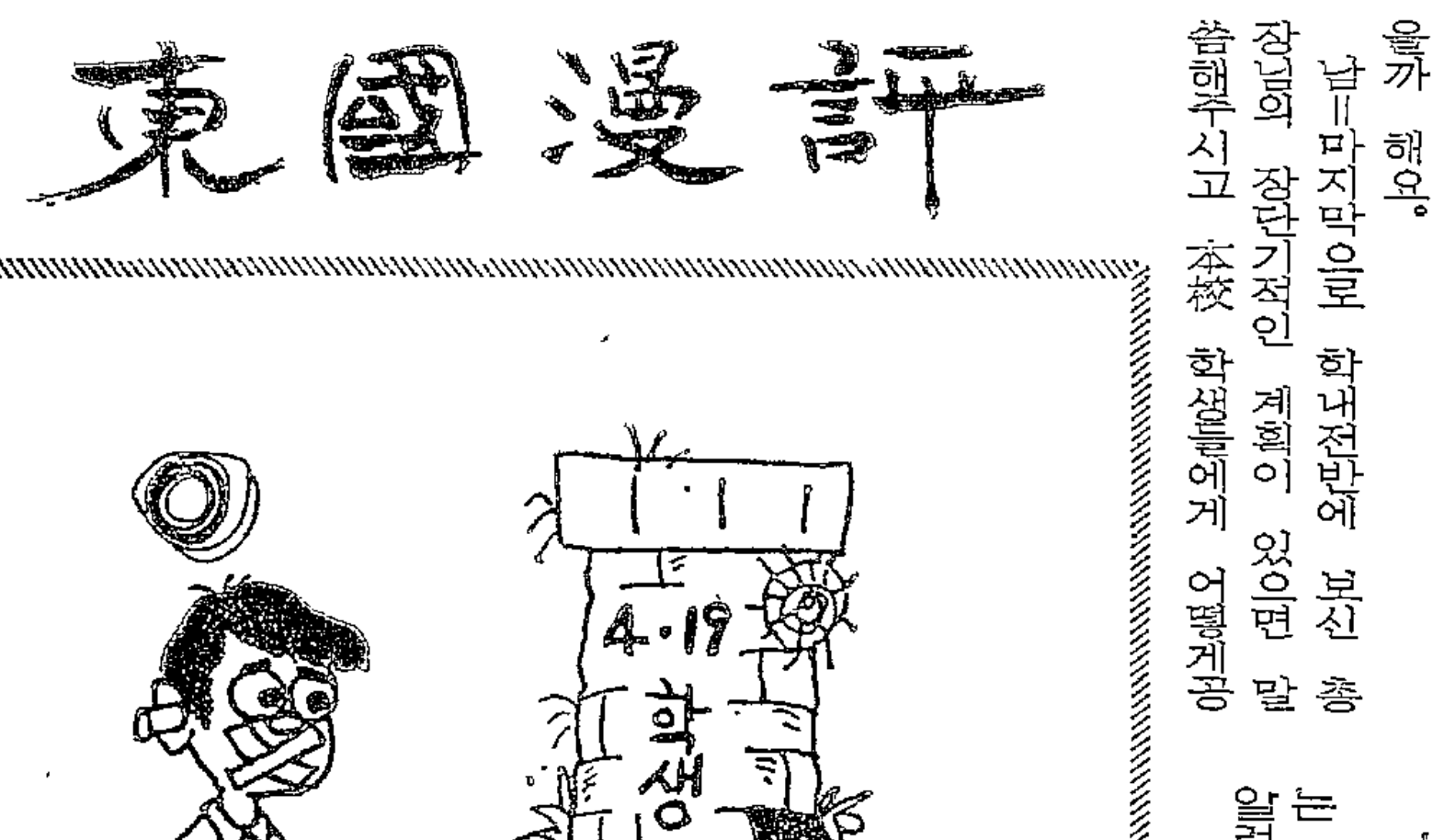
지식을 남보다 많이 알고 있다든지 기술을 남보다 잘 취득한다든지 하는게 아니라 대학 나왔다는 사람이 마땅히 갖추어야할 깊고 넓은 지식과안목을 갖출수 있는 수련을 4년이라는 짧은 기간중에 닦아야되겠지요. 4년이라는 세월은 결코 길지가 않아요.

남=바쁘신중에도 오랜시간 좋은 말씀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리=오형창記者>

「新羅文化 그脈을찾아」시리즈<5>는 지면관계로 게재하지 못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편집자註>

東國漫評



◇그뜻은 아직도살아있는데

에스콰이아 자매회사
주식회사 영에이지

바람, 바람처럼…

젊은 가슴속에 타오르는 理想,
뜨거운 마음속에 고여오는 사랑
때로는 성난 바람처럼,
때로는 대지를 잠재우는
고요한 바람처럼
이 젊음의 함성을 지르고 싶다.

바람,
바람처럼 살고 싶은
젊은 時間의 동반자—
에스콰이아 캐주얼 슈즈
영에이지, 데크

도시속의 활동감각
데크
I love deck

영에이지
Esquire

■영에이지전국지점●영에이지판매부 : 777-3302, 28-3341●명동본점 : 777-3301●롯데지점 : 778-1927●종로지점 : 724-4150
●광화문지점 : 724-3404/5●영등포지점 : 62-2195●신촌지점 : 393-3042●대구지점(053)46-1000●부산지점 : (051)23-0338 ●수원대리점5-7272
●광주대리점 : 2-2429●전주대리점 : 2-3992●대전대리점 : 26-2667●마산대리점 : 42-1718●원주대리점 : 42-5969●이리대리점 : 3-0011~5 ●강릉대리점2-3244

學會 正常化 언제되나

호국단 불신풍토도 正常化 저해요인

행사위주 학회활동 탈피시급

各科 특성 살릴 活動여건 아쉬워

학문의 창달과 진리 추구를 위한 요람인 대학은 자유와 정의가 무엇인가를 학생들 자신들이 깨우치며, 발전적인 방향으로 이끌어주는 창조적 준사회라 볼수있다.

한 개인에 의해 사회를 이끌어나갈수 없다는것은 모두 주지하는바, 그사회단체 구성원들의 참여와 협조속에서 계획, 집행되는것이 당연하다는것은 다시 언급할 필요가 없을것이다.

물론 대학사회에서도 예외는 아니다. 대학이라는 큰집단 속에서도 각 학과 학회의 구성원들인 학생들의 자치활동은 학문연구·단체생활을 통한 각자의 인격도야, 준사회인으로서의 소속감및 대인관계를 원활히 해주는데 큰역할을 담당한다 하겠다.

지난 75년이후 활동이 전면 금지되어 왔던 學會가 학생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면학풍토쇄신및 진작을위해 復活된지 1년이 넘어 선다.

각 학과의 독립된 자치기구로서 각종 학술강연회, 연구발표회, 체육대회등 학생들의 자율적인 활동에 의해 학회가 운영되어 왔으나, 학회가 부활된 이후 학회활동의 대부분이 강연회, 선후배 친목 체육대회, 신입생 환영회등 과거 행사 답습을 탈피하지 못하고 있으며, 거의 대부분의 학생이 학회가 무엇인지,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지에 대해 거의 관심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생들의 참여하는 빈도가 여전히 하락하는데 대해 학생들의 意識이 바뀌지 않는한 「學會活性化」는 참으로 어렵다 하겠다.

이렇듯 학회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이 적으면 적을수록 학회가 발전적인 학문의 요체로 유도하기엔 많은 지장이 초래되리라 본다.

그동안 학회활동을 통한 문제점및 집행부 구성에 관한 문제, 학회지발간에 대한 문제, 학생들 스스로 참여하는 참여도 문제, 끝으로 이러한 문제점을 지적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기 위한 활성화 방안 등 여러문제에 대해 언급해 보기로 한다.

◇學會活動의범위와문제점

학회본연의 목적인 학회원들의 학문적 성격을 띤 학예술활동 즉 강연회 학회지발간 연구발표회 (심포지움) 등을 비롯한 선후배간의 친목을 도모하는 체육대회로 양분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이러한 행사를 함에 있어대부분 과거에 행사를 그대로 모방한 행사이며 그나마도 農大 某학회는 1학기 활동계획으로 체육대회 한가지 행사계획을 갖고 있는 실정이어서좀더 활발하고 각과 특성에 맞는 학회행사가 아쉽다 하겠다.

또한 학회활동에 앞서 학회장 선출 역시 전체학생의 참여가 없이진행되고 있으며 학회에 따라서는 학생들의 의사가 잘 수렴되지 않은채학회장이 선출됨으로써 명목상의 학회로 도태되므로 그 제도적 모순을 하루빨리 시정해야 할 것이다.

단순히 일시적인 행사를 치루기위한 행사가 아닌 장기적인 안목으로 행사계획을 세워 학생들에게 호응과 참여를 불러 일으켜야 되겠다.

이런 일시적 행사에 대해 경상대 某과 丁君은 『다급하게 행사를 치루는데 대한 학회운영의 부실한 점을 역력히 엿볼 수 있다』며 『그러한행사를 가급적이면 탈피해야 하며, 좀더 향상된 행사를 위해 학회임원이 다같이 노력해야 할것』이라고 말하며, 좀더학회가自省해야한다고말했다.

이렇게 自省의 소리가 학생들에의해 이야기 되고있는 만큼, 각 학과 학회 임원들은 반성, 학생들이 공감할 수 있는 행사를 치뤄야겠으며, 행사범위가 매우 국한되어있어 따르는 학생들의 학회에 대한 불신감 해소를 위해 좀더 적극적이고 폭넓은 학회활동을 전 학회는 모색해야 하겠다.

이러한 반성과 자각속에 학회활동에 대한 문제점은 하나 둘 시정될 것이며, 학회는 더욱더 발전적인 자치기구로서 역할을 다하게 될 것이다.

◇행사위주의 학회행사보다 학생참여를 불러일으킬수있는 행사가 시급하다하겠다.

◇집행부구성 문제

한 개인으로서 사회가 형성되지 않는 한 어느 사회, 국가, 단체를 막론하고 집행부 구성이 이루어져야 함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K大의 경우에는 총무제를 둠으로써 학회장과의 원활한 학회운영의 전반적인 문제에 대해 토론하고서로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면서 『그러한 유기적 관계를 통해 학생들의 의사를 폭넓게 수렴한 수 있는 집행부 구성이 아직 돼 있지 않은 상태이므로, 독립된 자치기구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는 집행부 구성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하는 某科 W君은 학회의 집행부 구성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현재 몇몇 학회가 집행부 구성을 한것으로 알려졌는데 아직까지는 뚜렷한 활동이 없는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각학회들의 이러한 집행부 구성이 고조되고있는바, 그것에 대한 빠른 성과는 거둘 수 없다 할지라도 학도호국단의 一元的 체제에서 다원화체제로 지금의 제도수정이 불가피하며, 효율적인 학회활동과 서로간의 의견을 접할 수 있는 좀더 구체화된 집행부 구성이 아쉽다하겠다.

◇學會誌 발간 現況

學會員들의 학문연구와 면학에 대한 학구열을 진작시키는데 목적이있는 학회지 발간이 전학회를 통해 한권도 발간되지 않는 실정이다.

물론 학교당국의 경제적 지원이적을지라도 D大, E大, I大등 그나마 대부분의 학회가 학회지를 발간하고 있는데, 本校의 학회들도 자극을 받아 활발한 학회지발간에 힘써야 할 것이다.

『학회지도 發刊하지 않는데, 호국단의 학회보조비와 학회비 (1인당 5천원)는 과연 어디에 쓰여지겠느냐』며 학회도 호국단처럼 불신감을 학생들에게 주어서 되겠느냐고 某科 K君이 말했는데 이처럼 학회도 학생들에게 불신감을 주지 않도록, 1학기 행사에 대한 계획서를 학생들에게 알려, 서로간의 토의를 거친 행사가 되어야 할 것이며, 사업계획서 및 결산보고서를 학생들에게 공개하는 것이 선행돼야 불신감을 해소하는 한 방안이라고 생각되어 진다.

한편 전년도에 학회지를 출간했던 가정교육과학회를 비롯 經濟科학회, 國語國文科학회 등 여러 학회가 학회지를 발간할 예정으로 있으며, 他학회에서도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학회지를 통해 학생들의 학문진작을 시킬수 있는 진정한 學問的 창달이 이루어져야 하겠으며, 또한 학생들의 참여가 시급하다 하겠다.

◇참여도의 문제

『학생들의 의식 자체가 확립되지 않은 데도 원인이 있다 하겠지만, 지금의 大學人들이 생각해 봐야 할 문제가 참여하는 자세가 정립돼야 한다』고 말하는 분리대 某科 P君은 『강연 내용의 딱딱함도 없진 않지만 몇몇 관심있는 학생들의 대상이 되고있는 실정인데 좀더 학회에서도 신경써서 학생들의 참여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행사가 되어야할 것이라고 강조한다.

자리만 채우는 강연회가 아닌 학생들의 학문정진을 위해 도움이 될 수있는강연회가되어야 할 것이며 학생 참여의식을 한번쯤 재고해 보아야 될 것이다.

아뭏든 量的인 참여가 될 수 있을지라도, 量이 참가하는 가운데 학생들의 質的인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한 방향이 모색되지 않는한 「무관심속의 학회활동」이 될것이 틀림 없으며, 학생들을 참여도 문제 역시 「풍요속에 빈곤」을 낳게 될 것이다.

◇활성화방안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속적이고 지엽적인 학회활동의 범주를 벗어나지 못하는데에 나타나는 문제점, 원활한 학회운영을 위해서는 부학회장, 총무, 기타 부서제를 둠으로써 학생과 학회임원들간의 유기적 관계 모색방안, 학회지를 통한 學問的 연구의 진작문제, 학회활동에 참여 하지 않으며, 무관심으로 일관하는 일부 학생들의 참여결여문제 등이 검토, 시정되어 선행돼야 할 것이다.

朴先榮학생처장은 학회활성화에 대해 『시설문제 (학회실), 경제적지원, 적극적이고 폭넓은 학술행사가 조화있게 이루어 져야하는데, 학교당국의 충분한 재원을 갖고있지 않은 것은 학생들이 이해해야 한다』며 『비록 경제적지원은 못해주더라도 행위적인 뒷받침은 충분히 해줄 것』이라고 답변하고 활동하는데 규제를 완화할것이며, 집회 승인절차도 되도록 간편하게 결재하겠다고 부언했다.

지금까지학회행사가 일시적인 행사가 많았던 것은 부인할수 없을 것이며, 닥치면 행사를 치루는 행사위주의 학회 방침도 하루빨리 탈피해야 할 것이다.

여러모로 시정될 때 학회발전은 학생과 더불어 같이 호흡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그러나 어느科나 마찬가지로 안고 있는 학회비 학보문제, 학회실 정비 (확보) 학생의 참여의식 문제등이 해결되지 않는한 學會活動의 활성화는 기대하기 힘들다.

그것은 學會공인이 된지 1년이넘어섰음에도 불구하고 눈에 띄게 활성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그 원인이 학교당국의 경제적 지원부족에도 있지만 학회 구성원 자신들이 학회활성화에 대한 인식의 부족이 비중이 크다 하겠다.

이러한 여러가지 해결방안이 하나 둘 시정돼 감으로써 학회는 진정한 의미의 학생자치기구로서 大學內에서 그 역할이 상당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임지수記者〉

知性의 實踐과 學生運動

—4·19 23돌에 부쳐

오늘날과 같은 時點에있어 學生運動이 우리에게 의미있는 것으로 받아들여 지는 理由中의 하나는 그것이 社會의 구조적 기본모순점의 해결을 위한 진지한 노력으로서의 지성의 실천이기 때문이다.

學生運動에 대한 一般的 편견의 뿌리가 어디에 있던 오늘날 社會·一般에 팽배해 있는 학생운동에 대한 곡해와 편견은 이루말할수 없지만, 결단코 學生運動에 대한 올바른이해는 當然히 그 사회적배경과 運動의 性格, 目的, 이념, 動因등의 관계에 대한 올바른 파악을 전제로 한다.

이와같이 學生運動을 「社會구조의 기본모순을 해결하려는 학생집단의대응」으로 규정할때, 그것은 學生의 政治社會, 文化運動 전반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

지금으로부터 20여年前의 4·19 그날은 주지하다시피 독재와 부패에 항거한 자유와 民主化로 대표되는 民族史的으로 큰 의의를 지닌 學生義擧日이란는데 동의하지 않는 사람은 없을것이다. 그런데 그러한 4月의거였다손치더라도 거기에는 몇가지 문제가 있다.

하나는 과연 오늘날 사회제도 속에 4·19의 기본 명제였던 자유의 이념이 제도화 되었으며 民主의 具現이 상대적 의미에서나마 實現되었는가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당시 4·19의 주체세력이었던 학생층이 기성 사회속의 기성세대가 되어있는 오늘 얼마만큼 20年前의 그들의 문제의식과 이념을 성실히 실천하고 있느냐하는 참다운 「知性의 실천」에 대한 문제이다. 물론 전자의 문제는 時代的 특수상황—분단현실, 체제문제등—을 고려해야만 하겠고 또 後者의 문제가 선결되어야만 說明되어질 수 있는 性質의 문제이기는 하다.

또한 이글이 어떤 특수계층을 논박하거나 하기위한 것은 아니고 단지歷史와 社會속에서 知識人—知性人—의존재가치는 무엇이며 현실사회속에서 지식인의 유형은 어떻게 모습을 달리하는가 하는 문제를 생각해 봄으로써大學시절에 내면화된 자유의식, 비판의식 사회의식, 역사의식이 社會속에서 實現되지 못하고 왜소한 生活人으로 남는 것이 지식인이 안고 있는 숙명적인한계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는 의도이기도하다.

時論

해마다 찾아오는 4月, 4月은 적어도 19日만은 우리 모두가 그날의 함성을 기억하고 그날을 휩쓸던 흥분과 감격을 되새기며 4·19는 민주주의는 正義를 위한 투쟁의 산물임을 확인하는 축제가 되지 못하는 것은 무엇때문일까. 4·19묘지 앞에 선 우리가 주위를 살피고 눈치를 보게 하는 현실때문인지 모른다. 아니 우리의 無力함 나약함 비겁함, 혹은 그 모든 것을 은폐하려는 소영웅주의 그것이 우리를 부끄럽게하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어쩌면 우리가 4·19를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하고 왜 민주주의와 민족주의가 우리의 삶의 大地인가를 우리는 느끼지 못했고 느끼려 하지도 않았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그렇다 우리는 그런것을 몰라도 월급을 탈수있고, 大學에 다닐수 있고, 카드를 칠수있기때문에 4월19일이 공휴일로 대접 못받는 것을 한탄할수없고 기념식에서나 (그것도 제대로 열릴수없지만) 잠시 반성하고 금방 집에가서는 TV, 프로야구에 열광할수 있는 것이다.

사람은 진정 망각의 動物인가 보다.

어제 석간신문의 톱기사도 까맣게 잊어 버리는걸 보면 더욱 그런 생각이 든다. 은혜로운 해방자가 베풀어 주던 美軍政이 그들이 준 잉여농산물이 어떤 의미를 지녔는지, 왜 南北이 갈라졌는지, 누가 친일파 였는지 모두 이미 지나간 옛일 이라서, 살기에 지쳐서, 내가 살던 時代의 일이 아니라서 더욱 잘 잊는가 보다. 한일회담이 어떤 의미를 지녔는지도 71년 10월 어떤 일이 있었는지도 청계천피복노조모씨와 S대생 모씨가 왜 자살을 해야 했는가도, 그리고 79년 80년 무슨일들이 일어났었는가도 우리는 모두 지나간 일이니까. 오늘 저녁밥을 해결하는데 하등의 도움이 되지 않으니까 잊었는지도 모른다.

「선진조국창조」의 길로 전진하는 시기에 「국민단합」을 파괴하는 일이라 할 사람도 있는지 모르지만 그 낡은 일들은 기억돼야 한다. 참다운 「지성의실천」으로써 學生運動史에 점찍힌 그날을 생각하면서 잃어버린 당위를 찾아야 한다.

自由黨政權의 「反共논리」 집권연장 수단

4·19는 실패한 反獨裁學生運動

그러나 우리는 왜 아직도 일제잔재가 청산되지 않고 있다」고 한는지 왜 反民族 자본가와 파시즘을 얘기하는지 모른다. 아니 어쩌면 우리는 실체를, 속모습을 보여줄리 없는 일제잔재를 反民族자본가와 파시스트들을 알수없기때문에 잠시나마 그들의 얼굴을 이름을 보여주었던 4·19를 기억하려고 애쓰는지 모른다.

가령 自由黨政權이나 유신체제 하에서 내세웠던 「국가안보」가 누구를 위한 이데올로기였는가를, 농지개혁이 누구를 위한 개혁이었던가를, 경제개발이 수출 1백억불 달성이 누구의 努力을 가져다 누구에게 그 댓가를 지불한것인지를 우리는 모른다.

그러나 우리는 또한 알고있는 것이다. 우리를 지배하는 이데올로기가 민중의 힘을 확산, 발전시키는 것이 아니라 權力層의 이익을 대변하고 그것을 더욱 공고히 하는것이 되었을 때 그것이 역사발전의 장애요소이고 낡은 생산관계를 반영하는 이데올로기 라는 것을.

◇4·19당시의 학생데모대들.

4·19를 흔히反獨裁 민주혁명이라고들 한다. 그리고 그 社會경제적 배경으로 보아 市民이 합세한 의거의 性格을 띄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그것은 또한 주체세력이 새로운 政府를 구성하지 못하고 非주체적 세력이 의거후의 진행과정을 추진했기 때문에, 그리고 뚜렷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했기 때문에, 일제잔재세력과 기생적 반민족세력에게 야합할 기회를 주어 실패한 「學生의거」라고 한다.

그렇다 우리는 분명이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 그것은 민족주의가 정의를 위한 투쟁의 결실이라는 것과 민주주의와 민족주의가 결코 반민주세력과 반민족 세력에게도 참여의 기회를 주는 「관용적인것」이 되어선 안된다는 사실이다. 그들은 쉽사리 단죄받을 세력들도 아니지만 역사는 언제나 책임소재를 분명히 밝혀 반민주적 세력을청산할때 참다워지는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다시 18년을—박政權의 체제아래—4·19를 왜곡하는 무리들속에서 눈과 입을 막히우고 고통속에 살아왔다. 그당시 경제발전과 국가안보를 民主보다 우선하게 여기던 속에서, 민중이 소리칠때 마다 석유가 나온다, 국제정세가어떠하다는등 말을 서슴치않던 非良心的이었던 그날의 무리들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당위까지도 잃어가면서 살아왔다.

그리고 우리는 살고있다. 大學과 학생운동이 참다운지성의 실천이 「좌경화」니 「지하써클」이니 「버릇없는 아이들」이니 하는말로마구 오도되고 있는 현실속에서 어른이라는 이름을 붙이고도 추호의 부끄럼 없이 학생들을 규제조치했던 당시의현실속에서 아니 학생운동의 주체인 학생들까지 「상호불신」을 취하지 않을수 없었던 현실속에서.

그러나 우리는 아직도 잘 모른다. 그당시 우리의 믿음직한 경찰이 4·19때, 누구에게 총뿌리를 겨눴는지를, 우리의 우방이며 자유세계의 보호자인 미국이 이 한반도에서 그당시 무엇을 했는지를,

이제와서 우리가 다시 4·19를 돌아보며 기억하고 되새기려는 이유는 결코 다시는 이땅에 저 반민주주의장벽들이 들어서서는 안된다는 작은 신념 때문이고 한반도에 있어 전쟁을불식하고 반드시 「평화적통일」이 왜 이루어져야 하는가를 생각하게 해주기때문이다.

역사는 참다운 지성의 실천만이 항상 새로운 도약을 마련해 준다는 것을 가르쳐준다. 4·19는 실패한 학생주도의 혁명이다. 실패함으로써 더욱민중의 자기각성계기를 주고 민중이 역사의 주인공임을 끊임없이 환기시켜주는 횃불인 것이다.

4月이 왔다. 大學의 「젊은가슴」들은 이 4월에 4·19를 맞으며 참다운지성의 실천을 위해 다시 각오를 새롭게 다져야겠다.

기 획 부

회전무대

4·19精神 表明안됐던 登山大會

東國人기백 北漢山에 떨쳤지만

○…東國人 登山大會가 本校는 18일, 慶州大는15일 각각 강행(?)돼 1萬 東岳의 學兄들은 北漢山과 남산을 땀흘려 올랐으나, 이날 春季 대소풍(?)에 참가했던 뭇學兄들은 갸우뚱, 『登山大會 날짜가 4·19 전날이거나 임박한것등 전후사정을 보면 분명4·19기념은 4·19기념인데…』라며 「왜 막상 山行中에는 4·19의 4자도 언급이 없는냐」며 학교측과 호국단에 불만.

4·19당시 선배들은 『정의를위해, 민족을 위해 싸우다 죽겠노라』고 민주의 제물로 산화했음에도 불구, 本校나 慶州나 大會안내 책자에서조차 「4·19정신을 계승키위해」라는 언급을 않고 學兄들의 家議를 外面, 뭇 學兄들은 本校측과 호국단의 지나친 기우에 항의, 下山때는 「정의가」, 「흔들리지않게」등을 부르며 東國人의기백을 北岳에 떨쳤다고.

내일의 주역이될 우리 「젊은가슴」들이時代에 대한 사명감이나 책임감을 갖는걸 두려워하는분이 계신는지는 모르지만 本회전무대子 생각엔 기성세대가 되신분들, 혹은學生의 대표라 자부하시는 분들이 보인 그런 모습(?)넘 한거아닐까요?

4·19기념사업·行事많아져야

○…4月도 무르익어 「껍데기는 가라」고 詩人이 외쳐대던4·19스물세돌이 언제 도래 「비겁한 삶」보다 「正義로운 죽음」을 선택, 「불의여 물러가라」고 울부짖던 선열들을 다시금 되새기게 하는데…

4·19에 즈음한 뭇學兄들『大學에 있어 4·19보다 중요한 날이없는데 눈에띄는 기념사업하나 없다는것은 부끄러운일』이라며항변, 학교당국과 호국단을 또다시 힐책, 『잘해볼 생각이 정말 있긴 있는거냐』고 부언도.

당국및 호국단 관계자여러분! 一萬東國人과 혼연일체 「두려움없이」 전진해 웅비東國의 기상을떨칠 각오 없으십니까.

중구난방식 中間考査변형시험

○…얼마전 문교당국의 시책에 의해 변형해 실시키로 발표됐던 中間考査가 예정대로 변형해 강행(?)된다는 소식이들리자 本校나 慶州大나 뭇學兄들은 투덜투덜.

오가는 學兄들의 後聞에따르면 어떤 교수는 수강태도와 과제물로 중간고사를 대치하고, 또 어떤 교수는 매달 수업시간에 예고없이 실시, 중·고등학교의 월말고사를 방불케하고있다고.

교수재량껏 실시할수있는 젊은 학생들도 환영하는바이지만 졸업정원제세대인만큼 공평한 학점배분에 차질 있지않을까 本회전무대子 찜찜.

慶州大 學會活動 난제많아

○…당국의 뜨거운 (?) 배려로 全 대학가에 학회활동의 본격화하고 있음에도 어쩐일인지 慶州大學만은 예외가 되고 있는듯해 이것저것 학형들 불만만 커지고 있는 모양.

과거의 오랜 활동경력을 가진 대학들과 하루 아침에 같은 수준은 될수 없더라도 어느 정도 學術활동은 집행해야 할것인즉, 창립기념 행사등 소비성강한 활동(?)만 거듭되는데다 규정에도 없는 학회비 독촉등으로 여러 학형들 벌써부터 학회활동에 식상해 있다는것.

여기에다 일부 열성적인 학형들을 제외한 대부분의 학형들이 학회활동 자체에 무관심을표명(?)하고 있어 난제는 쌓여만 가는듯.

대학생활의 기본이 되어야 할 탐구활동이 제대로 되지않고, 거기에 겨우 숨을 쉬게된 學會마저 학문도야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慶州東國人들의 大學理想은 어디서나 바라볼수 있을런지 걱정스럽기만….

NEW-EDITION KOREAONE VOCABULARY 22000에 이은 TAPES 출간!
Harold Levine New Edition KOREAONE VOCABULARY 22000/해설판 값5,000원/영문판 값2,500원/TAPE 4매 값8,000원
KOREAONE VOCABULARY 22000 TAPES
고려원

● 올바른 영어교육을 위한 KOREAONE ENGLISH COURSE
ACTUAL ● 김영로 편저
TOEFL
TAPES. ● 편집 : 김영로
김영로 편저 ACTUAL TOEFL에 이은 TAPES 출간!

실제 TOEFL 문제보다 더나은 TOEFL 문제는 없읍니다!

실제문제에 올바른 해설을 붙인 김영로편저 ACTUAL TOEFL 교재와 함께 제작된 테잎으로 TOEFL 시험을 준비하는 분들에게는 물론 취직 시험이나 국가고시 혹은 기업체, 각종 단체 직원들의 영어 청취력 훈련과 테스트 자료로도 안성마춤입니다.

녹음내용과 만든사람
전 FULBRIGHT 교환교수 DALE A. ENGER 씨와 미국인 어나운서 두분이 녹음, 제작했으며 최근에 실시된 TOEFL 가운데 청취력 테스트 문제 7회분 (NOV. 21, 1981; AUG. 8, 1981; MAY 16, 1981; NOV. 22, 1980; SEP. 12, 1980; AUG. 9, 1980; MAY 17, 1980)과 1회분의 해설 (MAY 17, 1980)이 녹음되어 있음.

♣ 서점에 있읍니다.
● ACTUAL TOEFL (책) : 4×6배판/555면/값 7000원 ● ACTUAL TOEFL TAPES : 테잎4매/값8000원
● ACTUAL TOEFL 부록① (TOEFL, MAY 1982) : 문제집+해설+청취력 테스트 문제 테잎1매 : 값3000원
● ACTUAL TOEFL 부록② (TOEFL, NOV. 1982) : 문제집+해설+청취력 테스트 문제 테잎1매 : 값3000원
고려원 외국어교육부
서울·종로구 수송동 46-22
서울중앙사서함 제6622호
☎ 영업부 (744) 7741~3
편집부 (723) 1706·1802

不道德 教育講座
三島由紀夫 著
黃安雄 譯

이 시대에 우리가 신뢰할만한 正義나 도덕이 있읍니까?
벌거벗은 몸뚱이가 보기에는 좋지 못할진 몰라도 그것이 진실인걸 어떡합니까.
허위의 의상(도덕?)이 더욱 혼란만 초래하는 時代相이니 우리 이젠 솔직해 집시다.
훌륭한 학자님들의 哲学書나 人生論 수만권보다도 차라리 이 책 한권이 더 나을른지도 모릅니다. 당당하고도 명쾌한 솜씨로 세상의 부도덕과 대결하는 이 天才에게 共感하며 읽노라면 어느새 혼란에서 벗어나 탁 트인 視野를 갖춘 自身을 발견할 것입니다.
당신은 이제 自信있게 人生을 論할 수 있게 되었읍니다.
국판350면/값3,000원
天地玄黃 出版社
253-4603

당신도 수출왕이 될수있다
장영호 著
딱딱한 이론서가 아니라 세계의 구석구석을 뒤진 수출시장의 뒷얘기
책값/3,000원
782-3681·783-1541/5
대학문화사

로마帝國은 왜멸망했는가
池東植 編譯
로마제국의 멸망을 정치·경제·사회·군사·종교적 측면에서 분석
책값/4,600원
782-3681·783-1541/5
대학문화사

大學英語
教養, 留学, 就職, 大学院試験準備
開講⇨ 5月 2日
(선착순등록마감)
李在玉TOEFL
아카데미TOEFL
Vocabulary 22,000
TIME 英文속독法
TOEFL LC, AFKN
英文解釈①②③, 英作文
Word power, 美人会話
TOEFL 留学英語, 基本英語
한·미合同会話, 三位一体
민병철生活英語, English 900
英語実力基礎, 성문綜合英語,
美国語Hearing 碩博英語
Vocabulary12,000, 基礎英作文
Reading Power, GRE, GMAT
Word power 基礎英語会話
初級日語, 中級日語
高級日語, 日語読解
ダイジェスト, 日語高級会話
独語文法宗成
英·日·独
院長: 文昌淳
종로2가 종각뒤편 724-2442·722-9226
時事英語學院

大学生·成人을 위한 英語 Training Center
현대외국어학원
時事英語社 直営
현대외국어학원
—英語·日語—
● TIME, Digest, TOEFL綜合, TOEFL L. C. AFKN청취, Word Power, Vocabulary, 英作文 이재옥TOEFL, 성문綜合英語, 英文読解 현대영어, 三位一体, 日本語初級, 中級, 高級
● 美人会話 — (New English Course英語会話)
● 韓人会話 — (Welcome to English 英語会話)
5月2日 개강
수시등록
☎ (269) 6626~7
YMCA 파고다공원 ←화신앞 종로2가 네거리 종로3가→ 전상화고속 현대외국어학원
현대외국어학원이 時事英語社 直営입니다!

慶州大 신입생환영 백일장 詩部 장원

구름처럼 걸읍시다

김미양

구름처럼 걸읍시다。
오로라의 차가운 가슴팍에서
뿌우옇게 흐릿한 안개가 피어올라
우리는 먼길을 걸읍시다。

숲 속에서는 조그만 그루터가에 앉아
바람결이 실어오는 먼나라와 얘기들을
가슴 가득히 들이 마시어 기뻐하며
하늘을 바라보아 감사도 하고
그러다 때가 되면 또 떠납시다。

하늘아래 첫동네가 뵈이며
그곳에 보고 싶던 이들이 모이어 살면
우리는 간직하던 슬픔의 구슬들을
애써 찾아온 기다림에 꿰어
그들 파리한 목에 걸읍시다。

징검다리 건널만한 시내에서는
차갑게 휘감기는 물결속에
피로한 손발을 맡겨 버리고
마주 바라보며 잠시동안 웃읍시다。

모르는 사람들이 기다리면는
지나온 아름답고 그리운 얘기들을
그들의 가슴에 촉촉히 차도록
스며들듯 부드럽고 달콤한 소리로
그네들의 귓속으로 부어 봅시다。

그리운 이에게는 그리운 얘기들을
사랑하는 이에게는 사랑스런 이야기를
슬퍼하는 이에게는 아름다운 얘기들을
모든 영혼의 부름에 따라 오늘도
구름처럼 걸읍시다。

〈慶州大 國文科〉

劇團 탐방

演劇은 끊임없는 재창조 —오사단

<5>

「오사단」이란 희곡작가이자 연출가인 오태석씨를 중심으로 모인 연극인들을 연극계에서 부르는이름이다。 아직 모두들 배우는 입장이라고 생각하기에, 극단으로의 간판이 없다고 하며 좀더 치열한 프로가됐을때 자신있게 간판을 걸겠다고한다。 이모임은 오태석씨가 연출을 시작하면서 만들어진 것으로, 대강 76년의「춘풍의 천」에서 비롯되었다고 할수있겠다。

부단한 再創造로 자기藝術이뤄야

연극은 하나의 小宇宙 창조

오태석씨는 전통의 수용과 한국연극에대하여 다음과같이 얘기한다。

『일반적으로 연극의 출발을 그리이스의 디오니소스제전으로 잡고 그 양식을 아리스토텔레스의 詩學에서찾읍니다만 그것은 서구의 관점이고京劇, 歌舞伎, 能나 우리의 탈춤, 사당패놀이등과같은 연극유산과 전통을가진 동양3국의 관점에서는 달라질수밖에 없읍니다』즉, 서구의 연극은그들의 합리성에 바탕을 두고 있으므로 구체적이고 산문적이다。 詩學에서 말하는 비극의 요소도 그중요성대로 나열하면「Plot, 성격, 措辭(언어와율동), 思想, 場景, 歌謠」의 순서이다。

그러나 동양의 연극은 그 순서가 반대이니, 즉 詩的인 언어로 농축된 단순성과 언어의 律性에 의한 음률 그리고 스펙타클한 움직임과 환상적이고 상징적인 표현으로 구체적이라기보다는 직접적인 intuition에 기초하고있다。 따라서 관객은 劇의 전개에 뛰어들어야만 감상이 가능했고 이것은 사람들에게 잠재된 연희성에 그 근거를 둔다고 했다。

『이제는 단순히 탈춤을 춘다는것만으로는 커다란 의미가 없읍니다。 그것의 구조를 추출해서 지금의 우리들 얘기도 하는 것만이 이 시대의 문화가 될수 있는 것입니다。

남의 얘기가 아닌 자기의 얘기일때 모두들 관심과 애정을 가질수있고 그것은 우리에게 이어져 내려오는 잠재된 참여능력과 그 연희성이 기초가 되어야한다고 했다。 또 연희자와 관객의 조응(연희성)은 한데 어울려 논다는 의미말고도 토의한다는것, 즉 공감의 확대로 모두가 서로 상의한다는것도 의미한다고했다。

이것은 또 현대의 감각에 맞아떨어져야 한다고하며 더이상 미인의 얼굴을 보고 달님같다고 하지않는 것처럼 자연과 접할 시간이 많았던 시대와 은등 차소리, 공사판의 노란색, 지하철, 고층건물에 의한 上下의 생활선등이 흩뿌려진 현재 대한민국, 좁혀 서울이라는 상황과는 비유의 대상이나 관심의 각도가 다를수 밖에 없으므로 감각은 우리주변의 감각이어야 한다고했다。

희곡과 연출작업과의 관계에 대해서는『중요한 것은 대사와 대사사이의 공간입니다。 좀더 비약을 한다면「言外의 言」이나「無言의 言」이라고까지 할수있지요。 사실 희곡이란 연극공연을 위한 단서에머물러야 합니다。 작업은 현장에서 이루어 진는 것이고 현장에서 희곡은 완성되는 것입니다。 또 배우는 희곡을 가지고 자신의 예술을 끌어내야 합니다。 따라서 고정된 희곡작품이 나오기 위해서는 여러번의 새로운 공연으로 끊임없는 재창조가 필요합니다』

그 예로「춘풍의 천」를 보면 73년에 이화여대 국문과에서「이춘풍전」이 각색, 연출과정에서 수정, 보완을 하다보니 아예「춘풍의 천」라는 작품이 나오게 되었고「오사단」은 이 작품을 들고 전국을 돌아다녔다。 그러나 오태석씨는「추월이」를 좀 더 살렸으면 좋겠다고 하며 인쇄된「춘풍의 천」는 불만투성이라고 한다。

사실 우리는 연극에 대해 어느정도의 선입견을 가지고 있다。

물론 전통의 단절된 시기가 있었고 연극이라고 시작한 것이 일본을 통한 서구연극의 아류였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그러나 모든 한국인의한국연극은 그 열망의 강도를 따라자리잡아 갈 것이다。

연극의 출발은 모방이다。 즉 현실에서 불가능한 것을, 가짜이기는하나 무대에서 Reality를 불어넣어, 생각대로 하나의 소우주를 창조하는 것이 진정한 연극이라 생각한다。

극예술 연구회

泛濫하는 유명商標

文化批評

나이키派, 프로스펙스派갈리는해프닝도

매스컴의 과대광고 射倖心 조장

캠퍼스內에서도 미니패션쇼 방불케해

현대를 흔히 자기PR의 시대라고 말한다。 이러한 말이 나올 정도로 현대사회는 급변하는 정보를 어떠한 방식으로든 입수하여 자기의 영역을 넓혀 남들보다 돋보이도록 노력하는 시대로 변모하였다 할수 있겠다。

이렇듯 변화하는 현대사회속에서 일부 사람들은 자신의 의모를 아름답게 꾸밈으로써 자기의 존재를 과시하려는 경향이 엿보이고 있다。

이러한 경향에 발맞추어 과거 일부 사람들에게서 보이던 유명메이커들의 상품 선호도가 이제는 일반적인 경향으로 흐르고 있다。

이러한 점은 소비수준의 향상이라는 긍정적인 측면에서의 관조도 있겠지만 그보다는 분에 넘치는 소비행위로인한 사행심의 조작으로 보이지 않는 사회문제로 나타나고있는 실정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판매되고 있는 상품들중소위 유명제품이라 일컬어지는 상품의 기준에 대해 한관계자는『우선 그 제품의 바탕이 되는 원재료의 우수성, 또 그제품의 외양을 보기 좋게 하는 디자인의 우수성, 다음으로 그 제품을 만들기 위한 공정중의 세심한 뒷손질등을 들수있다』며『그러한 이유로그 제품의 가격은 당연히비싸진것이다』라고밝혔다。

그러나 이러한 점은 서울의 중심가에 위치한 P시장내에서 소위 유명메이커들의 상품이라 일컬어지는 제품들이 일반직매점 가격의 20%선에서 팔리고 있으며 매년「세일」이라는 명목아래 최고 90%까지 가격을 깍아 판매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할때 과연 신빙성 있는 사실인가는 실로 의문시 되고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점들을 제쳐놓고서라도 현재 유명상품에대한 선호도를 살펴보면 1년전 프로야구가 한창 불을일으키던때의 MBC청룡파니 삼성라이온즈파니 하는등 어린국민학생들이 각기 프로야구팀의 광고에 현혹돼 어린이프로야구회원이 되어 서로 파를나누었듯이 요즘에는 소위 나이키파·프로스펙스파등으로 갈리어져 서로다른 상표의 신발을신은 학생들간에는 어울리지도않는 웃지못할 해프닝이 빈번하게 유발되고 있다。

이렇듯 철도 들지않은 국민학생들 까지도 유명상품을 선호하는 실정에 대해 한 학부모는『요즘들어 부쩍 아이들이 유명메이커들의 상품을 갖고 싶어해요。 이러한 문제는 철모르는 아이들에게 좋지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으니 생산업주측에서는 과다한 광고를 줄이고 저희 학부모들은 올바른 소비생활을 지도해야 될것 같습니다』라고 말하기도 하였다。

특히 이러한 점은 감수성이 예민한 중·고등학생들에게도 큰 문제거리로 부상되고 있다。

올해부터 시작된 교복자율화조치 이후 각급 기관에서 검소한 복장을 주로한 패션쇼를 많이 가졌으나 그에 못지않게 유명회사들의 C의류, G의류등의 요란한 광고도 열을 띄어 중·고등학생들을 자극하고 있는 실정이며 그에따른 유명상품의 선호도 또한 상당한 것이라고 한다。

몇주전 某일간지 사회면에서도 나타난것과 같이 선생님과 제자들을구분하기에도 힘들게 차려입은 학생들의 옷차림은 교복자율화라는 조치가학생들의 억압된 규율속에서의 해방이라는 점에서는 상당히 좋은 반응을 일으켰으나 그것을 잘못 받아들인 학생들의 태도에는 큰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그러한 시책이 학생들에게 복장에대한 심적부담을 안겨준것만큼은 사실이다。

더구나 업주측에서는 학생들의 눈을 자극시키며 학생들을 사치의 길로 빠져들게하는 과대선전을 일삼으며 유혹하고있다。

이렇듯 범람하고 있는 유명상품들의 물결은 지성인들의 모임이라는 대학에도 밀려와 일부 학생들은 유명 메이커들의 상품으로 치장을 하는등 마치 캠퍼스안에서의 미니 호화패션쇼를 열고있는 것。 같은 현상을 빚고있다。

이에 대해 E여대의 L양은『진리탐구의 場이었던 저희 대화에는 요몇년사이에 일부 학생들이 소위 유명메이커의 의류와 액세서리로 치장을 하고 다니는 등에 유행에 민감한 저희 여학생들에겐 큰 자극제가 되어 그에 영합아 다른 학생들도 그런 경향이 이는것 같다』며『자신의 개성을 살린 의상을 입고 다니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지만 너무 사치스러운 것은 금해야 할것이며 검소하고 간편한 옷차림으로 배우는 이들다운 생활을 해야한다』고 일부 학생들의 자각을 촉구하기도 하였다。

flora
PRO-SPECS
Excellent
LIFE SHOES

◎청소년들의 사행심을 조장시키는 범람하는 유명상품들。

이러한 유명상품들의 난립과 더불어 소비자들의 사행심을 조장하는데는 現매스컴들의 과대한 광고 또한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안알동에 산다는 K씨는『現 매스컴들의 광고를 살펴보면, 특히 TV광고의 경우 현란한 색채와 감각적인 율동으로 소비자들을 현혹해 그 상품을 구입하도록 유도하고 있다』며『이러한 점은 업주측으로 봐선 자기들의 상품을 많이 팔수 있어 성공한 예가 될수 있다고 생각하나, 소비자들의 입장에선 특히, 서민들의 경우에는 괜히 마음만 들뜨게 하며 사행심을 조장시키는 결과밖에 나지않는다』며 서민의 괴로움을 토로하기도 하였다。

또한 요즘 들어와서는 광고의 방식도 다양해져 직접 사원들이 파급되어 티켓을 배부하는등의 사례도 빈번하다고 한다。

이렇듯 범람하는 現在의 유명상품들을 어떠한 각도에서 본느냐에 따라 그 가치양식이 달라지는 것이나 세계적으로 불황속에 빠져 우리나라 또한 그러한 상황하에 처해 있어 국민 모두가 근검·절약을 해야할 시기에 이러한 현상이 일어났다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일이라고는 할 수 없겠다。

그러므로 이러한 소비풍조는 없어져야할 것이며 특히 청소년기의 학생들에게는 올바른 소비성향을 갖추도록 지도되어야 할것이다。

또한 자기의 수입보다도 타인의 소비성향을따르기 위해 과다한 지출을 하면서도 사치인줄을 모르는 現 사회풍토도반드시 척결되어야 할것이다。

<金東昭 기자>

메아리

엄숙한 歷史

▲不義와 獨裁에 항거、民主와 民族의自由를 외쳤던그 날 그 운동이 오늘로 23周年을 맞이한다。 젊은용기의 實踐표상으로 4·19의 거사가 단순히 스튜던트 파워의 행사라고 규정짓는 오늘날 우리사회에서 그날 그 함성이 義擧냐 革命이냐를 論하고 싶지는 않지만 4·19의 진정한 意味만은大學의 젊은이라면 명백히 알려고 노력해야 될것이다。 ▲오늘날 大學街에서 일어나는 학생들의 함성에는 나름대로 論理가정연하다。 즉 학생들은 現在 우리가 처해있는 社會의 自體的 모순을 제거하자는 것으로 어느 時代나 어느 社會에도 산재해 있는 병폐를 최소한으로 줄이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기본 개념에서 시작한 學生運動이기에 전개과정에 있어서 학생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많은 구호가 나오게 되며 그 구호에는 특정인의 잔악성을 云云하는 면도 있게 되지만 학생의 행동은 민중을 위한것이고 自由를 위한것이기에 그 행위는 타당성을 찾을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소위 기성세대들은 學生運動의 원초적 의미를 곡해하고 있다。 즉 체재에 대한 도전으로 몰아세우고있고 그들의 행위는사회의 혼란만 야기시키고 있으며 결국 국토분단이라는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는 우리의 형편에더욱더 어려움만 가중시키는 쓸데없는 행동으로규정짓고있어서 다만 안타까울 따름이다。 ▲4·19 당시 결무대 앞에서 민주가 어떻고, 자유를위해 독재는 없어져야 한다고 외치던 이들의 일부가 지금은 회전의자에 앉아있다。 더구나 그들은 민주와 자유를 외치는 학생들에게 마치 지난날의자신의 행동은 현재의 그것과는 다르다는듯이 무사안일주의에 탐익하고있는 것을 볼때 학생시절의 비판 의식과 역사의식이 사회에 발을 들여놓으면 없어지는 것이 한 스러울 따름 이다。 ▲時代가 바뀌고 政權이 바뀌어도 眞實이 거짓으로 될수 없듯이 民主를 외치고 진실을 밝혀 모순점을 시정하려는 학생들은 결코 사회의 혼란을 바라지 않는다。 다만 젊은이의 진실된 주장에 귀기울이지않고 강렬한힘으로 강제해산 시키고 있으며 진실을 알고자 일어났던學友가학교를 떠나야만되니 안타까운 노릇이다。 이런형편이기에 한생운동에서 야기되는 社會的혼란은 전적으로 學生들에게 돌리려는 社會일각의 발언은 어떠한 설명으로도 학생들을 납득시킬 수 없는 것이다。 ▲장기집권에 대한 권력층 내부의 반항인 10·26사태 당시 청와대 대변인이 였던 林芳鉉씨는『이 사건은 엄숙한 역사이기에 국민에게 솔직히 알려야…』라고 말했다。 4·19역시 엄숙한 역사라 할수있기에 23주년을 맞는 오늘 우리는 다시금 그날의 함성에 귀기울필요가 있다 하겠다。 <南>

文化短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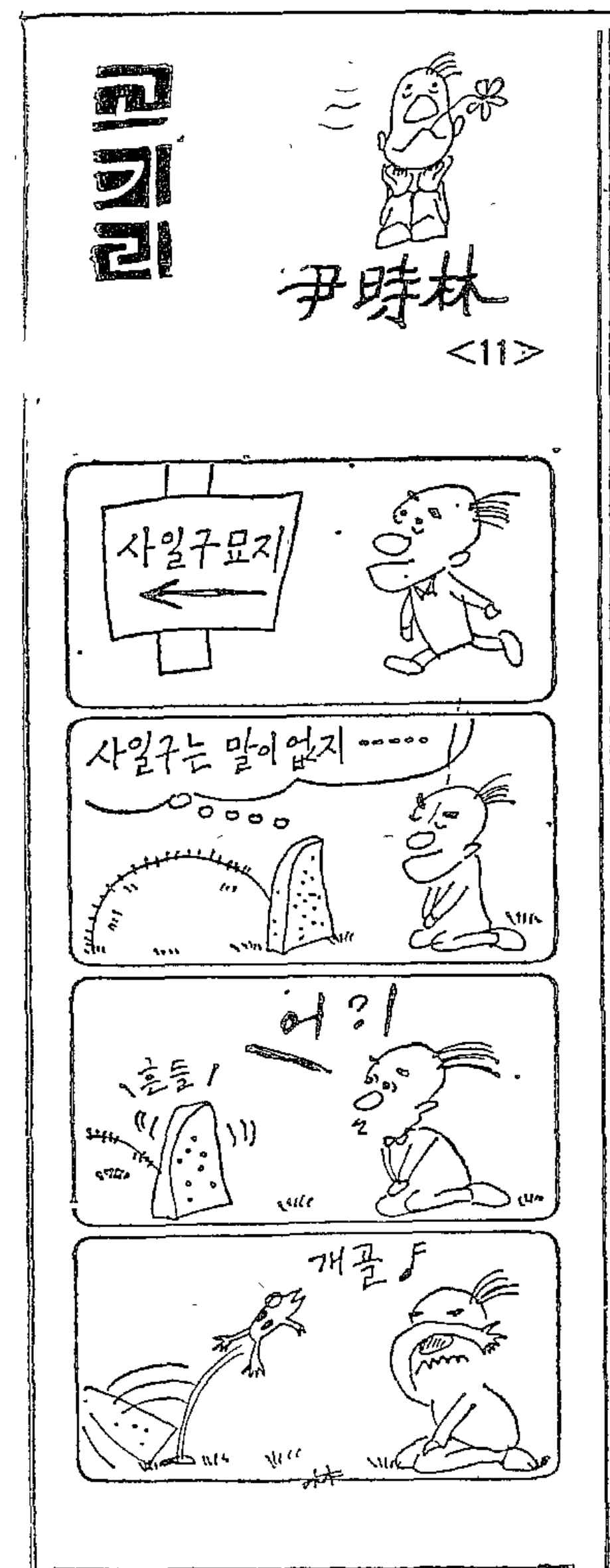
밤부터 아침까지

22日부터, 실험극장서

극단 <新協>에서는 모찌스키레이作「밤중부터 아침까지」를 이용우 演出로 22日부터 실험극장에서 공연한다。 공연시간은 4時30分, 7時30分。

고키리

尹時林 <11>



새책안내

記錄映畫論

폴 로다著·兪賢穆 譯

다큐멘터리 및 극영화의 프로듀서이며 감독, 저술가, B·B·S—TV의 다큐멘터리 책임자, 영국 영화아카데미 회원인 폴 로다가 1953年 낸 초판을 增補하여 제 3판을 낸「記錄映畫論(DOCU MENTARY FILM)」을 本校 兪賢穆(文科大·演映科) 교수가 번역, 出刊했다.

극영화의 미학에도 커다란 영향을 끼치며 새로운 創作法을 제시한 다큐멘터리의 精神은 각종 영상에서 진실로 살아있는 사물과 人生을 대하는 체험으로 더욱 가치가 있다.

저자 폴 로다는 本著에서 다큐멘터리는 본질적으로 人類의 지식과 이해, 그리고 궁극의 행복의 증진을 위한 하나의 세계 개념이라고 말하고 있으며 世界語로서의 영상수단은 하나의 인류, 하나의 세계로 밀착시켜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

現代韓國佛敎論

佛敎社會文化硏究所 編

現代 韓國佛敎의 診斷과 展望을 위해 佛敎社會文化硏究所에서는 佛敎界에 佛敎自體의 교리와 사회와의 만남을 이루는데 여러가지 學的 빈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필자들의 새로운 시각과 자기이론으로 다듬은 옥고「現代韓國佛敎編」을 펴냈다.

총 3章으로 구성된 本著는 1장에서 한국불교의 역사와 현황에 대하여 다각적인 분석에 치중했으며, 2장은 1장의 총론적 전자에 의거한 韓國佛敎와 화론적 고찰을 하고 있으며, 마지막 3장에서는 부록으로 日本불교의 과거와 현황을 소개하고 아울러 변증법적 유물론에 대한 佛敎의 입장을 서술하고 있다.

現代佛敎의 社會認識

孝橋正一著·釋道守譯

종교가가 아닌 사회과학자 孝橋正一이 불교를 종교로서만 아닌 객관적 시각 특히 사회과학적 입장에서 진단하고 있는「現代불교와 사회인식」을 저작, 동문釋道守씨가 번역출간했다.

본저는 학문적 인식을 뛰어넘어 종교적 실천적 입장에서 불교이해를 설득력있게 제시하고있으며 특히 역사의 문제, 노동의 사상, 평면적·개량적 사회사업의 문제, 나아가 맑시즘의 관제등도 날카로운 시각으로 지적하고 있다.

[illegible] •행복한 가정은 가족계획 실천으로

레드민트향
그린민트향
Close-up means even fresher breath
Lido Close-up strong clear red toothpaste
구취제거 미백효과
클로즈-업
새하얀 치아, 상쾌한 그린 민트향
리도

언제나 신선한 만남 클로즈-업

상쾌한 숨결 새하얀 치아로
자신있게 만나세요.

상쾌한 숨결 새하얀 치아,
만남에 대한 자신감과 함께
만나는 사람에게 좋은 인상을 주세요.
클로즈업 치약은 새하얀 치아와 기분까지
상쾌하게 느껴지는 신선한 숨결로 언제나
싱그러운 만남을 약속합니다.

구취방지효과 클로즈업은 유니레버 고유의 처방으로 입안에 냄새가 생기는 것을 막아 줍니다.

치아를 새하얗게 클로즈업으로 가꾼 새하얀 치아는 만나는 사람에게 좋은 인상을 줍니다.

향기의 지속성 신선하고 상쾌한 클로즈업의 향기는 오래도록 지속되므로 입안을 항상 개운하게 합니다.

산뜻한 투명젤타입 빨강·초록 두가지색의 투명젤타입으로 사용감이 상쾌하고, 레드민트와 그린민트의 두가지 맛과 향이 있어서, 취향에 따라 선택해서 쓸 수 있습니다.

클로즈-업
•권장소매가격•150g 1,000원•100g 720원

인류를 아름답게 사회를 아름답게
태평양화학
수퍼, 연쇄점, 백화점, 소매점에서 찾으세요.